현대불교

제 790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2010년 6월 30일 수요일 (음력 5월 19일 · 불기 2554년 · 주간)





어르신들 '탄로가'에 취하다

<歎老歌>

서울노인복지센터 '시인과 함께 하는 우리문화기행'… 매달 진행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白髮) 막대로 치려 했더니/ 백발이 제일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세월의 빠름과 늙음을 한탄한 역동 우탁(1262~1342) 선생의 '탄로가'가 새겨진 비석 앞에 어르신들이 섰다. 바로 옆에는 단양팔경의 제8경 사인암이 자리하고 있었다. 우탁은 충북 단양 출신으로 고향에서 감찰규정 등의 벼슬을 했다.

어르신들은 시조가 있는 비석을 한참 바라보기도 했고, 주변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어르신들은 병풍처럼 펼쳐진 절벽 아래로 물줄기가 흐르는 사인암의 절경보다는 탄로가에 더 취한 듯 보였다.

기념촬영을 할 때 김경선 사회복지사가 "어르신 웃으세요"라는 말에 어르신들은 멋쩍은 표정을 지었다.

한 어르신은 "어렸을 때 웃고 떠드는 것은 경망스러운 것이라고 배웠다. 이제는 정말 좋은데도 웃으려고 하면 찡그려진다"며 웃기 힘듦에 대해 설명했다.

6월 24일,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가섭)가 주최한 '시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기행'의 마지막 코스에서 있었던 일이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3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매달 한 차례씩 마지막 주 목요일에 진행한다. 이번 달 문화기행 코스는 단양팔경이었다. 70대부터 95세의 어르신까지 29명이 참가했다.김경식 시인이 안내했다. 김 시인은 명승지를 지날 때마다 그 장소에 얽힌 설화, 역사적 배경 등을 설명해가며 어르신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탄로가를 음미하던 조흥상 할아버지는 "오늘 우리문화기행에서 만난 하나하나가 새롭다"며 "전쟁과 가난을 겪다보니 젊은 시절 눈만 뜨면 일터로 나갔다. 정년퇴직할 때까지 계절이 바뀌는지도 모를 만큼 바쁘게 살았다"며 지난날을 회상했다.

"퇴직하고 나서 처음으로 서울근교를 벗어났죠. 멋있는데 좋은데 구경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지만, 이제 다리가 말을 안 들으니…. 여기 와서 보니 정말 나뭇잎 하나, 저렇게 생긴 바위(사인암)도 새롭고 신기합니다. 다 늙어서 그 맛을 알았어요."



늙음을 한탄한 우탁(禹倬) 선생의 '탄로가'가 새겨진 시조비 앞에서 어르신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어르신들이 6월 24일 충북 단양으로 '시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기행'을 떠났다. 어르신들의 뒤로 보이는 절경은 단양팔경(丹陽八景)의 하나인 사인암이다. 사인암은 덕절산 줄기에 강변을 따라 치솟아 있는데, 우탁 선생이 충북 단양에서 벼슬(사인재관;舍人在官)을 할 때 이곳에서 자주 휴양한 데서 사인암이라 이름 붙여졌다.

어르신 기행단은 이날 아침 서울을 출발해 오전 11시 충북 단양의 도담상봉에 도착했다. 조선시대 개국공신인 정도전 선생의 삶터이자 단양팔경의 제1경인 도담삼봉. 어르신들은 남한강 가운데 서 있는 세 개의 봉우리와 그 사이에 자리한 정자를 바라보며 시인의 설명을 경청했다.

'시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기행'의 일정은 도담상봉을 시작으로 고수동굴(천연기념물 256호)을 거쳐 신동문(1927~1993) 시인의 문학비가 세워져있는 소금정공원을 방문하는 순서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인암에서 우탁의 시조비를 만난 것이다.

다음 달 기행지는 경기도 파주이며, 8월 충남 서천, 9월 경남 함양, 10월 경북 안동, 11월 제주도다. 참가비는 2만원, 서울노인복지센터 문화복지팀(02-739-9501)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풍수지리교실, 시사교양강좌, 영화 상영, 노인일자리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글=박선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낙산사 의상대 복원 2009년 12월 붕괴위험으로 해체보수 공사에 들어간 양양 낙산사 의상대가 옛 모습대로 복원됐다.

양양 낙산사(주지 무문)는 6월 22일 '낙산사 의상대 단청보수 및 의상대~홍련암간 정비공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당초 낙산사는 의상대 정비공사로 의상대 단청을 새로이 하고 기둥 일부만을 교체하려 했으나 주변 석축붕괴와 해풍으로 인한 기둥 훼손 정도가 심해 4억6000만원을 들여 해체 후 복원공사를 추진했다. 특히 이번 복원공사에서는 일제시대 만들어진 축댓돌이 제거되고 자연석으로 교체됐다.

한편, 신라 문무왕 11년(671) 낙산사를 창건한 의상 스님이 좌선하던 곳에 세운 정자로 알려진 의상대는 1925년 만옹 스님이 새로 지었으며 1936년 폭풍우에 무너졌다가 1년 만에 복원된 바 있다. 1974년 강원도 유형문화재 48호로 지정된 의상대는 1995년에도 해체복원공사를 진행했었다. 노덕현 기자 · 사진제공=낙산사

"수경 스님 돌아오세요"

조계종 총무원, 21일 '짐 나누어지겠습니다' 성명 발표

조계종 총무원이 승적을 반납하고 외부와 연락을 끊은 수경 스님에게 돌아와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계종 대변인 원담 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6월 21일 '수경 스님이 지셨던 생명살림의 짐을 나누어지겠습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원담 스님은 성명서에서 "스님의 생명살림 호소와 지적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며 "생명살림의 화엄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경 스님이 꼭 필요하다. 다시 돌아오셔서 보살행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담 스님은 "문수 스님 추모사업과 그 뜻을 선양하기 위해 종단은 정성을 다해 '4대강 생명살림 불교연대' 등 단체 및 문도와 함께 해 나가겠다. 추모법회, 심포지엄, 국민추모제 등의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담 스님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종단 차원에서 수경 스님 행적을 수소문하고 있지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재가 밝혀지면 직접 찾아 뵙고 간곡한 뜻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성명서에서 "스님의 생명살림 호소와 지적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한 것은 "집행부가 NGO단체 및 종단 내 진보성향 종도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지 NGO단체에 대한 종단의 제도적인 지원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경 스님은 14일 종단이 문수 스님 추모재를 축소 봉행한 것 등을 이유로 승적 등을 반납한다고 밝히고 떠났다. 조동섭 기자

문수 스님의 생명살림 유훈 잇는다

추모위 24일 추모사업 계획 발표…17일 국민추모 문화제

'4대강 사업 반대'와 '부패척결', '이웃에 대한 자비 실천'의 유지를 남기고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을 추모하는 전국민적인 문화행사가 7월 17일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봉행된다.

조계종 문수 스님 소신공양 추모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 혜경 · 지관, 이하 추모위)는 6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문수 스님 소신공양 국민추모문화제 등을 내용으로 한 문수 스님 소신공양 추모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추모위가 밝힌 문수 스님 추모사업 계획에 따르면 조계종 차원에서 △국민추모문화제 △전국 동시 본말사 추모법회(7월 12일 오전 11시) △문수 스님 추모자료집 배포 △문수 스님 49재 봉행(7월 18일 오전 11시 조계사) △문수 스님 소신공양 추모 심포지엄(8월 중 예정) 등이 개최된다.

국민추모문화제에서는 문수 스님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돌아보는 추모영상 상영, 중앙종회 의장 보선 스님의 여는 말씀, 화암 · 동환 스님의 회심곡, 신경림 시인의 추모시 낭송, 도법 스님, 소설가 조정래씨, 이웃종교인의 추모말씀, 4대강 개발 중단과 생명살림 실천 의지를 담은 결의문 낭독 등이 있을 예정이다.

공동집행위원장 지관 스님은 "국민추모문화제는 불자뿐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통해 스님이 단행한 소신공양의 의미와 남긴 뜻과 의지를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고 말했다.

공동집행위원장 혜경 스님은 "추모문화제는 스님의 의로운 결단을 되새기며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잊고 탐욕과 어리석음에 빠져 살아왔던 우리 모두가 지난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참회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특히 문수 스님이 남긴 가장 큰 뜻인 '생명살림'의 원력을 세워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동시 본말사 추모법회는 조계종 전국 사찰에서 문수 스님의 행장 및 유언을 되새기고, 소신공양의 의미를 살피는 내용으로 봉행된다. 이와 함께 전국 사찰에서는 사찰 입구에 추모 현수막을 설치하고, 문수 스님 분향소를 마련키로 했다.

추모법회를 돕기 위해 추모위는 <추모자료집>을 1100여 사찰에 배포키로 했다.

<추모자료집>에는 문수 스님 행장과 소신공양에 대한 의미, 각계 애도문, 문수 스님 추모활동 일정 등이 담겨 있다.

문수 스님 49재에서는 조계종 법계위원회의 법계추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법어, 도반대표 등의 추모사 등이 있을 예정이다.

문수 스님 추모 심포지엄은 '문수 스님 소신공양의 의미'를 주제로 중앙승가대와 중앙승가대 총동문회 주관으로 8월 중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다.

심포지엄에서는 소신공양의 불교적 · 사회적 · 실천적 의미에 대해 다뤄질 예정이다.

공동집행위원장 혜경 스님은 "문수 스님이 남긴 메시지는 유서가 아닌 깨달은 수행자가 남긴 유훈"이라며 "문수 스님 추모사업을 통해 스님의 소신공양 정신이 불교계 안팎에 올곧게 자리잡게 하고, 또 깨달음을 어떻게 사회에 회향할지에 대한 의제를 풀어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14 선지식-달라이 라마 ▶9 현장-불청대회 ▶11 통일-평화재단 심포지엄 ▶19 특집-장보고



790-022010.6.2911:39AM페이지1(1,1)

유인촌 장관 자승 스님에 사과

'호텔 같은 템플스테이'를 더이상 못짓게 하겠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해 사과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6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자승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별것 아닌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기자들에게 "(템플스테이 관련한 발언을) 나를 직접 만나 확인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해 이날 예방이 자신의 발언을 수습하기 위한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 후 기획실장 원담 스님은 "유인촌 장관이 총무원장스님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면서 "(국민일보) 기사가 앞뒤를 자르고 보도돼 그런 오해가 발생했고, 전체적인 발언요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선 22일 조계종은 유인촌 장관 발언에 대한 항의 공문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발송했다.

조계종 대변인 원담 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6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인촌 장관의 발언은 부적절한 자리에서 한 부적절한 발언이다. 오늘 문광부에 항의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은 유인촌 장관의 발언을 반면교사로 삼아 템플스테이 뿐 아니라 종단 내 불사에 대한 자체 감사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동섭 기자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 해결했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승가복지 제도화 위한 토론회



6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승가복지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모습.

승려노후복지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승려노후복지 제도는 시급히 마련돼야 하며, 수혜대상은 65세 이상의 수행자로 해야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총무부장 영담)는 6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승가복지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승가복지의 시행주체 · 수혜대상 · 수혜영역 · 재정확보 방안 등에 대한 종도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행사에는 총부부장 영담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보각 스님, 고창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중앙종회의원 선문 · 정범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명예대표 법안 스님, 전국선원수좌회 성산 · 강설 스님, 논산 법계사 주지 지견 스님, 전국비구니회 지완 스님 등이 참석했다.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인사말에서 "전통적으로 승가사회는 수행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왔고, 수행공동체는 입산에서부터 입적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 가능했다"며 승가복지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조계종 총무부가 발표한 '승가복지제도 마련 및 시행(안)'에 따르면 승가복지제도는 재적승려 중 세납 65세 이상자 1703명(비구 680명, 비구니 862명, 사미 79명, 사미니 82명)을 대상으로 주거, 의료, 소득에 관한 복지가 제공된다.

주거 보장은 교구본사에 위치한 노인요양원 활용 및 노스님전용 처소를 신축해 제공한다. 이에 따른 건립비는 교구에서 부담하되 운영비는 중앙에서 지원 또는 운영사찰에 대한 분담금 감면혜택으로 마련키로 했다.

의료 보장은 65세 이상 노스님 외에 무소임 · 무소득 승려를 대상으로 한다. 보건의료보장은 국민건강보험료 및 치료지원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사찰 주지나 소임자의 경우 해당 사찰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소득이 없는 스님은 중앙 1/3, 교구 1/3, 본인 1/3(월 3만원 이내)씩 부담해 납부한다. 치료지원은 소임자는 당해 사찰, 무소득 승려는 종단에서 승려복지기금으로 전액 지원키로 했다.

또, 종합건강진단서비스 등은 국민건강보험을 활용하고 기타 의료비에는 종단 승려복지기금을 조성 · 활용키로 했다.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종도들의 가입을 독려해 수급토록 하고 부족분은 개인연금 가입 또는 교구목적사업기금특별회계를 조성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급액은 1인당 월 30만원 또는 60만원선. 국민연금비용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과 같고, 개인연금비용은 소임자는 당해사찰, 무소득 승려는 교구목적사업기금특별회계에서 납부키로 했다.

조계종 총무부는 승려노후복지를 위한 재정확보방안으로 △승려복지사업기금특별회계의 승려복지예산 △종단 일반회계 및 교구예산의 10% 출연 △월 3만원 이내 개인부담 △목적분담금 및 출연금 △관련사업과 기금운영 수익금 △특별납부금 등을 내놓았다.

또, 승려복지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총무원장을 이사장으로 한 '조계종 승려공제회'를 법인형태로 설립 · 운영하고, 교구는 교구본사 재무국이 별도 회계를 관리키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승려노후복지 제도가 필요하다는데는 입을 모으고 총무원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선 · 율 · 초기불전 · 한문불전 맞춤형 전문가 양성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6월 동안 네 차례의 세미나를 열고 선 · 율학 · 초기불전 · 한문불전 전문대학원 설립에 관한 종도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전문대학원은 조계종 기본교육을 마친 3500여 출가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원 및 교과목 등은 안일 뿐 정해진 바 없다. 특히 전문대학원이 설립될 사찰은 아직까지 예정지도 거론되고 있지 않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각 세미나마다 "교육원안을 바탕으로 11월까지 종도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교육원이 세미나에서 발표한 전문대학원 설립안 내용.

#선 전문대학원

선 전문대학원은 선을 전문으로 교수 · 학습해 선과 관련한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제는 1년 모집생을 10명(총정원 20명)으로 한 2년 과정이며, 4학기 동안 10개 과목(30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교과영역은 △선사상(선의 수증론 연구, 선의 심성론 연구 등) △선의 역사(전등사서 강독, 한국선 사상사 연구 등) △선전(선어록 강독, 간화선 선전 강독 등) △선수행(남방선의 이론과 실습, 간화선 실참 등) △선문화 · 응용(선과 현대문화 연구, 선과 심리치료 연구) 등이다.

#율학 전문대학원

율학 전문대학원은 계율과 관련한 교과목을 교수 · 학습해 율사 및 율학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관이다. 학제는 1년 모집생을 10명(총정원 20명)으로 한 2년 과정이며, 4학기 동안 8개 과목(32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교과영역은 △초기불교윤리의 연구1 · 2 △대승불교윤리의 연구 △현대적관점의 불교윤리 연구와 전문 2년 과정 후 불교윤리 개별연구(논문 작성기간)로 나뉘어 진행된다.

#초기불전 전문대학원

초기불전 전문대학원은 불교의 뿌리인 초기불교의 정확한 이해 및 실천을 위해 설립될 기관이다. 학제는 2년 4학기 수업으로 안거 중 12주와 산철 기간 6주간 진행된다. 필요에 따라 연구과정(박사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수업은 논강형식으로 진행되며 2년간 10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교과목은 △초기불교 술어의 이해 △<청정도론> △아비담바 길라잡이 △범어 문법 △범어 원전강독 △인도불교사 △니까야와 아함 등이다.

#한문불전 전문대학원

한문불전 전문대학원은 동아시아 불교의 초석인 한문 불전과 문헌을 연구 · 학습하는 전문 교육기관이다. 학제는 1년 모집생을 10명(총정원 30명)으로 한 3년 과정이며, 6학기 동안 14개 과목(42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교과목은 △1학년에서 치문, 한문문법, 치문, 사집1을, △2학년에서 사집2 · 3 · 4, <금강경> <능엄경> <유마경>을, △3학년에서 <대승기신론> <원각경> <법화경> <화엄경>을 배운다.

조동섭 기자



자승 스님 파라밀요양원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6월 22일 안성 파라밀요양원(원장 각현 • 연꽃마을 이사장)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직원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총무원장스님은 각현 스님의 안내로 시설을 둘러보며, 입원요양중인 노인 및 스님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

조동섭 기자 · 사진=조계종 총무원 제공

안상수, "사실이라면 명진 스님에 유감"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대표최고위원 출마 자리에서 봉은사 외압설을 사실상 시인하고 유감을 표시했다.

안상수 의원은 6월 21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출마를 설언하는 기자회견문 낭독 후 "봉은사 관련, 명진 스님과 김영국 씨가 한 발언 내용은 작년 11월의 일이라 오래돼 기억하긴 어렵지만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진 스님과 봉은사 신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불교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같은 날 '오마이뉴스가' 보도했다.

안 의원은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기자들에게 "이것 외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명진 스님 측은 안상수 의원이 2009년 11월 13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만나 명진 스님을 두고 강남 부자 절의 좌파 주지 운운하는 발언을 했고 이것이 봉은사 직영전환에 외압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안상수 의원의 발언에 대해 봉은사 측은 "안상수 의원 발언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는 등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총무원 대변인 원담 스님도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안상수 의원 발언과 관련한 종단 입장은 없다. 안 의원이 종단과 협의해 발언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에 재가연대는 21일 논평을 통해 "(안상수 의원은 자신이 한 발언이) 사실이면 깨끗이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인간된 도리이다. '유감'에 약간의 진정성이라도 담겨 있었다면, 최소한 당대표에 출마할 마음을 먹지도, 또한 이런 식의 말장난으로 불교계를 다시 희롱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조동섭 기자

굿판 벌인 스님에 '멸빈' 판결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정념)은 6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72차 심판부를 열고 장애인을 치료하겠다며 사찰에서 굿판을 벌인 명안 스님에게 멸빈의 징계를 내렸다.

호계원은 "명안 스님이 미등록 사설사암인 대전 지장사 주지를 지내며 장애인 치료를 명목으로 2억 여 원의 돈을 받고, 무속인과 굿판까지 벌였다"며 '승려법' 제46조 1항의 '불조에 대한 불경'죄를 적용해 멸빈을 판결했다.

호계원 심판부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대출까지 강요해 금품을 받아낸데다가 출가수행자가 무속행위를 벌인 것은 종단의 정체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특별기고-고유환 교수 동국대 북한학과

관계 단절되면 남북 모두 부담



남과 북이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면서 분단정권을 수립한 이후 남북관계는 '대화 없는 대결시대'(1970년대 초까지), '대화 있는 대결시대'(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화해협력시대(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분단 55년만인 2000년 6월 13~15일 평양에서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남과 북의 양 정상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서 대립갈등의 남북관계를 화해협력, 공존공영의 남북관계로 전환할 것을 약속했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갈등 등으로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위기에 빠지기도 했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분명 남북관계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었다. 남북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당국대화를 지속하면서 철도·도로를 연결하고 금강산광관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을 추진하는 등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갔다.

6·15 공동선언 이후 7년여 동안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 결과 점차 대결적 냉전사고로부터 벗어나 민족공동번영을 모색하는 인식구조가 확산되기도 했다. 하지만 6·15 공동선언에 따라 남북관계를 제도화하고 남과 북의 사회 내에 남아있는 남북대결시대의 논리와 정책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다. 남측에서는 북한변화여부 논란, 대북지원관련 '퍼주기' 논쟁 등으로 남북화해시대의 남남갈등이란 역설이 형성되기도 했다. 북측에서도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등 국내외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임기 말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의 실천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10·4선언을 채택하고 정권을 초월한 화해협력정책의 지속을 모색했다.

남북관계 발전 추세로 보면 화해협력을 제도화하고 통일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과 북은 관계조정에 실패하고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면서 이전 정부 대북정책과의 차별화를 시도함으로써 6·15와 10·4선언은 사문화 위기에 처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곧바로 6·15와 10·4선언에 대한 이행의지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남북관계 재설정의 첫 단추를 꿰지 못했다. 상대를 부정하는 남측 정부와 대화할 수 없다고 북측은 버텼다. 식량난 등 경제난에 봉착한 북한이 식량과 비료지원을 중단하고 압박하면 굴복하고 나올 것이란 낙관적 기대와는 달리 북한은 중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대남 강경대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천안함이 북한의 선제공격을 받아 침몰한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한반도 정세는 예측불허의 위기국면으로 진입했다. 남북관계는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전면적으로 차단됐다. '북한=주적' 개념이 다시 부활하는 등 남북관계는 냉전시대 패러다임으로 회귀하고 있다.

민군합동 조사결과에 자신감을 얻은 남측 정부가 남북갈등의 모든 책임을 북측에 돌리고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면서 봉쇄조치를 전면화하고 있다. 남측의 대북차단조치에 북한은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선다'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북측은

냉전패러다임 버리고 스마트파워 모색해야

5월 26일 남북경협사무소 관계자 추방에 이어 남측이 대북 심리전을 강행하면 개성공단 출입을 제한하여 폐쇄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남북관계 단절이 지속될 경우 남과 북 모두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북한 비핵화를 지연시킬 것이다. 대북 강경정책 등 외부압력이 북한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지만 북한 당국이 외부 위협을 강조하면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권력승계를 공고히 하는데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압박과 제재가 북한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지만 경제정책 실패의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릴 수 있게 함으로써 김정일-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남북경협 차단조치로 북에 줄 경제적 봉쇄효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세 불안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문제의 부각이다. 경협차단으로 북이 입을 피해보다 대외신인도 하락 등으로 입을 한국경제의 손실이 훨씬 크다. 이런 취약점을 이용해서 북한은 위기를 조성해서 남한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으려 할 것이다. 대화로 갈등을 해결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과도하리만큼 대북 포용정책(engagement)을 폈던 것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 때문이다. 남한이 압박하면 북한은 중국으로 밀착하기 때문이다. 주체와 자주노선과는 맞지 않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북한이 친중노선을 취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자원부족시대 중국은 북한의 자원을 활용하고, 북한은 중국의 군사안보적 지원과 경제지원 및 투자유치를 통해서 체제를 유지하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의 전례에 의하면 남북관계는 위기 이후에 국면전환을 위한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983년 버마 암살폭파사건 이후인 1984년에 남북경제회담, 남북적십자회담 예비회담, 남북 국회 예비회담, 체육회담,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방문 등 이른바 '제2대화시대'라 부를 만큼 각종 대화와 교류가 이뤄졌다. 1999년 6월 1차 서해교전 이후 2000년 6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됐다. 1998년 8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광명성 1호, 대포동 1호) 발사 이후 북·미대화가 진전되고 1999년 가을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페리프로세스가 만들어진 전례도 있다.

북한은 전통적인 협상전술의 하나로 '충격요법을 통한 국면전환'을 꾀했다. 역대 남한 정부들도 장기적인 남북경색을 부담스러워 하면서 위기 이후 대화를 통한 평화정착에 힘써왔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다르다. 이명박 대통령은 6월 9일 천안함 사태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북 대응과 관련, "지금은 (북한이) 바른길로 가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단호한 자세"와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면 상대편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으로 볼 때 남측이 먼저 대화를 제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10년 전 '냉전패러다임'으로 되돌아갔다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지금은 과거로 돌아가는 냉전 패러다임이 아닌 역사발전 추세에 맞는 스마트파워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려면 대북관과 정세관에 대한 재평가 작업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북한 '불량국가론'과 '급변사태론'이 지배하는 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불교평론〉특별기획 한국전쟁이 불교계에 끼친 영향

전쟁으로 불교 위상 하락



군불교위원회와 국군불교총신도회가 2005년 전쟁기념관에서 호국영령 천도재를 봉행하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계간 〈불교평론〉(편집인 홍사성)은 제43집(2010년 여름호)에서 한국 전쟁 60주년 특별기획으로 △한국전쟁과 종교지형 변화(윤승용 한국종교학회 이사) △한국전쟁과 불교계(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 훼손(도윤수 불교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팀 선임연구원) △6·25소설 속의 불교(유한근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교수) 등 네 편의 논문을 실었다. 한국전쟁이 불교계에 끼친 영향을 학술적으로 조명한 네 편의 논문을 정리했다.

#한국전쟁 후 불교↓ 기독교↑

윤승용 한국종교학회 이사는 "해방 당시 6대 종교로 대표됐던 한국 종교지형이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개신교와 천주교 등 기독교는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고, 불교와 유교 등 전통종교는 분열과 침체를 겪었다. 천도교와 대종교 등 민족종교의 쇠퇴라는 종교지형의 큰 변화를 보였다"고 말했다.

개신교가 득세하고, 불교 등이 쇠퇴한 원인을 가부장적인 종교와 민족해방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종교 대신 개인적·여성적·도시 중심의 종교가 각광 받는 등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동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윤 이사는 "당시 분단정부가 (종교에 대한) 국가 중립성의 원칙을 깨며 개신교에는 선교의 장이나 물적 지원을 했다. 반면에 불교나 유교에는 종교 내부의 신앙 문제에 정부가 간섭했다"고 진단했다.

윤승용 이사는 "오늘날 한국 개신교의 급신장은 종교내적 또는 문화적인 힘을 바탕으로 한 결과가 아닌 분단과 냉전으로 상징되는 정치적 질곡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개혁 매도가 승려 월북 초래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는 한국전쟁 발발을 즈음해 불교혁신을 위해 남한에서 활동했던 승려들이 월북하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월북했던 승려들이 서울로 내려와 불교혁신운동을 펼쳤던 사실에 주목했다.

김 연구교수는 "해방 후 전국불교도총연맹(조선불교총본원)은 불교혁신 활동을 치열하게 전개하던 혁신단체였다. 전국불교도총연맹은 다른 혁신단체인 불교청년당과 1948년 4월 19~26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자회의 등에 참석한 것이 월북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광식 연구교수는 "당시 보수적이었던 교단과 혁신단체 사이에는 타협될 수 없는 간격이 존재했다. 이 간격은 각자의 정체성, 생존권이 달려 있어 타협할 수 없었다"면서 "평양에서 열린 수차례 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혁신단체 승려들은 좌익으로 고발 당했고 이 때문에 북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교수는 "한국전쟁 당시의 불교혁신론은 불교의 근본, 지향을 논하며 초기불교의 모습을 검토하고, 식민지 불교를 성찰했다. 특히 불교 현대화의 방향과 노선 등에 많이 고민했다"고 소개했다.

#전쟁으로 사찰 350여 곳 피해

도윤수 불교문화재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전쟁으로 서울·경기지역에서 57곳, 강원도에서 25곳, 전라도에서 81곳, 제주에서 35곳, 북한 지역에서 140여 곳의 사찰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도 선임연구원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불교문화유산 훼손은 막대했다. 특히 북측이 아닌 한국 군경에 의한 사찰 피해도 컸다"고 강조했다.

#민족통합 원리, 불교에 있다

유한근 교수는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불교소설이 드문 이유를 "불교가 초역사·초시대성을 지닌 종교여서 범속한 문학과는 원초적으로 융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유한근 교수는 "불교문학은 현세적이고 합리주의적인 문학관에 지배되고 있는 우리 문학(소설)의 한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며 "민족의 분단 현실에서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족통합 원리를 불교문학에서 찾자"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연수교육과정 강좌 안내

【숙박 연수교육】

과정	강좌명	강 사	일 정	신청마감	교육비	장 소
전법향상 과정	설법능력향상과정	김이곤(음향감독, 서울대음대졸)	8.26~8.28(2박3일)	8.16	20만원	태화산전통불교문화원
	사찰수련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일감스님(금산사 수련원장)	9.5~9.7(2박3일)	8.25	20만원	태화산전통불교문화원
	신도상담지도과정	황수경(동국대 선학과강사)	9.30~10.2(2박3일)	9.20	20만원	태화산전통불교문화원
	불교음악과 법회운영	도영스님(불교음악연구소소장) 외	11.25~11.27(2박3일)	11.15	20만원	태화산전통불교문화원
사찰경영 일반과정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강태완(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외	8.23~8.25(2박3일)	8.13	20만원	태화산전통불교문화원
	사찰농지임야활용	김태용(공인회계사) 외	9.13~9.15(2박3일)	9.3	20만원	태화산전통불교문화원
	사찰건축이론과 실습	지용한옥학교, 현고스님(전남문화재연구원이사장) 외	9.28~9.30(2박3일)	9.18	40만원 (재료비포함)	태화산전통불교문화원
	문화재콘텐츠활용과정	이재수(동국대 전자불전문화재컨텐츠연구소)	10.3~10.5(2박3일)	9.23	20만원	태화산전통불교문화원
	사찰경영지도자과정	김응철(중앙승가대학교 교수) 외	10.25~10.29(4박5일)	10.15	35만원	태화산전통불교문화원
불교교학 과정	전심법요 특강	종묵스님(해인사 전 강주)	9.2~9.4(2박3일)	8.22	20만원	태화산전통불교문화원
	선요 특강	통광스님(쌍계사 승가대학학장)	9.9~9.11(2박3일)	8.30	20만원	태화산전통불교문화원
	초기불교	각묵스님(화엄학림 교수)	10.4~10.6(2박3일)	9.24	20만원	태화산전통불교문화원
	간화선수행의 이론과 실제	월암스님(한산사 용성선원장)	10.9~10.13(4박5일)	9.29	30만원	한산사 용성선원(경북 문경)
	티벳불교의 힘	최로덴(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10.15~10.17(2박3일)	10.5	20만원	태화산전통불교문화원
	서장 특강	지오스님(전 범어사승가대학장)	11.3~11.5(2박3일)	10.23	20만원	태화산전통불교문화원
	임제록 특강	무비스님(동국역경원장)	11.11~11.13(2박3일)	11.1	20만원	태화산전통불교문화원
	불교와 심리치료	서광스님(동국대 겸임교수), 김재성(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	11.13~11.15(2박3일)	11.3	20만원	태화산전통불교문화원
	경덕전등록 특강	지안스님(승가대학원장)	11.24~11.26(2박3일)	11.14	20만원	태화산전통불교문화원
	육조단경 특강	설우스님(법인정사 선원장)	12.2~12.4(2박3일)	11.22	20만원	태화산전통불교문화원
불교문화 실기과정	사찰음식	사찰음식보존회	11.8~11.10	10.28	30만원 (재료비포함)	추후공지

【통학 연수교육】

과정	강좌명	강 사	일 정	신청마감	교육비	장 소
전법향상 과정	불교의례의식과정	정각스님(동국대 겸임교수)	8.18~9.15(주1회) 매주 수요일	8.8	15만원	탬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세상변화와 불교역할	이언오(삼성경제연구소 전무)	8.18~9.15(주1회) 매주 수요일	8.8	15만원	탬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온라인모바일세상읽기	김종민(이미지홀딩스 대표)	10.7~11.11(주1회) 매주목요일	9.27	15만원	탬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사찰경영 일반과정	복지·교육시설 수탁과 운영 과정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추후공지	–	15만원	추후공지
	불교생협만들기	권영근(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외	8.17~9.14(주1회) 매주 화요일	8.7	15만원	탬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불교교학 과정	불교의 눈으로 본 생명과 삶	우희종(서울대수의학과교수)	10.29~11.3(주1회) 매주 수요일	10.19	15만원	탬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한국의 종교, 그 현황과 미래전망	윤승용(한국종교 문화연소 소장) 외	10.29~11.3(주1회) 매주 수요일	10.19	15만원	탬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불교문화 실기과정	불교지화 (15명 선착순 마감)	김태연 (궁중상화연구소 소장)	8.18~9.15(주회) 매주 수요일	8.8	30만원 (재료비포함)	한국예식문화연구원 (대구광역시)
	불교회화 (15명 선착순 마감)	김창균(동국대 불교미술학과 교수) 외	8.26~12.16(주1회) 매주 목요일	8.16	40만원 (재료비포함)	동국대학교(서울) 정각원

【기타 교육과정】

과정	강좌명	일 정	진 행
사회복지봉사과정		10월 중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 종단 산하 사회복지기관 봉사활동 –

※ 본 강좌의 내용 및 강사진, 일정, 교육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적정 인원이상 신청할 경우 선착순 마감될 수 있습니다.

불기2554(2010)년 6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일 주 문



생명나눔 장기기증 세미나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7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생명나눔 장기기증 세미나를 개최한다. (02)734-8050



수덕사 · 한서대 템플스테이 협약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은 6월 22일 한서대 함기선 총장과 한서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템플스테이 협약을 맺었다.



법장사 유마경 경전반 개강
서울 법장사 주지 퇴휴 스님은 9월 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유마경> 경전강의를 개최한다. (02)971-0303



민통협 한국전쟁 위령재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법혜 스님은 6월 20일 경남 양산 서창고등학교 대강당에서 6 · 25 60주년을 기념 위령천도재를 봉행했다.



부안 실상사 한국전쟁 위령재
부안 실상사 주지 한우 스님은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6월 25일 경내에서 한국전쟁 희생자 위령법회를 개최했다.



전국염불만일회 염불정진대회
안동일 전국염불만일회 회장은 7월 30일~8월 1일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13차년도 염불여름정진대회를 개최한다. (02)732-1206



학국철학회장 선출
성태용 건국대 교수는 6월 12일 한국철학회 정기총회에서 학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011년 8월부터1년이다.



기초불교영어강좌 회원 모집
박상필 국제포교사회 회장은 7월 10일까지 제18기 기초불교영어강좌 회원을 모집한다. (02)722-2206



불갑사 문화유적 답사
이재순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회장은 6월 12~13일 백제불교도래지, 불갑사 등지에서 회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문화유적답사를 진행했다.



불교아카데미 교리발달사 심화과정
신성기 불교아카데미 이사장은 7월 21일 만해NGO센터에서 가람구조를 주제로 '리더스불교문화특강'을 개최한다. (02)2278-3532

죽음 고찰하는 웰다잉운동 확산되길

제1회 웰다잉문화제 개최한 이은영 불교여성개발원장

"죽음을 바라볼 때 남은 삶의 의미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웰다잉 문화제를 계기로 죽음을 고찰하는 웰다잉운동 확산에 더욱 나서겠습니다."

6월 22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제1회 웰다잉문화제가 열렸다.

'죽음이 무엇인가'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등에 대한 성찰로 삶의 의미를 되찾자는 웰다잉 운동. 불교계에서 웰다잉 운동이 시작된 지 2년 여 만에 처음 펼쳐진 웰다잉문화제는 웰다잉문화의 대중화에 대한 기대로 관심을 모았다.

이날 웰다잉문화제에서는 태고종 영산재보존회의 영산재 시연과 함께 황병기 명인의 가야금 연주와 박애리의 판소리,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아리랑 환상곡 연주 등이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웰다잉문화제를 주최한 불교여성개발원의 이은영 원장(사진)은 "이번 공연은 영가의 극락왕생과 민족의 한을 표현한 작품들로 구성했다"며 "대중들이 문화공연을 통해 죽음에 대해 공감하고 다시 불교적 수행으로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웰다잉문화제는 지금까지 호스피스 등 일선 봉사운동 형식으로 진행된 웰다잉운동을 문화운동으로 확산



해 대중화 시키는데 그 목표가 있다"며 "웰다잉문화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등재된 영산재와 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불교문화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불교여성개발원은 웰다잉문화재를 계기로 본격적인 웰다잉 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이 원장은 "심리학, 철학, 종교분야의 명사초청 강좌를 비롯해 명상과 다도 등을 통한 웰다잉 교육 등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이 웰다잉운동에 뛰어들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이은영 원장은 대학 재학시절의 일화를 소개했다.

이은영 원장은 "1970년대 서울대 법학과에 재학 중이던 당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절을 찾아 '자아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문하며 마음을 다스리곤 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독일 유학 시절 심리 · 신학 공부를 하던 한 스님을 만나 도움을 받으며 '죽음'과 '삶'에 대해 본격적으로 성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귀국 후 불교여성상담과 성평등 등 불교여성운동에 뛰어든 이 원장은 불교여성개발원 원장, 지혜로운여성 이사장 등을 맡으며 불교여성계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호스피스 운동 등을 접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웰다잉운동의 중요성을 느끼게 됐고 2008년 불교여성개발원 산하에 웰다잉운동본부를 설립해 일선 병원 등에서 웰다잉 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은영 원장은 "불교계는 전통불교문화의 계승과 더불어 일반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웰다잉 등 신문화 창달에 뛰어들어야 한다"며 웰다잉 운동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 조계종출판사 김용환 사장

"불서 시장 확대에 힘 쏟겠다"



조계종출판사가 주식회사로 전환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문화를 대중들에게 전하는 방편이 다양화된 데 대한 능동적인 대처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조계종출판사 운영령과 제정된 정관에 따라 조계종총무원장이 대표이사, 포교원 포교부장, 총무원 재무부장이 당연직 이사를 맡는다. 자본금 3억 원으로 새 출발한 조계종출판사의 초대 사장은 김용환씨(사진)가 임명됐다.

김 사장은 71년 응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 부산 선암사 총무, 중앙승가대 도감, 총무원 규정과장, 미국 시카코 불타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80년대 초 종단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려던 비상종단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다. 91년 환속 후 출판사와 중등학교 교육자료 개발업체를 운영했다.

지난 6월 21일 교계기자들과 만난 김 사장은 "젊은이들이 종이매체를 멀리하는 만큼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해야 한다. 이에 맞게 출판사를 확대 개편할 것"이라고 운영 방향을 밝혔다.

김 사장은 "교계 출판사들의 영세성으로 불서시장을 넓히지 못하고 있다. 조계종출판사는 수익성을 떠나 시장을 확대하는 데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조계종출판사만이 할 수 있는 출판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 김 사장은 "팔만대장경을 전통방식에 따라 간경, 제본해 연구기관 등에 보급하는 사업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백용성조사 탄신 제147회 봉찬법회

장수 죽림정사(조실 도문)는 6월 19일 용성 진종(백용성) 조사 탄신 제147회 봉찬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조사전인 용성교육관에 봉안된 7여래불 69조사 7대사의 다례재 봉행 후 용성 조사의 탄신을 기리고 그동안의 백용성조사유훈실현 불사 경과를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도문 스님은 "백용성 조사가 147년 전에 이 자리에 나툰 것은 상구보리하고 하화중생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온 누리에 전파해 인류를 무명의 어둠 속에서 구원하고자 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용성 조사의 대각사상을 깊이 새기고 받들어 온겨레 전인류 만중생이 깨달음으로 나아가자"고 설했다.

조동섭 기자

태고종 천년고찰 청련사 낙성법회



왕십리에 자리했던 신라 고찰 청련사(안정사, 주지 백우)는 6월 20일 경기 양주시 장흥에 새 도량을 마련하고 중창불사 낙성대법회를 봉행했다.

장흥 개명산 기슭 3만9000여 평 부지에 새로 자리한 청련사는 왕십리 청련사의 불상 · 탱화를 비롯해 대웅전 기둥까지 그대로 옮겨왔다.

행사에는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승정원 · 원로원 스님들, 각 교구 종무원장 등 10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조동섭 기자**

고운사 각성스님 강맥 전수식



한국 근대 대강백으로부터 두루 수학한 각성 스님이 의성 고운사에서 6월 24일 전강제자 24명에게 강맥을 전수했다.

이날 통화불교 전강원 수법 강맥 전수식에는 원로의원 혜승 스님, 동국역경원장 무비 스님,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과 전강제자 24명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각성 스님은 전강사에서 "말세시대 부처님 법을 공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24명의 전강생들은 부처님 법을 연구하고, 수행에 더욱 정진해 한국불교의 발전과 전법도생, 승가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국제전수금강보살계 대법회



대각교단 국제전수금강보살계 봉행위원회(봉행위원장 석능인)는 6월 18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세계불교문화엑스포 기원 국제전수금강보살계 대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정 석가산 스님과 총무원장 석능인 스님 등 3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봉행위원장 석능인 스님은 봉행사에서 "대각교단에서는 용성조사의 유훈을 받들어 2016년 대역사를 이루는 세계불교문화엑스포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동산불교대학 37기 신입생 모집



"끝없는 열정"
신행 교육 포교 전문도량 동산

동산불교대학은
각 분야의 권위있는 교수님들을 통해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각종 수행을 통하여 보다 행복해지고자 하는 인간의 꿈을 실현시켜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지성인들의 배움의 공간입니다.

▶ 교과목 및 교수

불교학과	근본불교, 반야사상, 유식사상, 불교상담론,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법화사상, 대승불교, 화엄사상, 정토사상, 밀교사상, 불교사회복지론, 불교학 개론, 선학의 이해, 불교미술, 포교방법론, 비교종교론 18과목
교 수 진	무진장 대종사 학장스님, 최봉수 교수, 김형준 교수, 묘주스님, 정성준 교수, 권경희 교수, 박종 교수, 정병조 교수, 차차석 교수, 김상현 교수, 주명철 교수, 정엄스님, 보광스님, 종석스님, 보각스님, 최종석 교수, 윤열수 교수, 김호귀 교수, 활안스님 외

▶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 불교학과 (180명) (토요반 · 목요반 · 통신반 각 60명) · 불교다도학과 (20명) · 불교미술학과 (20명) · 불교한문학과 (30명) · 사찰음식문화학과 (20명)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10년 6월 28일~8월 7일 [9월 개강학과] 2010년 7월 1일~9월 9일 입학금 250,000원	[불교학과]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토요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목요반) (통신반)은 교재와 테이프 제공.

▶ 개강일시
불교학과 : 2010년 8월 7일(토) 오후 5시(동산불교회관) 입학식 및 개강
불교한문학과 9월9일(목), 불교다도학과 9월7일(화), 불교미술학과 9월9일(목)
사찰음식문화학과 9월8일(수) 개강

▶ 원서문의 · 교부처
본대학 사무처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특전사항 : 불교학과, 불교한문학과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 · 대학원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 육 과 목	교 육 기 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표정관리 및 웃음치료, 최면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건강식품업소탐방,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교육생 상시 모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i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02)393-5111

지부교육원

영남교육원	055-543-3155	부산교육원	051-441-0111	울산교육원	052-260-1037
호남교육원	063-254-5529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제주교육원	064-755-7588
대구교육원	053-566-1116	해운대교육원	051-757-9990	충청북부교육원	043-263-9966
광주교육원	062-672-5432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수행자여 비즈니스맨이 되지 마라”

백찬홍 ‘씨알’ 홍보위원장 불교미래사회포럼서 ‘종교의 역할’ 강연

“신도에 얹혀 고급승용차에 골프치고 성지순례를 명목으로 수시로 해외여행을 다니는 종교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인은 (종교인이 아니라) 비즈니스맨입니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법안)은 6월 23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제17차 불교미래사회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서 백찬홍 재단법인 ‘씨알’ 홍보위원장은 ‘신자유시대의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6월 23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열린 불교미래사회포럼 모습.

#한국 종교계는 거대화 열풍

백 위원장은 “극단적 이기심과 물질만능사상이 신자유주의 이념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면서 “오늘날처럼 자본주의의 모순이 드러나는 시기에는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로 흐르는 사회정서의 영향으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도 미래가치보다는 눈앞의 이익에 몰두하게 된다”고 말했다.

신자유주의는 종교도 변질시켰다. 신자유주의의 원조인 미국의 개신교는 영성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현대 기업의 마케팅 기법을 도입해 교회의 양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에서 메가 처치(Mega Church)라고 불리는 3000명 이상의 대형교회가 그 예이다. 메가 처치 목사들은 대기업CEO처럼 활동하면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목사기업가(Pastorprenreurs; 목사를 뜻하는 Pastor와 기업가를 뜻하는 Entrepreneur의 합성어)로 불린다.

백찬홍 위원장은 “메가 처치들은 청소년들이 운동과 데이트를 하고 중산층 부인들이 동료와 담소를 나누고 체중조절을 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목사기업가들은 설교, 기도 등 각종 종교프로그램을 통해 자본주의를 비판하기 보다는 중산층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메가 처치는 한국에서 강남권 교회를 중심으로 응용돼 왔다.

백 위원장은 “순복음 · 금란 교회 등 강북형 교회들이 ‘교회 다니면 부자된다’는 기복신앙과 신유 · 은사 · 방언을 강조한 것과 강남형 교회들은 고소득 전문직으로 구성된 신중산층의 욕망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백찬홍 위원장은 “강남형 교회들은 더 큰 아파트, 더 좋고 많은 자동차, 더 강력한 정치 · 사회적 권력, 더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등 신의 힘을 빌려 계급을 재생산하고 또 다른 지배-피지배의 구조 즉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강남형 교회의 목회자들은 제왕적 리더십이 아닌 협동적 리더십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릭 워렌 같은 목회자들을 모방해 세련되고 깨끗한 이미지로 목회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형 메가 처치의 첫 모델로 알려진 온누리교회는 ‘SWOT’(강점 · 약점 · 기회 · 요인) 분석을 도입하고 세대별, 직업별 맞춤전도를 펼치는 등 마케팅기법을 도입해 성공한 사례이다. 온누리교회는 홍보도 브랜드와 캐릭터를 만드는 등 기업의 광고처럼 제작했다. 교회 안은 백화점 문화센터와 유사하게 꾸며 교회를 ‘거룩하고 엄숙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생활 공간화시켰다.

백 위원장은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친미 · 보수적인 것은 미국교회를 모방하면서 성장했기 때문이다. ‘교인들의 성공이 교회의 성공이요’ ‘교인들의 비전은 곧 교회의 비전’이라는 성공 이데올로기 확산이 이명박 정권의 고소영 내각을 탄생시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찬홍 위원장은 “불교계에서도 일부 사찰이 대형교회 운영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주변의 군소사찰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가톨릭도 최근 강남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거대 성당을 짓고 성당운영에 강남형 교회모델을 벤치마킹해 ‘건축헌금’에 시달린 신자들이 성당을 떠나고, 일부 신부들은 교구장을 찾아가 성당 건설 채무를 탕감해 달라고 호소하는 일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영성과 수행정신 회복이 살 길

백찬홍 위원장은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물신주의와 성장주의에 함몰된 예가 이명박 정권의 탄생이다”라고 주장했다.

백 위원장은 “대선에서 500만표 차이로 압승한 이명박 후보의 승리를 부른 747공약(7%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세계강국)의 실상은 과거지향적”이라며 “선진화는 레이건과 대처 시대의 민영화 정책이었고, 747에는 선진국가가 지향하는 보편적 복지와 분배는 없고 오로지 성장만이 살길이고 그 해답은 기업에 있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백찬홍 위원장은 “종교계도 이명박 후보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던 신중산층과 특권층 흡수에 나서고 있다”면서 “종교의 중산층화는 종교의 기본적인 자기절제, 성찰, 청빈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한다. 중산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사회적 실천에는 소극적이 되는 단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종교인들이 사찰, 성당, 교회를 키우는데 몰두한 나머지 시주 · 헌금을 많이 내는 신자, 정부보조금에 의존하게 되면서 기득권 세력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이 사리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백 위원장은 “종교가 특권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대안적인 공동체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교조직이 아닌 특정계층의 사교모임으로 전락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한국 종교가 물신주의를 탈피하고 종교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것의 의미를 살리고 영성과 수행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찬홍 위원장은 “법정 스님에 대한 추모열기가 어느 종교인보다 뜨거웠던 것은 스님이 진정한 성직자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도 6 · 2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며 사회에 대한 종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례였다”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6 · 2지방선거에서 민주세력이 승리한 것은 불교환경연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종교인들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종교가 올타리가 되고 버팀목이 됐기 때문에 시민들도 용기와 희망을 갖고 정권을 심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백찬홍 위원장은 “종교계가 대중에게 신임 받고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성직자들이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지금보다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신자유주의 해답은 불교에…

신자유주의는 최근 금융위기를 통해 흔들리고 있다.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개인의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환상은 사회와 자신에의 성찰로 이어졌고, 이는 출판계에서 자기계발서의 거품이 꺼지고 인문학 도서 판매 증가로 나타났다.

백찬홍 위원장은 “세계를 하나의 가치를 통합하려는 유일신 신앙이 세계화를 촉발시켰고 신자유주의로 이어졌다”면서 “개인교는 대안이 되기 쉽지 않다. 자신과 사회에의 성찰이 주목받는 때 타자에 대한 배려와 인정을 기본으로 하는 불교에 그 대안이 있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순환적 윤회사상을 통해 생명존중사상을 펼치는 불교야 말고 ‘날 것(야생)’의 사고를 간직한 유일한 현대 종교이다. 생명 · 평화 · 공존을 강조하는 불교의 근본사상은 오늘날 신자유주의가 국가와 국민을 노예화시키는 야만의 시대에 답할 수 있는 가장 대안적인 종교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단법인 ‘씨알’(이사장 김원호)은 함석헌 · 유영모 선생의 정신과 철학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생명운동과 정신운동을 부흥하고자 2006년 설립돼 교육 · 문화 · 연구 사업을 펼치고 있다. **조동섭 기자**

100자 뉴스

금강을지키는사람들 4대강 사업 중단 단식 돌입

공주 마곡사 등 종교계와 충청 · 전북 지역 6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이 4대강 사업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을 시작했다.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공동대표 혜우)은 6월 24일 “금강선원을 중심으로 불교 개신교 카톨릭 등 4대 종교, 정당, 시민단체, 일반 시민 등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릴레이 단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기자회견문에서 “4대강 사업은 6 · 2지방선거에서 반대 표심이 강하게 표출되고, 문수 스님마저 소신공양으로 내몰았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목숨을 걸고 단식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단식은 금강선원에 설치된 단식장에서 1일 24시간 동안 진행된다. 1차로 8월 26일까지 진행되며, 4대강 사업 중단 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생명나눔 대구본부 박창근씨 등 홍보대사 위촉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본부는 6월 22일 대구불교방송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종명 대구본부장은 가수 박창근씨와 보험설계사 최원숙씨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하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부인 장기기증의 문화를 널리 확산시키는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한국호국불교조계종 순국선열 합동 위령제

한국호국불교 조계종 총본산 법전사는 6월 24일 다부동 전적비 기념관 앞 광장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 전몰군경 무명용사 합동위령제를 봉행했다. 한국호국불교 조계종 종회의장 관보 스님은 대회사에서 “우리 겨레는 국난이 있을 때마다 호국불교를 바탕으로 국민이 하나돼 한 마음 한 뜻으로 대원력을 세워 위기를 극복해 왔다”면서 “오늘 이 법회를 통해 애국애족의 정신을 후손에게까지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부대중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대원불교조계종 불광사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

경남 양산의 (사)대승교단 대원불교 조계종 불광사(주지 청봉)는 6월 20일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식을 봉행했다.행사에는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종정 석가산 스님, 총무원장 능인 스님, 세계불교승가회 각국 대표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봉안된 부처님 진신사리는 스리랑카 대통령궁이 관리하는 사찰에서 보관하던 부처님 진신사리이다. 사리는 18일 국제전수금강보살계 대법회에 참석한 스리랑카 국무총리(Mr. Dinesh Gunawardhana)가 석가산 스님에게 전달하고, 스님은 다시 청봉 스님에게 기증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미얀마문화원 미얀마 외무부장관 방문해

미얀마 연방정부 우 냔 위인 외무부 장관은 6월 8일 종로구 청진동 소재 미얀마 문화원을 방문했다.

우 냔 위인 장관은 미얀마 문화원장 목탁 스님(국제불교지도자협회 회장)에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미얀마 문화원을 이끌고 미얀마불교에 지원해줘 감사하다”며 “미얀마문화원이 앞으로도 미얀마를 한국에 바르게 알리는 교두보가 돼 달라”고 말했다.

이날 우 냔 위인 장관의 방문은 국제불교지도자협회가 미얀마 양곤 빈민가 등에 우물파주기 운동을 진행한데 대한 감사 방문이다. 목탁 스님은 “국제불교지도자협회는 앞으로 30 여기의 우물을 더 미얀마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02)733-5665 **조동섭 기자**

감사의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지난 6월 18일 대구 호텔인터불고 국제전수금강보살계대법회에 동참해주신 세계불교 승가회 세계각국 대표 고승대덕 및 각 종단 종정예하 및 총무원장 한국고승대덕 큰스님, 그리고 스리랑카 장관, 인도네시아, 싱가폴, 홍콩, 등에서 오신 외국신도분들과 국내 사부대중 여러분께 본 대법회가 성황리 속에서 회향 하게 된 것을 봉행위원장 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법회를 통하여 본 대각교단에서는 앞으로 세계불교와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바 이며 오는 2016년도 세계불교문화엑스포를 대한민국 유치를 기원하기 위하여 세계불교 각국 지도자들을 모신가운데 세계불교승가회 사무총장과 공동선언문에 서명 날인하신 한국불교계 대각교단 총재 석가산 대선사의 업적을 높이 찬탄하면서 그 성공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응화세존 3037년 남전열반 2554년 6월 25일

대각교단 국제전수금강보살계대법회 봉행위원 일동
대각교단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장 석능인화남

대만공승회 승찬공양대법회에 동참하실 큰스님들께

대각교단에서 오는 8월29일 대만공승회에서 주최하는 승찬공양대회에 참가할 한국대표단을 모집 합니다 매년 대만에서 외국 큰스님들을 초빙하여 성대한 행사를 주관하고 있으며 동참하는 공덕 으로 무상보리심을 증장시키는 대법회에 모시고자 하오니 주저마시고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각교단 성지순례단 단장 석능인 화남

대만 공승회 승찬공양대법회 한국 참가단 모집	
참 가 대 상	각 종단 큰스님 및 신도
참 가 인 원	선착순 100명
행 사 기 간	8월26일~30일 (승찬 공양법회는 8월29일 행사)
행 사 경 비	890,000원 (개인경비 제외한 일체 포함)
모 집 마 감	7월 10일까지
예 약 처	(주) 코스모스여행사. 대각교단 (010-3900-3050) 전화 : 053-427-7500, 팩스 : 053-421-4993
예 약 방 법	(주)코스모스여행사에 전화로 예약 후 여권사본을 팩스 053-421-4993 으로 보내주세요
예 약 금	예약금 100,000원을 아래구좌로 입금하셔야 됩니다 구좌번호 : 농협 301-0056-1262-01 대각교단 잔금은 8월 10일까지 완납하시면 됩니다
행 사 주 관	대각교단 해외성지순례단 / 010-3900-3050
행 사 문 의	(주) 코스모스여행사 / 김 태 희 / 010-3823-7510, 053-427-7500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3세대 하나로

자양 3세대복지센터 6월 22일 개관식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하는 자양3세대복지센터(관장 장영심)가 6월 22일 개관식을 갖고 복지 인프라 조성 및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기관의 메카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광진구(구청장 정송학) 자양동 자양3동에 들어선 자양3세대종합복지센터는 한 건물에 어린이집,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관을 갖춰 어린이·지역주민·어르신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자양3세대복지센터는 135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009년 3월 착공해 2010년 5월 완공됐다. 자양3세대복지센터는 연면적 총 2997.24㎡ 규모로 지하 2, 지상 5층으로 건립됐다. 건물 구조는 지하 2층은 주차장, 지하1층은 강당과 식당, 지상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어린이집과 종합사회복지관, 3층은 종합사회복지관, 4~5층은 노인복지센터로 이루어졌다. 종합사회복지관은 2·3층으로 2층의 어린이집과 종합복지관의 상담실이 마련됐다. 3층은 프로그램 실 2개와 방과 후 교실, 피아노 교실, 상담실, 자원봉사 실 등이 설치됐다. 이곳에서는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취미교양 강좌도 열리게 된다.



6월 22일 열린 자양3세대복지센터의 개관식에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정호 스님, 옥수복지관장 상덕 스님, 태고종 법현 스님, 정송학 광진구청장, 추미애 국회의원 등이 참여해 개관을 축하했다.

노인복지센터(4·5층)에는 물리치료실과 진료실, 컴퓨터교실, 이·미용실, 어학교실, 취미교실 등을 설치해 노인들이 건강도 관리하고 다양한 취미활동도 즐길 수 있는 노인 전용 공간으로 꾸며졌다. 22일 개관식에 참여한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 실장 정호 스님은 "국가의 척도는 복지수준에 달렸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복지는 중요하다"며 "자양3세대복지센터에서 누구나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종단에서도 돕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국회의원은 "3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이 공간에서 어르신 소외 문제 등이 해결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글= 박선주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성문노인전문요양원 개원식



6월 22일 원주 성문노인정문요양원 개원식에서 참석자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천태종복지재단이 직영시설로는 첫 노인요양원을 개원했다.

천태종복지재단(이사장 정산·천태종 총무원장)은 6월 22일 원주 성문노인전문요양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성문노인요양원은 국비 및 시·도비를 포함한 예산 25억원을 투입해 원주시 행구동 127번지 4885㎡의 부지에 2008년 10월 착공해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2495.99㎡ 규모로 완공됐다.

요양원에는 110명 정원의 2·3·4인실 요양실과 원풀전동목욕실 등을 갖췄다. 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이 상주해 의료·영양급식·정서지원 및 지역사회협력 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개원 기념법회에서 "성문노인요양원은 천태종이 심혈을 기울여 설립한 첫 직영 복지시설이다. 앞으로도 진해에 노인요양원, 울산에 모자가정 복지시설, 부산에 부자가정 복지시설 등을 설립해 10년 안에 재단 산하 종사자 1만 명 규모로 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문노인전문요양원장 종세 스님은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요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어르신들 생신잔치 석관실버복지센터

진각종(통리원장 혜정 정사)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센터장 김기현)는 6월 24일 센터를 이용하는 회원 중 4·5·6월에 생신을 맞은 어르신을 위해 생신잔치를 열었다.

생신을 맞은 70명의 어르신들은 다함께 나와 생일상을 맞이했다. 생신잔치에 참여한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과 복지사들은 생신을 맞은 어르신들에게 생일축하 노래를 불러드리고, 직접만든 천연비누를 선물로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문화재단의 문화 지원으로 '천년 가무학'팀이 초청돼 어르신들에게 한국무용, 민요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석관실버복지센터는 생신인 어르신들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의 친목도모 및 소속감 고취를 위해 매 분기마다 생신잔치를 열고 있다. 1분기에는 3월에 생신잔치를 열어 100여 어르신의 생신을 축하했다.

김해성 홍보담당은 "생신잔치를 열면서 센터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주 기자

청소년 신행 플래너 '프로젝트 마하'

교법사단, 창립 제65주년 기념법회서 봉헌

청소년 신행 생활 플래너 '프로젝트 마하'가 제작·봉헌됐다.

조계종 전국교법사단(단장 이욱태)은 6월 19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교법사단 창설 제65주년 기념법회에서 청소년 신행 생활 플래너 <프로젝트 마하>를 불전에 봉헌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 이학송 불교교육연합회 부회장과 전국 종립학교 교법사, 동대부고 관음회, 동대부여고 수심회, 동대부중 보현회·바라밀회, 동대부여중 연화회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교법사들이 청소년들의 신행과 학습을 돕기 위해 제작한 청소년 신행 학습 플래너 <프로젝트 마하>는 청소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스스로 생활을 점검하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제작됐다.



6월 19일 동국대 정각원에 열린 교법사단 창설 제65주년 기념 법회에서 권진영 법사가 청소년 신행 플래너 '프로젝트 마하'를 불단에 봉헌하고 있다.

<프로젝트 마하> 집필·제작을 주도한 권진영 교법사(동대부여고)는 "포교 일선에 있으면서 불교를 어렵다 여기고, 학교생활과 동떨어진 것이라 여기는 학생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쉽게 전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교법사들이 현장 경험을 토대로 청소년 포교를 위해 제작한 '프로젝트 마하'에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일념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해 온 교법사들에게 감사하다"고 법문했다.

이에 앞서 이욱태 단장은 인사말에서 "교법사들은 불법홍포를 위해 일신을 아끼지 않아왔다"며 "교법사단 창설 제65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교법사단의 활동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학송 불교교육연합회 부회장(의정부 광동교 교장)은 축사에서 "청소년 포교는 포교의 블루오션이라 불리는 군포교 이상으로 중요하다. 전국교법사단 창설 제65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교법사들은 학교에서는 좋은 선생님, 지역사회에서는 포교사, 불교계에서는 씽크탱크 역할을 충분히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계종 전국교법사단은 뇌허 김동화 박사가 대구능인중 교장으로 부임한 1945년을 창립 시점으로 잡고 있다. 현재 11개 학교법인 25개 종립학교에서 32명의 교법사가 활동 중이다.

조동섭 기자

청소년 신행 다이어리 집필 권진영 교법사

"경쟁 아닌 자신의 꿈을 이루길"

"청소년 신행·학습 다이어리 <프로젝트 마하>를 통해 청소년들이 경쟁이 아닌 자신의 꿈을 이루는 보살이 되길 바랍니다."

동대부여고 권진영 교법사(사진)는 6월 19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열린 교법사단 제65주년 창설 기념법회에서 <프로젝트 마하>를 불전에 봉정했다. 권 교법사는 1년 여 동안 <프로젝트 마하>의 집필·제작을 주도해 왔다.

"부처님 가르침이 소중하다지만 청소년들에게는 학업이 더 큰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부처님 말씀이 학업성적을 높이고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프로젝트 마하>는 부처님 생애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된다.

부처님이 탄생하며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하고, 열반하며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 말한 것을 예로 부처님은 자기창조와 주도적 삶을 살았다는 내용이다.



권진영 교법사는 "코칭 프로그램의 제1원리인 '누구나 꿈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부처[一切衆生悉有佛性]라는 불성론과 같다"며 "교육학적 용어들 다수가 불교적 용어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프로젝트 마하>에서는 '발원' 대신 '마중물'이라는 용어를 '참회'를 대신해 피드백(Feedback)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청소년들이 거부감 없이 자기의 소양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편집·제작된 것도 <프로젝트 마하>의 특징이다.

권진영 교법사는 "<프로젝트 마하>는 단순히 '공부해라', '노력해라'가 아닌 공부는 왜 해야하는지 필요성을 느끼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만들어졌다"며 "청소년들이 <프로젝트 마하>를 통해 자기발전 원리를 깨닫고 실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송광사 뿌리는 공동체 결사 정신

'수선사 16국사의 위상과 승보종찰 송광사' 서 황인규 교수 강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보종찰에는 불보사찰 양산 통도사와 법보사찰 합천 해인사, 승보사찰 송광사가 있다.

송광사는 당대의 공인된 큰스님이라 할 수 있는 국사(國師)를 16인이나 배출한 사찰이다.

보조국사 지눌과 그의 제자 진각국사 혜심은 고려 중기 신앙결사인 수선사를 전개했고 이를 이어받은 15국사의 업적은 고려 불교계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가운데, 수선사 16국사의 위상과 승보종찰 송광사의 관계를 학술적으로 조명한 논문이 발표됐다.

황인규 동국대 교수는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이 6월 19일 동국대 다향관에서 개최한 제92차 정기월례학술대회에서 '수선사 16국사의 위상과 승보종찰 송광사'를 주제 발표 했다.



황인규 교수는 6월 19일 보조사상연구원 월례학술회의에서 승보종찰 송광사와 16국사의 업적을 다루며 고려시대 불교의 위상을 조명했다.

황 교수는 "송광사가 승보종찰이 된 것은 고려 후기 수선사 16국사를 조선 중기 부휴 스님과 그 문도들이 사세의 진작과 함께 16국사를 선양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부휴 스님 등 법손들의 선양 외에도 송광사 만의 특출한 수행가풍이 승보종찰의 위의를 갖췄다고 진단했다.

송광사가 고려 중기 보조국사 지눌과 제자 혜심이 신앙결사를 전개하면서 공동체 모임의 뜻을 지닌 수선사(修禪社)로서 거듭났는데, 이때 지눌과 혜심이 떨친 간화선풍은 한국불교 뿐만 아니라 불교를 대표하는 선풍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설명이다.

황인규 교수는 법손의 선양과 특출한 수행가풍이 조선 중기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원동력을 신앙결사 운동으로 집어냈다.

황 교수는 "오늘의 송광사가 있게 된 것은 중국 동진의 고승혜원의 백련결사에서 시작된 신앙결사운동의 영향이다. 결사는 고승을 중심으로 관료 지식인 보통사람들이 참여한 신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 결사인 향도(香徒)로 발전했고 조선 후기에는 두레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보조국사 지눌은 1200년 송광산 길상사에서 11년간 대중에게 불법을 펼쳤다.

지눌은 오로지 계율로써 두타행을 펼쳤다. 지눌의 소문을 듣고 사방의 승려와 속인이 몰려들어 송광산은 성시를 이뤘다.

황 교수는 "(지눌의 가르침을 받고) 심지어 명리와 벼슬 처자를 버리고 승려가 된 사람도 있었고 왕공과 선비와 서민들이 수선사에 들어온 자도 수백 명에 이르렀다.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지눌의 명성을 듣고 흠모했던 고려 희종은 왕위에 오른 뒤 송광사를 조계산으로, 길상사를 수선사로 고쳐 사액을 내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사방에 떨친 지눌의 가르침은 그의 법맥을 이은 15국사에게 그대로 이저졌다. 15국사의 위상은 개경에서도 주목을 받았고, 지눌의 법맥은 당시 불교계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15국사 중 몽여는 수선사의 세력을 확장시켰고, 혼원은 제2의 수선사인 선원사 사주를 겸하면서 왕사로 책봉돼 당시 불교계를 주도했다. 천영은 9산문도회를 주관하는 등 당시 선종계를 이끌었다. 충지는 수선사 사세를 보강하기 위해 원황제의 도움을 받아냈다. 만항은 중국 임제종의 몽산덕이와 교류했고 개경으로 올라가 묘명존자로 불리며 존경을 받았다. 복구는 왕사로 책봉돼 불교계를 대표하며 수선사의 13대 전통을 확고히 했다. 당시 복구의 문도는 혜심과 같은 규모로 1000여 명에 달했다.

황 교수는 "수선사 15국사는 고려시대 불교계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16국사의 위상이 승보종찰로 불릴 만큼 정립된 것은 빨라야 조선 초 이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황 교수는 "16국사의 위상은 고봉법장(1395~1420)의 입적 이후에 갖춰졌다"고 주장했다.

황인규 교수는 "지눌 등 16국사는 최치원, 설총, 정몽주 등 문묘에서 배향하는 대표적 유학자인 동국 18현에 비교될 만큼 높이 추앙됐다"면서 "이는 고려말부터 산문 중심 불교가 문중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이고 문중 중심의 운용원리는 조선 중기 이후 법통설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지눌의 신앙결사는 승보종찰로의 송광사 위상을 굳건히 했을 뿐만 아니라 근 · 현대에는 송광사에 조계총림을 개설케 하고, 전국적인 신도조직인 불일회 창립으로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 승보종찰 송광사 16국사는…



–제1세 보조국사 지눌(1158~1210 · 사진): 1200년 송광산 길상사에서 11년간 대중들에게 불법을 펼치고 제자 혜심과 신앙결사모임인 수선사를 전개했다.

–제2세 진각국사 혜심(1178~1234): 왕명으로 수선사주가 돼 신앙결사운동을 전개하고 강종의 지원으로 도량을 증축했다. 혜심이 이끈 승려 만해도 1천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 당시 실권자 최우도 그의 도풍을 듣고 개경으로 모시고자 했으며 그의 두 아들을 맡기기도 했다.

–제3세 청진국사 몽여(?~1252년): 고종이 특별히 비준해 대선사가 됐다. <정혜사입원축법수소>에 의하면 몽여대에 이르러 선풍이 크게 떨치게 됐다고 한다.

–제4세 진명국사 혼원(1191~1271): 1245년 강화국도에 제2의 선원사가 창건되자 최충헌의 청을 받아들여 1246년 승려 3천 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낙성회를 주맹했다. 몽여가 입적하자 수선사 사주가 돼 지눌의 선풍을 불러 일으켰다. 왕이 몽여의 덕을 흠모해 1259년 왕사로 책봉돼 당시 불교계를 주도했다.

–제5세 원오국사 천영(1215~1286): 혜심에게 출가해 1250년 선원사 주지가 됐다. 그는 1251년 3대 선우인 보제사 별원이 강화국도에 건립되자 9산문의 선승들이 참가한 가운데 법회를 주관했고 스승 혼원이 수선사 사주가 되자 선원사 사주가 됐다. 원종대에도 궁중에서 제국대장공주의 존경을 받는 등 종실과 경대부뿐만 아니라 다른 종파의 숭앙을 받았다.

–제6세 원감국사 충지(1226~1292): 천영에 이어 수선사 사주가 된 충지는 7년간 주석하며 보조의 유지를 빛나게 했다. 원라라 세조에게 수선사의 토지를 보국하는 상소를 올려 절의 재정을 보강케 했고 이 일로 원 황제의 초청으로 대도에 가서 스승의 대접을 받았다.

–제7세 자정국사

–제8세 자각국사 도영

–제9세 담당국사

–제10세 혜감국사 만항(1249~1319)

–제11세 자원국사

–제12세 혜각국사

–제13세 각진국사 복구(1270~1355)

–제14세 정혜국사

–제15세 홍진국사

–제16세 고봉국사 법장(1350~1428)

조계종조 도의 국사 학술서 나와

김광식 교수 국내 최초 '도의 국사 연구'

한국 불교의 최대 종단인 '조계종'의 종단명을 쓴 종조(宗祖) 도의 국사를 다룬 학술서가 출간됐다. 국내에서 도의 국사를 다룬 학술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는 "지금껏 도의 국사와 관련된 다양한 논문기고, 학술행사는 있어왔지만 그 연구 성과물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발간한 적은 없었다"고 책의 서두에 밝히며 도의 국사의 생애와 중국에서의 구법, 신라 하대의 선문 개창 및 한국 남종선과 종조론(宗祖論)을 다룬 <도의국사 연구>(인북스刊)를 펴냈다.

도의 국사는 신라 후기에 남종의 조사선을 신라 땅에 최초로 전래했으며 가지산문을 개창한 선승이다.

도의 국사의 생몰년은 정확하지 않으나 신라 선덕왕(780~785), 헌덕왕(809~826)시절로 추정되고 있다. 이 시절에 도의 국사는 한 평생 동안 입산, 득도, 수행, 중국으로의 구법, 남종선과의 만남, 전법인가, 귀국, 교화, 반발, 은거 수행, 후학양성, 산문개창 등 치열한 구도자의 길을 갔다.

당시 도의 국사는 새로운 진리를 찾는다는 소박한 구도자의 길을 갔지만 그가 걸었던 길은 1000년이 넘게 한국불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

김광식 교수는 "도의 국사의 연구는 한국불교의 의미, 위상, 선사상, 현실성, 다양성, 복잡성, 종단성 등이 혼재돼 있다"며 "소박한 구도자의 길을 갔지만 그가 걸었던 길이 이렇듯 1000년이 넘게 한국불교에 영향을 끼쳤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걸맞은 연구는 지금껏 심화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도의국사 연구>는 2009년 7월 만해축전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도의국사와 가지산문'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를 바탕으로 했다.

책은 △도의 선사의 생애와 선사상(정성본)△도의 국사의 구법과 중국 선불교(차차석)△신라 하대 도의 선사의 설악산문 개창과 그 향배(조범환) △신라 하대 가지산문의 선종사상(김두진) △신라 도의 선사의 초기 법계와 억성사(億聖寺)(권덕영) △도의 국사의 선종사적 위상(김양정) △고려시대 가지산문의 전개 양상과 불교사적 위상(김상영) △도의 국사의 종조론 시말(김광식) △도의 국사의 사적(史蹟)연구(정영호) 등으로 구성됐다.

이나은 기자

불서 6종 선정

문광부 우수학술도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2010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를 발표했다.

인문학 · 사회과학 · 자연과학 · 예술 등 10개 분야에서 386종이 선정됐으며 불교관련 학술서는 6종이 선정됐다.

불교를 주제로한 학술서는 △포스트모던시대의 불교와 종교교육(김용표, 정우서적) △청규와 차(수인 스님, 동국대출판부) △유식삼식송과 유식불교(김명우, 예문서원) △붓다의 삶과 사회복지(박광준, 한길사) △한글법화경과 가나법화경의 언어 (김기혁 · 나까무라 에미꼬, 이회문화사) △고전시가와 불교(조규익, 학고방)이다.

문광부는 1996년부터 매해 '문화관광부 우수 학술도서 선정지원사업'을 실시해 우수한 학술도서를 선정 · 보급함으로써 학술 출판 진흥 및 출판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해 왔다.

문광부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 사이에 초판 발행된 도서 중 신청된 도서 3027종을 심사해 총류 10종, 철학 19종, 종교 11종, 사회과학 132종, 순수과학 12종, 기술과학 85종, 예술 20종, 언어 22종, 문학 45종, 역사 30종 등 10개 분야 386종을 선택했다.

선정된 도서는 종당 약 1000만원 규모로 구입해 공공도서관, 병영도서관, 전문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유네스코등재)

佛敎儀式(범음) 學人 모집

불교의식 교육원 대각사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전과정 무료교육)

기본과정	사물, 도량석, 쇳송, 예불,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상주권공, 대령관욕, 작법, 시식, 다비식 등
작 법 반	천수바라, 요잡바라,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 및 특수작법 등은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약 30명
■ 모집기간 : 2010년 7월 10일까지 접수함.
■ 개강일시 : 2010년 7월 12일 부터(매주 월요일) ~ 오후 2시 부터 5시까지 (단, 법회날은 익일로 함)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1통, 여권사진 3장

※ 본 교육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지망생의 수계 득도, 포교원, 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불교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대각사 불교의식 교육원
서라벌 범음대학

대구광역시 동구 신무동 813번지 전화 053)983-6421 / 010-4783-0077 대광

'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禪 무드라 명상 테라피 심성 정화교육

선무도 청소년 화랑수련 템플스테이

신라 화랑들의 기상과 조선시대 승병들의 영혼이 깃든 함월산의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에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단련을 위해 제37회 (19년 전통)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 『禪 무드라 명상 테라피』를 통한 심신치유 프로그램과
☞ 원어민 영어 강사가 함께 지도하는 『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캠프』
☞ 또한 스님의 불교 강의로 인성교육을 지도합니다.



※ 언 제 : 2010년 7월 ~ 2010년 8월
※ 모 집 인 원 : 매주 일요일 10시~15시 입소. 토요일 11시 퇴소.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100명 이내로 제한합니다.
※ 수 시 모 집 : 1주 / 2주 / 3주 / 4주 이상 (*1개월씩 4회 이상 수련 시 1단 승단심사자격 부여)
※ 대 상 : 초등학생 ~ 중학생 (고교생은 일반인 템플스테이)
※ 수 련 회 비 : 1주-28만원 · 2주-56만원 · 3주-75만원 · 4주-90만원 / 1일 4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농협 721107-51-021211 (예금주 : 골굴사)
* 접수 및 문의 : Tel 054)775-1689 / 744-1689 / Fax 054)775-1689 / 홈페이지: www.sunmudo.com

* 수련내용 : 1. 불교의 아나파나사티 명상 · 선요가 · 선기공 · 선무술 · 불교한문 · 전통문화 (판소리,승마,다도,전통춤)
2. 화랑의 기상과 호연지기를 느끼는 승마체험, 숲속 생태체험
3. 주 1회 성지순례 : 장항사지 · 감은사지 · 문무대왕릉 · 국립박물관 (3주차이상)

* 준 비 물 : 세면도구 · 수건 · 필기도구 · 운동복 · 운동화 · 모자 · 개인 컵 등 (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 일 과 표 >>

시간	내 용	시간	내 용	시간	내 용	시간	내 용
5:00	기상	10:00	오전 선무도 수련	13:00	독서와 사색	17:00	저녁 공양
5:30	새벽 예불 · 좌선 및 행선	11:00	108배 참회기도 · 자아를 향한 서원	14:00	전통문화 강습(판소리,다도,승마 등)	18:30	저녁 예불
6:30	아침 공양 (주 1회 발우공양)			15:00	오후 선무도 수련	19:00	자율학습 및 참회록 쓰기
8:30	영어회화 · 불교 강의	11:30	점심 공양	16:00	울력(도량 청소 및 정리)	21:00	점호 및 취침

1500년 전통사찰 · 연인원 3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골굴사 ·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 선무도 대학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제가 중학생이 되니 남자의 성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를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드니, 성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남자를 이성으로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으나, 가끔 남자와 성행위를 하고 싶다는 일시적이 충동이 든다던가, 꿈을 꾸는 경험을 자주 겪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때는 제 자신이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고, 싫습니다. 저는 정말 여자를 좋아하고 싶고 이러한 현상들을 고치고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은가요.

A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는군요. 건강하고 정상적인 남자, 여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 시기에 동성에게 관심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특별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성정체성 확립시기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을 겪게 되면 누구나 꺼림직 하고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담자께서는 여자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한 걸로 봐서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라 보여 집니다.

너무 자신을 책망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생각하십시오. 운동을 한다 던지 다른 취미활동을 가져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성에 대해 너무 자극적인 상상을 한다든지 동영상을 보는 것을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동성에 자꾸 관심이 가요 저는 앞으로 어쩌죠?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니 자책은 그만하세요

Q 얼마 전 회식 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어머니가 바다에 빠졌다는 사고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너무 늦어져 그만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기고 어머니 혼자 고생하며 살아오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니 어머니가 너무 가여워서 미치겠습니다. 어머니가 사고 날 당시,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하고 계셨던 사람들도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정말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돌아가신 엄마를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A 내담자께서는 안타깝게 사고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신 것 같습니다. 만약 불자이시라면 가까운 절을 방문하셔서 스님과 어머니 49재에 대해 의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49재는 죽은 이의 극랑왕생을 비는 천도의식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다음 생이 정해질 때까지 중음신(中陰神)으로 활동하는 49일 동안, 살아남은 사람들이 불공을 드리고 재를 올려 선근공덕을 지어주면 좋은 곳에 난다는 의미로 불교에서 행하는 의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사가 있는 법입니다. 내담자의 어머님께선 인연 따라 현생보다 좋은 환경에 태어나 안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자위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Q 아직 확신을 갖는 종교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종교를 올바르게 선택하려면 어떠한 기준을 갖고 선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우리는 삶의 방향과 가치에 대한 올바른 안목이 필요합니다. 삶의 방향과 내용을 좌우하는 것은 세계관입니다. 불교에서는 서로 의지하고 돕는 관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세계라는 뜻으로 세계를 관계의 존재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생과 우주의 진리를 깨치신 부처님의 진리의 내용인 연기를 말합니다.

연기란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있어서 생겨나고 원인과 조건이 없어지면 소멸한다는 것으로 존재의 생성과 소멸의 관계성을 뜻합니다. 연기는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기의 이해로 나의 존재와 관계, 그리고 삶의 방향과 가치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불교는 부처님이 우리를 돌봐 주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신 부처님의 법인 진리를 등불삼아 수행하고 정진해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을 찾아 우리도 깨달음의 길을 향해 가는 종교입니다.

24시간 자비의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성상담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의전화)

성취감에 건강까지 일거양득

사랑법당 탐방
종로노인복지관



동화구연반 어르신들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시험 등을 거쳐 자격증을 발급받고 역량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복지시설 등에서 동화구연가로 활동할 수 있다. 사진은 어르신들이 동작으로 동화제목 맞추기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

'배워서 남 주자' 인재마루 프로그램 10개 운영
동화구연봉사는 치매 예방 · 기억력 상승에 효과적

"자 준비인사합시다!"

"올라간 머리~ 내려간 머리~ 빙글빙글 돌려서 도깨비!" "올라간 코~ 내려간 코~ 빙글빙글 돌려서 돼지코!"

6월 16일 오전, 복지관 내 교육실에 16명의 어르신들이 강사의 준비인사에 맞춰 따라한다.

어릴 때 유치원에서 선생님을 따라 하던 그 율동을 어르신들이 재밌게 따라하는 모습이 이채롭다. 율동을 배우는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으며 즐거워 보였다.

이들이 듣고 있는 수업은 '동화구연반'이다. 지역 내 어린이집의 아이들과 불우이웃들에게 전래동화, 이솝우화 등을 들려주는 동화구연가로 거듭나기 위함이다.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노인세대와는 다른 사회적 자립도와 사회참여에 대한 적극성을 갖고 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이러한 어르신들의 욕구를 살려 올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등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인재마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관은 '배워서 남 주자'를 모토로 어르신들이 수업을 통해 자격을 갖추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한 복지관은 종로구 5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0개의 프로그램을 △전문기술 △전문봉사 △자격증반 3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전문기술반은 봉사를 희망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복지관내 어르신들을 상담하도록 하는 노인상담, 복지관 내 프로그램 진행시 보조 봉사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수리 교실과 지역 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할 수 있는 어르신을 양성하는 예절교육으로 구성됐다.

또한 전문봉사반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어르신 봉사자를 양성하는 것으로 손뜨개, 동화구연, 마술교육반이 있다.

이 밖에 복지관은 어르신들이 자격증을 따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자급수, 워드프로세서, 일본어능력 자격증반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어르신들의 관심분야와 전문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동화구연교육은 어르신들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조용숙(75 · 여 · 종로구 평창동) 어르신은 동화구연봉사활동을 시작한지 3년째 되는 베테랑이다.

조 어르신은 다양한 이야기 소재들과 풍부한 표현력을 배우기 위해 수업을 듣는다. 어르신은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면, 호기심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키워주게 된다. 무엇보다 요즘은 맞벌이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아이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부모들이 줄어들어 안타까운 마음에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동화에 맞는 소품을 일일이 손으로 만들어 아이들에게 보다 흥미롭고 유익하게 동화를 들려주면서 보람도 느끼고 삶의 활력도 갖는다"고 말했다.

매일 바쁜 스케줄 속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은 '일이 곧 행복'이라고 말할 만큼 동화구연활동에 큰 애착을 보였다.

이관(69 · 남 · 종로구) 어르신은 "처음에 동화구연교육을 받을 때는 조금 쑥스럽기도 했지만 배울수록 점점 재밌다. 아이들과 교감을 나누는 봉사자가 된다는 것에 보람을 느낌과 동시에 나 스스로 유머감각도 키우고 대중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울 수 있어 여러모로 좋다"고 말했다.

어엿한 직업인이 되기 위해 실버 맞춤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하는 어르신들을 보니 신바람 인생 2막을 시작한 것이 분명했다.

동화구연가 차현경 강사는 "동화구연봉사가 어르신들로 하여금 사회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하는 장점도 있지만 어르신에게 신체 · 정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동화구연을 할 때 손 움직임이 많은데 이는 좌 · 우뇌 활동도 활발해져 치매예방에 도움을 준다. 남에게 암기를 통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력상승에도 효과적이고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라 어르신들이 할머니 · 할아버지로부터 이야기를 듣던 어릴때의 추억을 회상할 수 있어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고 설명했다.

동화구연교육과정을 이수한 어르신들은 시험 등을 거쳐 자격증을 발급받게 되는데, 개인 역량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프로그램, 복지시설 등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이기정 사회복지사는 "복지관은 인재마루를 통해 새롭게 노인세대에 들어서는 베이비부머들과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기존의 노인세대가 어우러져 성공적인 신노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다"며 "지역사회에서 배움의 결과를 환원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고 말했다.(02)742-9500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모두 교환해 쓰십시오"

1. **'적중도'**와 **'효과성'**을 최고로 달성시킨 **'2010 완결보정판'** 육임 **상담용 종합CD프로그램** 입니다. 기존 판매된 「Ⅰ · Ⅱ · Ⅲ · 완결판」과 실비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완벽합니다. 모두 교환해 쓰십시오.
2. 신규 구입 가격은 500만원입니다. 매일 매시간별 방문자에 대한 **시보(時報) · 래정(來情) · 특기정황**은 물론 **작사귀/병귀/신변 가택부정/산소탈**이 세세할 뿐 아니라 **재(齋)의 효과여부** 및 **예방법**까지 적시되어 있어 **신뢰성을** 담보 하고 있습니다.
3. 「**육임활용서책**」 만을 구입 · 교환하실 분은 옆 라벨에 적시된 – **수록활용서목록** – 중에서 고르십시오. **각 최정련 증보 · 개정**되어 가히 **'비급'**이라 할 만 합니다.
4. 육임종합학습서 **'효사육임강론'** 上 · 下 권도 5월말 현재 「**2010증보완결판**」으로 나와 실비 교환중에 있습니다.
5. 방문자별 각 사정 **자동적시 화면처리** / 전체 **원터치** 기능 / **초보 · 문외한**도 **즉시적 활용 성과획득보장** / **미리** 보고 **먼저 판단**하며 / **예비성(메모)** 또한 백미 입니다!



구입 · 승인 · 교환 안내 : 051) 908-8683 담당 : 진 민 경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총재 고복자 효사 배상
www.taotemple.net

월드컵 8강기원 대법회 및 오 대한민국 화이팅

도통군자는 사리가 나와야 성불하며 영웅이 되는 지구촌 최대 진태양의 천기를 받아야 빛을 보고 마음이 열려 팔신공 도천명으로 사리를 군림하는 도법을 얻어 도통성불하는 육경신 대법회

지구촌에 물과 불과 이름모를 소두무족균으로 천지개벽이 오고 있으며
이 시대에 성불한 도인만이 살아 남아 중생을 구하는 시대가 도래되고 있다. 다같이 도통 성불 합시다!

● **경신도통이란 멸하지 않는 영적부모인 것이고 인간의 수행으로는 죄와 업을 벗지 못하고 상에 빠져 음과 양에서 못 벗어나는 것을 진광으로 삼시구충의 원뿌리를 뽑아 눈으로 보는 세상을 초월 말이 없는 생명의 빛으로 탐진치 껍질을 벗어 동방의 빛이 지구촌을 비추니 대한국운이 전세계를 지배 해도금묘가 시작되는 경인년 양력 7월 8일, 9일 자시와 오시에 天福 大運을 받는 경신일 태양진광진법인 도통군자들의 하늘에 뜻을 받는 타심통 도통법이 경신인 것이고 영원한 직장 자격취득하는 기도.**

대용맹정진 수행하는 곳에서 생명의 빛이 혜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생명을 열고 정신과 신심과 육신의 문을 열어 운수대통 팔자와 운명이 바뀌어 천하를 다스리는 천지공사 죽음의 뿌리를 끊고 시공을 넘어 견성도통으로 병없이 사는 이 수행법은 한번만 하여도 십년 수행한 공덕보다 나은 수행인 것이다. 전세계의 기운이 우리나라로 운집하여 평화촌 시대가 시작되는 대비밀법에 동참하시어 주인되시고 이 법은 삼생의 인연과 덕을 쌓아야 수행하는 것이며, **달마종 종단**은 생활불교,거사불교,보살불교,대중불교 머리깎고 승복에 구애 받지않으며 남녀노소 연령제한없이 불법홍포에 뜻이 있고 수행하고자 하는 분은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 **특별 금년 경인년은 해도금묘 대운의 해이므로 결혼과 가정과 직장 및 도통군자들에게 운이 막히고 수행마장, 기도마장 되는 것은 자기 조상해탈 못한 영가들의 방해이므로 본인의 삼생의 죄업을 벗고 악한운과 일체고액을 소멸하는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업장소멸로 열어주는 본인에게 돌아오는 공덕과 행운을 얻어 팔자를 바꾸는 수행인 것이다.**

조견, 오온, 개공도 사리자여 어떠한 수련에도 할 수 없는 태양의 힘과 우주의 초능력 팔신공 도천명으로 영포태 천지공사 음양합덕 생명의 원천으로 코와 입으로 숨을 쉬지 않고 21세기 최초 공개 하여 자신과 중생을 구하는 도법을 얻어 취직에 구애 받지 않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전인 것이고 태양의 빛과 지구를 돌리는 충력으로 일체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천하제일의 비전인 도법에 그대를 초대합니다.

천지공사 육경신도통이란? 천하의 비밀법에 자신이 운명을 비켜갈 수 있는 영포태로 업장소멸하여 자신이 운명을 조종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도통법 인 것이며 천지공사인 것이다.



◆천지공사 경신도통으로 타심통을 열어 상통천문하달지리로 자신의 일체의 병을 다스리고, 귀신마장의 포망을 넘어 유불선이 하나로 되는 도천명 타심통 득도하는 법회를 봉행. 금년 유행되는 전염병과 그 어떠한 병도 다스르는 의통 능력자인 초능력을 얻어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하는 도인이 되어 중생에게 빙이 된 영혼문을 열어 일체 영가 해탈 시키는 초등력을 얻는 대법회

거부장지로 사는 달마구입처 : 태일 02)821-6622/010-3239-3110

사단법인 대한불교달마조계종 교육원
부산 금정구 장전3동 경문사 도량 동시법회
대법회 상담전화 : 051)635-3110 / 010-8533-1601

세계불교달마종 경신도량 수행처 태양의집 봉황산 봉황사
법당인연자, 맞이공양자, 수행자, 인연자 동참자. 달마종 입종 환영.
충남 연기군 서면 봉암 2리 259번지 ☎ 041)867-7763 / 010-3239-3110

● **입제 : 양력 2010년 7월 8일 (음 5월 27일 목요일) (해시)**
● **해제 : 양력 2010년 7월 9일 (음 5월 28일 금요일) (해시)**
02) 821-6622, 821-7767, 010-3239-3110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접수) 간편한 옷**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3번출구 → 버스 461번,153번으로 환승 하시고 두번째 보라매병원 입구 하차. 동작구 약사회 골목. 관음정사 별관

사단법인 대한불교달마조계종교육원
천지공사웅조미륵달마 경신도통회
사단법인 세계불교 달마종 총 본산 태일합장


19일 조계사 앞에서 열린 대동한마당에서 부산지구 통만두팀이 공연하는 모습.


본 행사에 앞서 퇴휴 스님이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과 관련한 추모의식을 봉행하고 있다.



여주 여강선원에서 청년불자들은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만해 스님의 서원 곧 우리의 서원

대불청 29차 전국불교청년대회

대불청 창립 90주년 세상과 '소통'하다

"4대강 사업 중단될 때까지 용맹정진" 결의

"만해 스님과 선배들의 불교와 민족을 위한 서원이 여전히 우리의 서원입니다. 민족 각성과 조국 독립의 서원이 생명과 상생의 서원으로 평화와 통일의 결의로 다져집니다. 이제 불청은 희망 100년을 노래하려 합니다."

한국불교의 동량인 청년 불자 1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희망을 다짐했다.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는 6월 19~20일 '불청, 세상과의 소통을 꿈꾸다!(불청 90년, 희망 100년)'를 주제로 창립 90주년 기념 제29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불교청년대회를 통해 대한불교청년회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수행과 정진 · 나눔이 하나 되는 공동체의 비전 공유와 불청 희망 100년의 비전 선포 및 출발점을 만들어 불교 청년들의 생명과 평화 정신을 실천하는 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국불교청년대회는 19일 조계사에서 나눔 마당, 본대회, 대동한마당을 시작으로 다음 날인 20일 여주 신륵사에서 생명 · 평화 · 포교 결집대회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전국 13개 지구에서 1000여 명의 청년 불자들이 행사에 참가했다.

19일 조계사 앞마당에서는 본대회에 앞서 행사의 분위기를 고취하고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29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서울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조계사청년회의 길상풍물원은 조계사, 인사동, 청계천 일대에서 풍물한마당을 열었다. 또한 조계사와 조계사청년회, 불청대회, 지구별 활동영상 상영을 비롯해 지구별 부스를 마련해 장터 및 생협판매, 전시회 등이 열렸다.

오후 7시에 진행된 본 대회에서는 본회 창립 90주년을 기념하고 불청운동 100주년을 맞이하기 위한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본 대회에 앞서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 추모제가 봉행됐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인 퇴휴 스님의 추모사와 추모의식을 시작으로 행사는 어느 때보다 여법하게 진행됐다.

추모제에 이어 본격적인 본대회에서는 중앙, 지구 회기 등의 입장을 시작으로 법어, 격려사, 축사, 영상, 불청대상 시상식, 100주년 기념 비전선포, 회향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본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문화부장 효탄 스님, 김의정 신도회장, 민주당 김진규 국회의원, 최문순 국회의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등을 비롯한 20여 명의 내빈들이 참석했다.

이날 혜총 스님은 법문을 통해 "우리는 불제자로서, 그 중 가장 중추적인 사람들은 바로 청년 불자들이다"라며 "앞으로 청년 불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부처님과 만해 스님의 사상을 잘 받들고 원력을 세워 국가민족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리더로서 역량을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상식에서는 우수회원상, 우수지부상, 우수지회상,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상, 여성가족부장관상, 문화체육부장관상, 포교원장상, 총무원장상, 자랑스런불청선배상, 최우수지회상, 최우수지구상, 불청대상 순으로 시상이 진행됐다.

이날 불청대상의 영예를 안은 중앙 자문위원이자, 경북지구 지도위원인 이정환씨는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상을 받게 돼 면목이 없다"며 "앞으로 불청의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에 이어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불청 100주년 비전 선포가 이어졌다. 불청 100주년 기년사업추진위원회 배영진 위원장은 "과거 90년 동안 민족의 역경과 함께 부딪쳐왔다.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앞으로 100년, 1000년, 1만 년 이상 민족 자주통일과 번영을 위해 열정을 다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불청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배영진 위원장을 중심으로 불청 100년 발전기금 모금 사업분과위원회 김규범, 만해 사회공헌 재단 설립분과 위원회 정웅정, 심우장 성역화 사업분과위원회 김형남, 불청 100년사 편찬사업분회위원회 박찬웅 등이 구성돼 활동할 예정이다. 이들의 주요 사업은 심우장의 성역화 사업, 만해 포럼, 불청 100년사 편찬, 불청 100년 발전 기금 모금 사업, 만해 사회공헌 재단 설립, 만해 대학원대학교 설립, 연꽃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운영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1부 본 대회에 이어 진행된 2부 대동한마당에서는 각 지구별 공연과 초청공연 대동놀이 등이 진행됐다. 조계사청년회 길상풍물공연으로 화려하게 막을 연 2부 공연은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는 행사에도 불구하고 청년 불자들은 지친 기력 없이 더욱 뜨거운 환호와 함성으로 조계사를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대동 한마당에는 불자가수 강혜윤, 노래패 솔바람, 우리나라의 초청공연과 더불어 부산지구의 통만두 노래 공연, 조계사청년회 소리마루 합창, 광주 빛울림 사물공연, 서울지구의 댄스공연, 대구지구의 율동공연으로 전국불교청년대회의 첫 밤을 아름답게 장식했다.

20일 둘째 날은 생명 · 평화 · 포교 결집대회 행사를 위해 여주 여강선원으로 이동했다. 이 행사는 청년 불자들이 4대강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여강선원에 모인 청년 불자들은 합수의식과 더불어 기도문 낭독, 결의문 낭독, 신륵사 주지 세영 스님의 법문에 이어 남한강 순례와 참회와 개발 저지를 위한 108배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청년 불자들은 파헤쳐진 강을 바라보며 모두 "아쉽다"고 한탄하며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세영 스님과 불자들은 "이러한 때에 수경 스님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만 느껴지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날 청년회는 결의문을 통해 "인간이 자연을 파괴할 때 결국 파괴되는 것은 인간이다"라고 강조하며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당한 방법으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는 문수 스님의 숭고한 생명, 평화 정신을 이어 받아 생명 평화 환경 운동에 끝까지 용맹정진할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잘못을 참회할 때까지 우리의 행동을 결코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의식 불사용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790-102010.6.292:57PM페이지1(1,1)

고창지역 학생 3명에 장학금 전달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완)은 6월21일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고창지역 저소득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결연후원사업을 통해 후원된 것이다.

선발된 고창지역 18세 미만 중 · 고교생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4명에게는 매월 5만원씩이 졸업때까지 지원된다.

또, 결연후원금을 지원받는 학생에게는 복지관이 사례관리와 가족상담 및 결연물품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될 예정이다.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도완 스님은 "이번 장학금으로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열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군법당서 자원봉사 무각사 108정진회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의 신행모임인 '108정진회(회장 강정순)'는 전남 장성 육군보병학교 무각사(지도법사 혜욱)에서 매월 군포교를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6월 20일 400여 장병이 참석한 정기법회에서는 회원들이 마련한 떡볶이 등 간식이 군장병들에 전달됐다.

모임을 이끌고 있는 강정순 회장은 "직장인 새벽기도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20여 명의 회원들이 의기투합을 했고, 청학 스님의 권유로 군부대 법회를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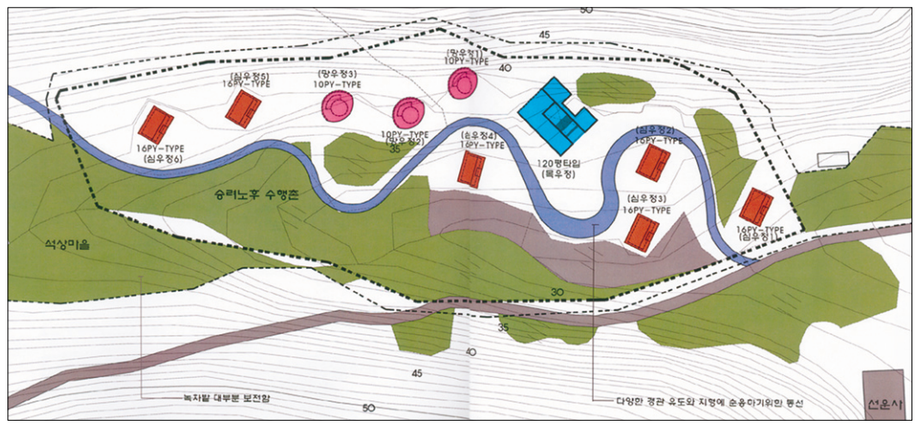
노스님 위한 수행마을 만든다

고창 선운사, 27일 착공… 운영법인 설립

조계종 총무원이 승려노후복지를 위한 준비 중인 가운데, 노스님들을 위한 수행공간인 승려노후수행마을이 첫 삽을 떴다.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6월 27일 선운사 인근 석상마을에서 승려노후수행마을 착공식을 봉행했다.

승려노후수행마을은 일평생 수행과 중생제도에만 전념하며 무소유의 청빈한 삶을 이어간 노스님들의 복지를 위한 수행시설이다. 선운사는 이날 착공식을 시작으로 석상마을 2만㎡(6000여 평)의 부지에 도로(황토길), 상하수도, 전기 통신 지중화사업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스님들을 위한 주거시설 건립에 들어간다.



지난 2월 선운사 승려노후수행관 공모전에서 수상한 안태만, 안성원(씨드아키텍 건축사무소)의 '십우도를 따라걷다' 조감도.

석상마을에 세워지는 스님들의 주거시설은 스님들의 생활방식을 고려해 단독 혹은 2~3인형 개별구조로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주변 도립공원의 자연환경과 어울리도록 전통 한옥형식으로 지어지며, 선농일체의 정신을 유지하며 소일거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옥마다 한마지기의 텃밭도 제공된다.

승려노후수행마을에는 제24교구 선운사 재적 스님 중 승납 30년 세수 65세 이상의 노스님들이 우선 입주하며, 입주에 관련한 일체의 금전은 받지 않고 교구 차원에서 노스님들의 복지를 책임진다.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승려노후수행마을에 입주한 스님들에게는 입적에 이르기까지의 안정된 주거와 수행처 제공만이 아니라 매월 수행연금을 지급한다. 간병, 수발 등 의료복지도 선운사가 담당한다"고 말했다.

선운사는 입주 노스님들을 위해 고창종합사회복지관, 고창병원, 정읍박병원 등 복지 · 의료시설과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전문적인 의료제공을 위한 교육과 요양돌보미, 간병인 등 도우미를 운영할 계획이다.

선운사는 별도 복지법인을 설립해 승려노후수행마을이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같은 날, 선운사는 승려노후수행마을을 운영할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총회도 개최했다.

주지 법만 스님은 "법인이 설립되면 노후수행마을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보은염 판매, 선우명차 등 선운사와 지역 특산품 판매 등 수익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전주교도소 불교교리 퀴즈대회



6월 24일 전주교도소에서 열린 불교교리퀴즈대회 모습.

전주교도소 불교교정위원회는 6월 24일 전주교도소 법당에서 '불교교리 퀴즈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금산사 이원일 사무국장 사회로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정읍 일광사 승천 스님의 법문과 교리 퀴즈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사회자가 문제를 내어주고 답을 맞추면 앞으로 스님과 보살들에게 선물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 교리 퀴즈대회에서는는 수건, 칫솔, 치약 등 상품과 쵸코파이 등 간식이 제공됐다.

한편, 대회 상품은 정읍 신선암 지공 스님과 진안 탑사 진성 스님, 승천 스님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산 범어사 약사전 점안식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는 6월 22일 약사전 점안식을 봉행했다.

정여 스님은 법어를 통해 "약사여래께서 이 땅에 나투신 참 뜻과 12대 서원의 원력이 우리 모두에게 명훈가피로 나타나기를 바라며, 특히 제병안락(除病安樂)의 서원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약사전은 약사여래를 주불로 하고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을 좌우보처로, 동방약사유리광회상도를 후불탱화로 모셨다. 약사전 전각 기둥에는 "동방만월세계 약사유리광부처님/ 온갖 병고로 신음하는 모든 중생/ 어진 의사로서 곳곳에 나투시어/ 모든 병마 한순간에 물리치셨네"라는 문구가 한글 주련으로 조각돼 있어 여느 전각과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약사전이 자리한 곳은 불사 전까지 휴휴암(이곳은 과거에 주지 소임이 끝나면 보임처로 주석하던 도량)이 있던 곳이다. 범어사는 약사전 조성을 위해 전각 방향을 바꾸고 불단을 만들어 새롭게 신축했다.

약사전은 5~6평 남짓한 크기이다. 큰 규모로 조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 한 관계자는 "범어사는 문화재 사찰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허물고 크게 지을 경우 문화재관리법에 따라야하고 원래 전각의 규모 그대로 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라시대는 빈번한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죽은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미륵신앙과 화엄신앙이 태동됐다. 약사여래 신앙은 이후 구원적 내세적 신앙들과 더불어 점차 민간신앙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임진왜란 당시 호국사찰로서 이름을 날렸던 범어사의 태생적 상황으로 미루어 본다면 이번 약사전 불사는 여러 면에서 당연한 결과로 보여진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기관사들의 따뜻한 철도여행



광주 대해노인복지센터와 광주철도공사 불자회 연등회는 6월 21일 여름나들이 봉사를 진행했다. 증기기차체험을 한 어르신들이 기차에 올라 즐거워 하고 있다.

철도기관사들이 독거어르신을 모시고 나들이 기차여행을 떠났다.

대해노인복지센터(센터장 무진, 법림사 주지)는 6월 21일 광주철도공사 연등회(회장 임천택)와 독거어르신 여름 나들이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독거어르신 17명과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연등회원 20명 등이 참가했다.

현직 철도기관사로 이루어진 연등회 회원들은 이날 행사를 위해 휴일을 반납하고 봉사에 참여했다. 행사에서 어르신들은 증기기차체험 등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어 25일 대해노인복지센터는 뜸사랑 회원들과 같이 어르신에게 침과 뜸으로 치료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블루베리축제 템플스테이

익산의 천년고찰 숭림사가 지역축제인 블루베리축제와 연계한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익산 숭림사(주지 지광)는 6월 19~20일 장수마을인 송천마을에서 열리는 축제와 연계한 '블루베리축제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템플스테이 지정사찰로 지정된 숭림사가 지역 축제인 블루베리 축제와 연계해 마련한 독특한 프로그램을 선보인 것이다.

행사에서는 불교문화인 참선과 발우공양, 다도, 사찰예절 습의, 스님과의 대화 등 사찰문화 체험을 비롯해 블루베리 수확체험, 음료시음, 블루베리 케익만들기, 문화예술공연, 전통놀이체험 등이 펼쳐져 30여 참가자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지광 스님은 "도시와 농촌의 이해증진과 사찰과 지역민간의 공생관계를 모색하고, 시골의 푸근한 정을 듬뿍 담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서울 수유동에서 딸과 함께 참가한 신찬비(44세)씨는 "평소에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나 하고 뒤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19~20일 익산 숭림사에서 개최한 블루베리축제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널뛰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7월 8일 경봉 스님 추모법회

7월 8일 영축총림 극락호국선원에서 경봉스님 28주기 기념법회가 봉행된다.

경봉당 정석 스님은 상구보리 화하중생을 몸소 실천한 큰스님이다. 1932년 통도사 불교전문강원장에 취임한 뒤부터 50여 년 동안 한결같이 중생교화의 선구적 소임을 다했다. 1935년 통도사 주지, 1941년 조선불교중앙선리참구원(현 선학원) 이사장을 거쳐 1949년 4월에 다시 통도사 주지에 재임됐다. 이후 1953년 극락호국선원 조실에 추대되어 입적하던 날까지 이곳에서 설법과 선문답으로 법을 구하러 찾아오는 불자들을 지도했다.

이에 극락호국선원은 추모재를 봉행해 많은 사부대중에게 선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 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 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20% 할인)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앞면 뒷면

호신불규격 직경 : 3.5cm, 세로 4.5cm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쳐!

자동차용 호신불

차량사고 예방과 생명보호의 필수품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 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아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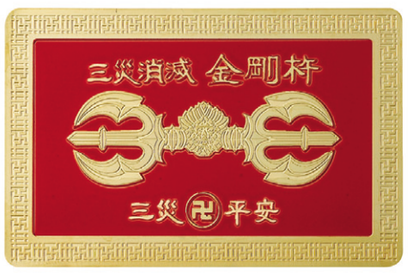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 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호신불을 자동차 운적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 격 : 45,000원 (사찰스님 30% 할인)
문 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용띠, 쥐띠, 원숭이띠, 드는 삼재시작 조심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묵는삼재 2012년 나가는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 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사찰 공급 가격 별도 상담요)
문 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분단이 갈등 원인…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평화재단 · 獨 아데나워 재단
국제심포지엄


6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분단국의 통일과정에 관한 토론을 하는 모습.

독일 · 예멘 · 베트남 사례에서 보다 나은 방법 배워야
"값비싼 대가 치러도 남북 통일 결국 성공" 한 목소리

천안함 사건 등으로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 내 자산동결 조치 등으로 남북 경제교류가 끊겼고, 10년 전 6 · 15남북공동선언으로 다짐했던 민족화해와 협력은 휴전선에 세워진 대북선전용 확성기와 이를 "조준격파하겠다"는 북측의 입장발표로 무색해졌다.

동족간 피 흘리며 고통을 겪던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0주년. 동족 간 비극이 재현될지 모른다는 전쟁 위기설까지 흘러나오는 때, 한반도와 같은 분단국 운명이었으나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나라의 사례를 살피는 자리가 마련됐다.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원장 윤여준)과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6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분단국의 통일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2010 평화재단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율리히 블럼 독일 할레대학 경제연구소 소장이 '(서독) 통일 당시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극복하려 했는가'를, 라스 헨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예루살렘사무소 소장이 '(동독) 동독주민이 조기통일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알-키브시 예멘 사나대 부총장이 '(예멘) 합의에 의한 통일이 왜 내전으로 이어졌나'를, 응우이엔 반 칸 베트남 하노이 국가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이 '(베트남)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불가능했나'를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이영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차장,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연구교수, 박정원 국민대 교수, 홍성민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교수, 조재현 한국외대 교수가 참석했다.

#독일-자유에 대한 갈망

독일의 통일은 서독이 '동방정책' 등을 통해 우월한 경제력으로 이룬 흡수 통일이다.

독일 분단은 두 차례나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을 미국, 영국 등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인 舊 소련이 이권다툼 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미국과 소련은 민주 · 공산 체제의 차이로 대립하고 있었다가 2차대전을 구실로 연합했다. 종전에 이르자 미국과 소련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다시 대립했고 이 과정에서 독일 수도였던 베를린을 비롯해 독일은 반으로 갈라지게 됐다.

한반도의 분단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소련 · 중국 등에 의한 세력확장의 희생양이긴 해도 세계대전이 아닌 남과 북이 직접 동족간 전쟁을 벌인 결과라는 점은 다르다.

독일의 통일은 단계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급작스런 통일은 막대한 통일 비용과 '오씨-베씨 갈등' 같은 통일후유증을 초래했다. '오씨-베씨 갈등'은 가난한 오씨(Ossis)와 거만한 베씨(Wessi)를 뜻한다. 통일 독일의 부작용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율리히 블럼 소장은 "독일 통일은 준비는 부족했어도 통일 이후 집약적인 통합을 이뤄낸 경우이다"라고 말했다.

블럼 소장은 "한국이 통일을 이루려면 더 많은 경제지대의 창출, R&D의 안정화, 재산규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은 독일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라스 헨젤 박사는 "동독주민들이 갖고 있던 통일에 대한 동기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다"며 "대다수 동독주민은 그들이 원하는 자유가 통일이 돼야지만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남북한이 통일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사회를 갈망하도록 남한사회 내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확립돼야 통일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멘-통일에의 국민적 합의

예멘의 통일은 서로 다른 체제의 남 · 북 예멘이 상호 합의에 의해 평화적으로 이룬 협의 통일이다.

'예멘아랍공화국'(북예멘)과 '예멘인민민주공화국'(남예멘)은 1990년 5월 22일 통합을 선언하고 '예멘공화국'을 수립했다.

예멘은 아라비아반도 남서부에 위치한 아랍국가이다. 북예멘은 16세기 터키의 지배하에서 1918년 독립해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됐다. 남예멘은 터키 지배에 이어 19세기 영국의 식민지가 됐다. 1967년 영국으로부터 해방됐지만 이로 인해 사회주의체제가 자리 잡으며 아랍에서는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됐다.

남북 예멘은 1989년 11월 30일 통일헌법 초안에 조인했고 1년 후 통일준비단계를 거쳐 완전 통합에 이르기로 합의했다. 양국 국회는 당초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 1990년 5월 22일 통일헌법을 승인하고 통합을 선언했다. 조기 통일은 통일반대자들에 대한 선제조치였다. 또 동독의 경우처럼 남예멘에서 줄이었던 국민 탈출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알-키브시 예멘 사나대학 총장은 "예멘이 통일에 앞서 국민투표와 국회선거를 하지 않았던 것은 모든 예멘인이 통일이 예멘의 발전의 수단임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알-키브시 총장은 "전쟁과 무력경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없다. 한국의 통일 역시 예멘처럼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원 국민대 교수는 "남북 예멘의 정치군사적 통합과 함께 행정체제 · 화폐 및 경제 · 정서적 통합 등에서 예상되는 과도기적 상황을 예측한 법제도적 장치는 한국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말했다.

#베트남-전쟁으로 분단 극복

베트남의 통일은 1975년 4월 무력에 의한 강제 흡수 통일이었다.

베트남의 무력통일은 후진국의 전형적인 내분과 분열 · 대결, 공산주의 폭력혁명에 의한 강제통합을 상징한다.

베트남도 다른 분단국들과 마찬가지로 외압에 의해 분단됐다. 한반도의 분단과 유사한 이념과 체제가 원인이 된 분단이었다. 하지만 베트남은 민족 내부 결속에 실패하고 민족간 분열과 대결이 거듭됐다. 이어진 내분은 결국 공산주의 폭력혁명노선에 의해 흡수 통합됐다.

응우이엔 반 칸 베트남 하노이 국가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은 "베트남에서는 어떤 '의도적 전쟁'이나 '이념적 전쟁'은 없었다. 단지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침략이 있었고 베트남 국민의 반미 투쟁이 있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응우이엔 학장은 "통일을 위해서는 확고한 목표와 적절한 단계와 해결책을 지녀야 한다"면서 "통일을 위한 투쟁은 국민의 뜻과 바람에 의해 평화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우이엔 학장은 "국가의 통일은 한 국가의 내부적 책임이고 그 국가의 국민들이 결정하는 일"이라며 "한 국가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분단세력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조재현 한국외대 교수는 "베트남의 분단과 통일은 강대국의 자국이익우선주의가 한 국가의 분단과 통일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박정원 교수는 "베트남의 통일은 전쟁의 승리를 통해 분단을 극복한 사례로서 이른바 힘에 의한 흡수통일이었다"면서 "1980년대 공산체제의 베트남이 서방국가의 지원제도를 인정한 경제개혁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은 국가발전 결과 낳아

종합토론에서 조재현 교수는 "독일, 예멘, 베트남 3국이 각각 통일에 다른 특징을 보인다"면서 "베트남의 경우 공산세력이 2번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고서도 결국 분단으로 치달은 것에는 강대국 때문이었다. 한국의 통일문제도 강대국과의 관계를 충분히 감안하면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공간적인 통일보다 정서적인 민족 통합 · 재사회화과정에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민 연구교수도 "남북한 통일 연구가 많지만 정치 · 경제적인 연구가 대부분이다. 민족 · 역사문제에 대한 고민이 적다"고 지적했다.

박정원 교수는 "독일과 예멘은 서로간 합의를 준수해 통일에 이를 수 있었다"면서 "한국은 7 · 4남북공동선언, 6 · 15공동선언 등이 있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통일로 나아가려면 기본합의부터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륜 스님은 "무력 통일된 베트남과 흡수 통일된 독일 등 사례가 보여주듯이 분단국의 통일은 경제든 군사력이든 세력이 큰 축이 주도해왔다"면서 "통일과 별도로 국민 통합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앞서 콜린 뒤르코프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소장은 여는말을 통해 "한국의 통일에 값비싼 대가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 성공적일 것이라는 것에는 한 치의 의심이 없을 것"이라면서 "갑자기,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는 통일에 한국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여준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원장은 인사말에서 "남북한이 군사적 충돌을 향해 치닫는 긴박한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분쟁과 갈등의 원인이 분단 자체에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통일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조동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LEADER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산하
국제 선불교 조계종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여기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준비 되셨죠?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용단을 내리세요.

• 사찰 등록 • 주지 임명 • 승려증 발급
• 행자 (예비 비구, 비구니 스님) 모집

어렵고 복잡한 것 싫습니다.
그저 종단의 보호만 받고 부처님 재산인 내 사찰 내 재산 내가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세계 각처에 어렵게 살아가는 극빈자들에게 종단에서 추진하는 중생 교화, 인간방생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약속하면 됩니다.

개인 사찰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종단 법으로 일체 간여하지도 간섭도 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찰에서의 불사나 행사에는 이제 부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같은 도반이요 부처님 제자요 가족이기에 품앗이 정신으로 서로서로 도우며 아무리 조그마한 사찰이라도 원만하고 자랑스럽게 행사를 봉행하도록 협조합니다.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산하종단 국제 선불교 조계종 / 총무원 : 02)733-5670. 733-5665 / 팩스 : 02)733-5671

C790-122010.6.292:58PM페이지1(1,1)

풍모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데 '법'은 어디 있을까?

36 무애도인의 기상 서린 봉국사

"무자 화두에 들면 염라대왕도 못 잡아 가니 여러 신도님들도 자나 깨나, 오나가나, 오로지 무자 화두를 드시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마음 찾는 공부를 하면 일체 근심이 끊기는 것을, 어리석은 중생들은 어찌하여 이 법을 외면하고, 염불 한 마디 안 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어른을 공경하지 아니하며, 친구들을 속이다가 결국 스스로 지은 죄에 떨어져 끝없는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그러면 이러한 모든 행위를 하고 하게 하는 '나'란 무엇인고?" <춘성 스님의 법문>

2010년, 어느새 절기는 하지(夏至)를 건너갔습니다. 이제 하루 한 뼘씩 산그늘이 길어지겠습니다. 무더운 한낮의 망상 삼아 100년 전을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늦더위가 한창일 때 나라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열강의 이해관계가 칡넝쿨처럼 얽혀 있는 가운데 식민지로 전락한 이 땅에 신문물이 밀물처럼 들어왔습니다.

100년 전 여름 어느 날, 소낙비가 후련하게 쏟아지는 설악산 백담사에서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여름 햇살이 자글자글 산사를 달구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소낙비 속으로 뛰어든 사미가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은 홀랑 다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뛰어나와 절 마당에서 비를 맞으며 덩실덩실 춤을 추는 어린 사미. 누구도 그 해괴한 짓거리를 말리지 않았답니다. '조선불교유신론'의 막바지 원고를 쓰느라 땀을 흘리던 만해도 어린 사미의 돌출행동을 그저 물끄러미 보기만 했답니다. 기라성 같은 스승들이 보는 앞에서 느닷없는 알몸 쇼를 벌인 사미는 욕쟁이로 이름이 난 춘성(春成 1891~1977) 스님이었습니다.

무애도인으로 활달자재한 한 생을 살았던 춘성 스님의 행적과 일화는 선가(禪家)에 살아 있는 전설입니다. 더러 음담(淫談)으로 치부되어 그 속뜻이 망측스럽게 변질된 경우도 있지만, 춘성 스님의 행화는 근현대 한국불교의 숨길 수 없는 역사입니다.

시인 효림 스님이 주지로 있는 성남 봉국사에서 시인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약속시간보다 좀 일찍 가서 절을 둘러보다가 후원 뒤쪽의 부도밭에서 춘성 스님의 부도를 친견했습니다. 1977년 입적한 스님의 부도와 탑비는 1981년에 세워졌습니다. 부도밭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꽃향기가 가득합니다.

팔각원당형의 전형을 따른 부도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데 탑비는 스님의 행화에 비해 다소 왜소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사리를 수습하거나 부도를 세우는 등의 일을 일체 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스님의 고준한 인품에 크기를 맞출 탑비란 도대체 얼마나 커야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부도는 선사의 풍모를 한눈에 보여주고 탑비는 선사가 남긴 삶의 궤적을 촘촘히 담고 있습니다.


봉국사 부도밭의 춘성 스님 부도와 탑비.


탄허 스님이 비문을 짓고 직접 글씨를 쓴 춘성 스님의 탑비.

춘성 스님의 탑비는 당대의 대강백 탄허 스님의 글씨로 장엄되었고 비문 역시 탄허 스님의 문자향을 드날리고 있습니다. 한 수행자의 생애를 일일이 기록하기에 비면(碑面)은 좁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문자란, 한 글자로 100년을 말할 수도 있고 100글자로도 한 마디를 전할 수 없기도 한 것입니다. 문자 그 자체에 신령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통해 주고받는 사람의 마음에 우주법계가 들어 차 있는 까닭이겠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비문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읽어 봅니다.

스님의 속명은 창림이요, 속성은 이씨요, 본관은 평창이며, 법명은 춘성(春成)이요, 춘성(春性)은 그의 법호다. 부친의 이름은 인오요, 모친은 박 씨이다. 단기 4244년(1891) 신묘 3월 30일, 강원도 인제군 원통리에서 태어났다. 모친이 한 동자가 오색구름을 타고 내려와 품안으로 들어 온 꿈을 꾸고서 마침내 태기가 있었다 하니 선사가 이렇게 오게 된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비문은 이어서 9세에 신흥사에 가서 출가의 뜻을 세웠고, 13세에 백담사 한용운 스님 회하에 들어가 삭발 했으며, 20세에 유점사 동선 노스님에게 귀의하여 구족계를 받았으며, 경학을 전공하여 특히 화엄법사로 명성을 드날렸다고 적고 있습니다. 만공 스님 앞에서 깨달음을 인가받은 얘기는 비교적 길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40세에 이르러 덧없는 세상을 탄식하고 덕숭산 만공 노스님의 회하에 들어가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을 참구 했는데, 만공 노스님이 하루는 "교외별전(敎外別傳) 한 구절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자 스님의 우레 같은 큰소리를 '억' 하고 질렀지만 만공 스님은 그를 수긍하지 않았다. 그 후 장좌불와 수행으로 정진을 더 하여 50세에 이르러 양주 흥국사에서 하안거를 할 때였다. 꿈에 만공 스님이 연꽃을 들어 보이는 것을 보고서 교외별전 한 구절을 툭 트이게 깨달았다. 게송을 지었다.

남 위한 삶 몸소 실천, 욕설로 법문 일화 많아

간략하게 생애 담은 탑비 탄허 스님의 글 글씨

연화장 세계 속에 온 몸이 차가웁고
대천사계가 나의 몸일레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별전구를 묻는다면
바로 비로신이라 답하리라.

만공 스님은 이 게송을 보고 침묵으로 응대할 뿐이었다. 어느 날 화단에서 꽃구경을 하였는데, 만공 스님이 갑자기 "어떤 것이 가장 으뜸가는 꽃이냐?"라고 묻자, 스님은 바로 주먹을 불끈 들어 보였다. 만공 스님이 이것은 그만두고 어떠한 것이 두 번째 가는 꽃이냐고 물으니, 스님은 바로 큰 소리로 '억' 하고 내지르자, 만공 스님은 미소를 짓고 방장으로 돌아 가셨다. 이로부터 종횡에 얽매임이 없고,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자유자재하였다. 어느 때인들 선의 경지가 아니며 어느 곳인들 법이 아니겠는가?

춘성 스님은 처음부터 선방을 다닌 것이 아니라 '화엄법사'란 칭호를 얻을 만치 경학에 밝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 언어가 끊어진 자리에서 문자를 세우지 않고 곧바로 대광명의 자리로 들어가 소요(逍遙)했습니다. 어쩌면 사미 시절 백담사에서 옷을 홀랑 벗고 소낙비 맞으며 춤을 추던 그 돌출행동이 육신에 비장(秘藏) 된 선의 기틀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며 옥고를 치르는 스승 만해를 지극하게 시봉하던 그 순박하고 충직한 심성이 인간의 절대순수를 바탕한 것임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비문에 기록된 춘성 스님의 임종게가 경학에 밝고 선수행에 투철했던 춘성 스님의 가풍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87년의 일은
일곱 번 넘어졌다가 여덟 번 일어나는 것이로다.
횡설수설이여,
붉게 타는 화로위에 한 점의 눈일레라.

춘성 스님의 일화는 풍성해도 그 생애와 사상에 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않은 듯합니다. 만해와 춘성이 대를 이어 출가한 백담사. 오늘날 만해의 정신 선양의 1번지인 만해마을의 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김광식 박사가 2009년 5월 <춘성>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일대기와 다양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봉국사를 다녀 온 다음날 <춘성> 한 권을 구해 읽으니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거기 이런 내용들이 깨알처럼 별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망월사에서 이불은 이불(離佛)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춘성은 수좌들이나 신도들에게 탐심을 내지 말고, 돈을 모으지 말며, 가진 것을 언제나 남에게 보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118쪽)

"스님께서는 죽음 뒤의 저쪽세상[來生]을 믿으시나요?" "필요 없다. 군더더기다." "사후세계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매우 큰데요. 그럼 내생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필요 없어! 씨팔놈아." (165쪽)

"스님 양말이 짝짝입니다." "별 놈 다 보겠구나. 따로따로 보지, 두 발을 함께 보고서 분별을 하느냐?" 춘성이 신은 짝짝이 양말은 남이 신고서 버린 헌 양말이었다. (319쪽)

망월사에 갔더니만, 춘성 스님이 마당에서 직접 빨래를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등산객들이 스님 뒤에 가서 스님 궁둥이를 쳐다보고 있어. 이상해서 나도 가 보았지, 스님이 아랫도리에 아무것도 안 입었어. 겉에는 얄궂은 것을 하나 걸치고서는 빨래를 하였어. 그래서 우리는 엉거주춤 있다가 빨래가 끝난 후에 내가 스님에게 물어 봤지. 왜 옷도 안 입고 빨래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스님이 말씀 하시기를, 좋은 옷이 있었는데 어제 어떤 걸중이 왔길래 그 옷을 벗어 주었고 지금 빨고 있는 바지를 빨아서 입으려고 한다는 것이야. 춘성 스님은 그런 스님이야. (324~325쪽)

어느 날 춘성 스님은 통금 시간을 넘어 밤길을 가고 있었다. 방범 순찰을 하던 순경이 춘성에게 물었다. "누구요?" 춘성이 어둠 속에서 즉각 대답하였다. "중대장이다." 그 소리를 들은 순경은 목소리는 노인인데, 중대장이라고 하니 의아해서 들고 있던 플래시로 춘성을 비추었다. "아니, 스님 아니시오?" "그래, 내가 중의 대장이지. 맞지?" 이 말을 들은 순경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396~397쪽)

무애도인의 활달 자재하던 풍모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데, 진실로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법'은 어디에 있을까? 춘성 스님처럼 소낙비를 맞으며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어집니다.

임연태 (시인 · 본지논설위원)

日江스님께서 정리하신 상용의식

책을 내면서...

지금까지 갖가지 의식에 대한 절차나 예법을 기록한 책이 많이 나와 있으나 초심자가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각종의식 집은 조예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의식진행 순서대로 작성하였다. 아무쪼록 본 의법이 법요의식을 진정한 염불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많이 활용되어 중생계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庚寅 仲夏 편집인 日江 합장



예경 · 권공의식집

예불에서부터 불공에 이르기 까지 목탁, 요령, 합장표시와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의식 순서대로 되어있어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18쪽 | 값 12,000원



불상 점안 의식집

부처님을 모신 후 불상점안 의식은 이 책 한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

46배판 | 59쪽 | 값 7,000원



천도(49)재 의식집

천도재, 구병시식, 지장불공, 관음시식 등 재 의식을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순서별로 되어있다.

46배판 | 123쪽 | 값 12,000원



고사의식집

가택 평안을 위하여 사용되는 고사의식 집이 알기 쉽게 편집되었다.

46배판 | 130쪽 | 값 13,000원



다비의식 집
(2010신간)

누구나 간절히 기다리던 의식집, 숭가다비편과 재가다비편이 입적 후 처음으로 시신을 대하는 순서부터 화장, 매장 등 의식절차가 순서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한 설명으로 누구나 당황하지 않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58쪽 | 값 15,000원

- 그밖에 도서목록 -

- 영혼과 운명의 비밀(365쪽)
- 불교종합의식 집(393쪽)
- 한국 한양굿 전통의식 집(225쪽) 등이 있다.

구입문의
일강 출판사 02)2233-5286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21>

무엇이 바른 수행인가?

조주 스님이 대중에게 설법했다.
"내가 이곳에서 가르치는 불법은 말하기는 어려우나 쉽고, 말하기는 쉬우나 어렵다. 다른 곳은 보기는 어려워도 알기는 쉽지만 나의 가르침은 보기는 쉬워도 알기는 어렵다. 만일 알 수만 있다면 천하를 횡행할 수 있을 것이다."

師示衆云 此間佛法 道難卽易 道易卽難 別處難見易識 老僧者裡卽易見難識 若能會得 天下橫行

조주 스님의 회상뿐만 아니라 진정한 선사가 있는 곳에서 가르치는 불법은 때로는 쉽지만 때로는 어렵다. 여기서 본다는 말은 자성(自性)을 보는 것을 말하는데 즉, 견성(見性)이다. 제대로 된 선지식을 만나면 견성하기는 쉬운 법이다. 그러나 본 것을 말로 표현하라고 하면 어렵다. 그래서 불법은 말하기는 어려워도 쉬운 것이고, 혹 말하기 쉽다 해도 그것을 확실히 알기는 어렵다. 그래서 조주 스님은 늘 "내 법은 보기는 쉬워도 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견성도 하고 또한 자성에 대한 견해도 확실히 얻었다면 천하에 그 누구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 견성은 쉽다. 그러나 확신을 얻기는 힘들고, 또 견성한 것을 남들에게 알리기도 어려운 법이다. 그런데 만일 견성과 동시에 말문까지 트였다면 불법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홀연히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고 물었을 때 만일 조주에서 왔다고 한다면 조주를 비방한 것이 되고 만다.

만일 '조주에서 오지 않았다' 해도 또한 자기를 잃어버린 것이 된다. 자, 여러분이라면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학승이 물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비방하는 것이 된다면 화상께서는 어떻게 비방하지 않으시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만일 비방하지 않고 이른다해도 벌써 비방한 것이다."

忽有人問 什麽處來 若向伊道 從趙州來 又謗趙州
若道不從趙州來 又埋沒自己 諸人且作麽生對他僧問 觸目是謗 和尙如何得不謗去
師云 若道不謗 早是謗了也

이 대담도 <금강경>의 사상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만일 불법을 불법이라 하고 또 부처가 설한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부처를 비방한 것이다. 선(禪)을 닦는 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조주의 제자가 돼서 조주가 있다하고 조주가 설한 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스승을 모독하는 것이 되고 만다.

그렇다고 조주의 제자가 돼서 조주 스님의 제자라 밝히지 못하고 조주의 선법을 말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출신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만다. 이때를 당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조주 스님은 설사 비방하지 않고 이른다 해도 이미 비방한 것이 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천하의 납자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여기서는 단숨에 우주를 박차고 벗어나는 장부의 기개가 필요할 뿐이다.

학승이 물었다.
"바른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수행해야함을 알면 된 거야. 만일 수행해야 함을 알지 못한다면 갖가지 인과 속에 떨어질 거야."

問 如何是正修行路
師云 亥修行卽得 若不解修行 卽參差落他因果裡

무엇이 바른 수행인가? 다만 수행이 필요함을 알면 된 것이다. 불자라면 수행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수행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 마음은 오랫동안 탐진치 삼독이 한 겹 한 겹 달라붙어 억천만 겹의 집착 덩어리로 습관화된 상태이다. 때문에 자기를 비우는 수행을 하지 않고 어느 한 순간 마음이 깨끗해지길 바라는 것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길 바라는 것과 같다.

불법은 때로는 쉽고 때로는 어렵다

차별을 인정한 속에서 평등심을 가져라

또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내가 자네들에게 할 말을 가르쳐주겠다. 만일 어떤 사람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 '조주에서 왔다'라고. 만일 '조주는 어떤 법을 설하는가'하고 물으면 다만 이르라. '추우면 춥다하고 더우면 덥다 한다'라고. 만일 다시 이르기를 '그런 것을 물은 것이 아니야'하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무엇을 물은 것입니까?' 하고 반문하라. 만약 재차 '조주는 어떤 법을 설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면 곧 대답하라. '제가 올 때 노스님께서는 별 말이 없었습니다. 상좌께서 만약 조주의 일을 알고 싶으면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라고."

又云 我教你道 若有問時 但向伊道 趙州來 忽問趙州說什麽法 但向伊道 寒卽言寒 熱卽言熱 若更 問道 不問者箇事 但云 問什麽事 若再問趙州說 什麽法 便向伊道 和尙來時不交傳語 上座若要知趙州事 但自去問取

조주 스님의 법은 별 달리 어려울 것도 없고 어떤 깊은 단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조주 스님은 다만 '추우면 춥다하고 더우면 덥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조주 스님 스스로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를 말할 뿐 특별함은 없다는 말뜻이다.

조주 스님은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이다. 정도를 걷는 사람은 항상 있는 그대로 말할 뿐이다. 공연히 각종 미사여구나 온갖 사상을 들이대면서 진리를 치장하거나 어렵게 포장하지 않는다. 도는 어렵지 않다. 도를 실천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도를 말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도를 아는 것도 어렵지 않다. 추우면 춥다하고 더우면 덥다 하면 된다. 사람들이 도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도의 실체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학승이 물었다.
"앞뒤를 돌아보지 않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앞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놔두고, 그대는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

問 不顧前後時如何
師云 不顧前後且置 你問何誰

이 문답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혹 도(道)를 닦는 사람이 어디서 도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는 도는 고하가 없고 형체가 없으며 전후도 없다고 생각해 막행막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도의 근원으로 돌아가 말한다면 지위고하가 없고 형체 또한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실의 세계는 도가 근원에서 흘러나와 갖가지 차별을 이룬 세계이다. 그러므로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갖가지 차별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차별을 인정한 속에서 평등심을 가져야 한다.

조주 스님은 전후가 없다는 것에 대한 자세한 의미는 나중에 따지고 너는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 물으므로 써 명백한 차별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즉, '너는 전후가 없다하지만 현실에서 어찌 없을 수 있겠느냐, 당장 네가 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분명 묻는 자와 대답하는 자가 따로 있지 않느냐?' 라는 의미의 반문성 가르침이다. 납자들이 새겨들어야할 대담이다.

■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귀 교수의 **선어록 해제** ❸ 이입사행론

선의 역사 달마에서 시작

오늘날 전승돼 온 중국선은 보리달마로부터 시작됐다. 달마의 전기와 사상은 다분히 신비적이고 초인격적인 모습까지 가미됐다. 그것이 어느 정도 학문적인 성과와 더불어 달마에 대한 역사적인 연구로서 등장한 것은 20세기 초에 돈황본 문헌의 발견과 더불어 시작됐다. 그만큼 돈황본 선문헌의 가치는 크다. 그 가운데 <이입사행론(達磨二入四行論)>은 달마의 말씀을 전해주는 최고(最古)의 문헌이다. 이로부터 선의 역사와 사상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입사행론>의 일부분은 이전부터 알려져 왔다. 곧 <속고승전>의 보리달마의 전기, <경덕전등록>의 '보리달마약변대승입도사행병제자담림서(菩提達磨略辨大乘入道四行幷弟子曇林序)', 대정신수대장경에 수록돼 있는 <少室六門> 가운데 '이종입(二種入)', 범어사에서 개편된 <선문촬요(禪門撮要)> 가운데 '보리달마사행론' 등이 그것이다.

일찍이 <이입사행론>의 자료적인 가치를 인식한 사람은 스즈키 다이세츠 박사의 <소실일서(少室逸書)>(1935) 및 <교간소실일서급해설(校刊少室逸書及解說)>(1936)이었다. 여기에는 <소실육문> 가운데 '안심법문(安心法門)' 및 <종경록(宗鏡錄)> 권99에 수록돼 있는 단편적인 장선사(藏禪師), 연선사(緣禪師), 안선사(安禪師) 등의 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후 달마의 어록에 대한 해석과 현대적인 해설서로는 야나기다 세이잔 교수의 <달마의 어록>(1996) 및 <다루마>(1998)가 널리 보급돼 있다.



법화선원 법공 스님의 달마도.

<이입사행론>의 서두에는 제자 담림이 쓴 서문이 수록돼 있다. 여기에서 담림은 달마의 출신 지역 및 신분 그리고 중국에서 겪은 상황을 간략하게 서술한다. 보리달마가 바다를 건너 중국에 왔을 당시, 중국의 사회현실은 대단히 복잡한 남북조시대였다. 특히 달마의 선사상에 대해서는 여시안심(如是安心)하고 여시발행(如是發行)하며 여시순물(如是順物)하고 여시방편(如是方便)하는 사여시(四如是)로 요약했다. 곧 여법하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여법하게 사행(四行)을 실천하며, 여법하게 중생을 대하고, 여법하게 공부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대승안심의 가르침이니 이로써 사람들을 잘못되지 않게 가르치고 인도하라는 것이었다.

첫째의 여시안심(如是安心)은 안심법문(安心法門)으로 잘 알려진 가르침이다. 달마와 혜가 사이에서 등장한 이 문답은 후대 선문답의 원형(原型)이 됐다. 달마의 가르침에서 이것은 이입(二入)으로 나타나 있다. 곧 대저 불도를 깨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요약하면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진리에 합치해 깨치는 방법(理入)이고, 둘은 깨친 불도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行入)이다.

둘째의 여시발행(如是發行)은 사행(四行)을 실천하는 것이다. 매사에 분명하고 명쾌한 판단을 내려 왜곡됨이 없이 지속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곧 여법한 발심이기도 하다. 스스로 발심한 것을 마음과 입과 몸의 행동으로 여법하게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달마의 가르침 가운데 사행(四行)으로 나타나 있다. 불도를 실천하는 것은 네 가지의 실천으로서 외적인 실천은 모두 이 수행에 포함된다. 하나는 전세의 원한에 대한 실천이고, 둘은 인연에 따르는 실천이며, 셋은 아무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실천이요, 넷은 법의 본성에 계합된 실천이다.

셋째의 여시순물(如是順物)은 자신이 깃들어 살고 있는 세속의 관습을 존중하고 인정에 따르는 것이다. 곧 상대방의 문화와 성격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선에는 이류중행(異類中行)이라는 말이 있다.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려면 것에 스스로 그들 중생의 입장에서 행위하면서 동화하고 교화하는 화광동진(和光同塵)을 말한다.

넷째의 여시방편(如是方便)은 섬세하고 온갖 마음을 기울여 정성을 다하는 공부로서 유연한 마음을 말한다. 모든 일에는 방법이 있고 전통이 있으며 사람이 있고 목표가 있다. 그것을 스스로 존중하면서 경우에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구사해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으로서 선교방편을 사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깊이 스승의 말을 믿고 스승의 가르침을 수용하며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고 상황을 잘 파악해 대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여시(四如是)의 가르침은 달마법문의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달마는 스스로의 경험에서 우러나는 가르침을 몸소 그와 같은 네 가지 방법으로 제자에게 전해준 것이다. 달마는 이국의 승려로서 많은 오해와 질투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대치가 아닌 포용과 순응으로 극복했다. 이 이입과 사행은 <금강삼매경(金剛三昧經)>의 입실제품(入實際品)의 내용과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달마와 <금강삼매경>의 관련에 대해 다양한 학설이 등장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봉 행
우란분절(백중)
지장경 산림법회 및
자비도량 참법기도
지옥중생이 남아 있는 한 성불하지 않겠다고 원을 세운 지장보살님과 시왕(명부)을 모신 지장기도영험도량에서 있을 천도재 · 산림법회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법사 : 석 혜능 스님 (전, 해인사 율원장)
◆ 일시 : 불기 2554년 5월 25일 (양, 7월 6일) ~ 7월 15일 (양, 8월 24일)
◆ 조상, 태아령 영가 천도 자비도량 참법 기도 - 오전 10시
◆ 지장경 산림법회 - 오후 2시
금강경으로 장엄한 법당,
시왕(명부)를 모신 지장기도 영험도량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중리 1077-6번지
수 정 사 성천 합장
052)225-0068, 0177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5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0년 8월 19일까지
◆ 개강일시 : 2010년 8월 20일 매주 (금)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 東 佛 敎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우리는 삶의 리더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6월 20일 일본 나가노 빅햇 스타디움에서 '긍정적 마음의 빛을 향한 안내'를 주제로 설법하는 달라이 라마.

창조 · 진보적인 자비의 아이디어로 희망 만들길
생기 도는 건강한 몸과 마음 안에 '붓다' 있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14대 달라이 라마(텐진갸초)가 6월 20, 22, 26일 일본에서 법을 설했다. 20일 나가노 빅햇스타디움에서 '긍정적 마음의 빛을 향한 안내(Guide to Positive Clear Light)'를 주제로 불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나가노 선광사(zenkoji temple)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7000여 명의 청중이 참석해 달라이 라마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다. 달라이 라마는 아시아에서 고도의 성장을 이룬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정신적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상적 모순과 그로부터의 해결법에 대해 법문했다.

달라이 라마는 이어 22일에는 카나자와 이시카와 현립음악당에서 <반야심경>을 주제로 법문했다. 일본 티베트난민후원그룹이 주최한 이번 법회에는 3000여 명의 청중이 함께했다. 달라이 라마는 <반야심경>을 일컬어 260글자 안에 담긴 대승불교의 정수라 평하고, 나가르주나(용수)의 논을 빌어 '변증법으로 논하는 실상의 진리'라고 설법했다. 오늘날 다양한 이념이 혼합된 비빔밥과 같은 시대에 불교야말로 현대과학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대화의 창구로서 이미 불교는 종교의 한계를 뛰어 넘어 건강한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나'라고 하는 실체를 바로 알고 실천하는 대승불자가 되라고 권고했다. 달라이 라마는 28일 인도 다람살라로 돌아갔다. 다음은 법문 요지.

내 팔목에 두른 시계에 내가 있습니까?

[20일 나가노] 강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나는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몸 안의 장기 한 부분에 내가 있습니까? 내 팔목에 두른 시계에 내가 있습니까? 물론 건강한 육체는 바른 삶으로 이어지는 나를 뒷받침할 것이고, 시계는 타인으로 하여금 나의 이미지를 상징케 하는 수단이 될 수 있겠지요. 나라고 하는 것은 인연 화합에 의한 마음의 소산입니다.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것의 노예로 휘둘리는 것은 수만 가지 알음알이의 저장고인 아뢰야식의 인연화합 세계에 우리가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유로부터 외부로 표출되는 연기의 진리는 지혜로 향하는 삶의 지도를 제시합니다. 그 방향의 터전이 바로 근본 마음입니다. 일상에서 '감사합니다'를 많이 사용하는 일본인들이지만 정작 근본 마음의 갈피에 대해서는 강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의 뉴스를 보면 자살과 범죄의 빈도수가 경제성장과 비례하는 것은 아닐까 염려가 들기까지 합니다.

나는 강한 의문이 들 때마다 내 주변의 모든 철학과 과학 그리고 불법의 지식을 총 동원해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봅니다. 따라서 더욱 풍부하고 심도 깊은 행복의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그 근본에는 정직함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의 대화 또한 교류의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대화 없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이러한 공식 법회를 즐깁니다. 다양한 청중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나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동시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첫 번째로 가족과 자녀에게 사랑의 감정을 전하십시오. 사회와 국가로 확대되는 결핍의 어둠은 가족의 해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가족이 건강한 국가로 이어지는 것은 순리입니다. 고여 있는 물은 종국에는 썩고 맙니다. 그 곳에서는 어느 생명도 존속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사상과 이념과는 별개 문제인 삶의 근본 방식입니다.

인간이 지닌 계발 능력과 그로 인한 진보에는 근원적으로 지혜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그 지혜는 마음을 열고 보는 바른 지혜입니다. 내가 지닌 모든 지식의 거울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의 현상들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현상들이 하나로 압축될 것입니다.

정신적 불안은 자애의 결핍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내 안의 현상들에만 머물지 말고 세계의 동향, 자연의 경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모두가 한 갈래에서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건강한 마음에서 모든 것은 바르게 추구되고 공유됩니다. 과학과 경영으로 진보한 나라에서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개개인의 불행에 대한 답은 따스하게 보듬어주는 긍정의 빛입니다. 대화하십시오. 가족과 스승 그리고 동료와 지금부터 대화를 나누십시오.

논리적으로 행복의 시작과 끝은 정의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명확히 해답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또한 그 해답을 찾아 살아가는 삶의 길이 바로 인생입니다.

가만히 있는 나에게 미친개가 달려들려고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개의 주인이 누구인지 개의 품종이 무엇인지 분석하기 전에 그 위험으로부터 신속히 도망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답입니다. 불안의 심리가 찾아올 때는 불안을 분석하려 들지 말고 어서 빨리 탈출하십시오. 그 불안의 늪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삶의 가치는 역행할 것입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고민하는 현실의 문제를 보면서 나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더욱이 미래에 대한 나의 염려에 안도감을 줍니다. 나의 정신은 이미 구식이기에 그들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교육받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생각이 100년 후의 우주를 디자인할 것입니다. 창조적이고 진보적인 자비의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샘솟아 희망의 지구를 가꾸길 기대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삶의 리더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긴 시간을 전망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현실에서 실천하십시오. 삶의 균형이 순조로울 때 인류의 희망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무엇의 불법의 핵심입니까?

[22일 카나자와] 예상 외로 많은 불자들이 불교 수행자를 정의하는 방식에 있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명상에 할애하는지, 특별한 수행법으로 신령스런 체험을 했는가 등의 희론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미국 법회 때 만난 한 과학자는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인간의 진보가 언제 끝날 것으로 보십니까?" 나는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불교신

공 보면 분노에서 자유로워

<空>



달라이 라마를 주제로 한 서적과 영화에 관심을 보이는 일본 불자들(위).



7000여 명의 청중들이 법회장을 가득 메워 달라이 라마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자라고 생각합니까?"

바른 불자는 실상의 진리를 압니다. 네 가지 숭고한 진리와 열두 가지 연기의 진리를 친절히 논하고 있습니다. 불자는 기본적으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기 때문에 이로부터 싹 틔운 불법의 시각으로 세상을 정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어긋남을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 가장 탁월한 해답입니다. 오늘날 인류는 '나'라고 하는 강한 집착 때문에 타인의 숭고한 충고를 쉽게 용납 못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타인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 매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뿌리 깊은 무지는 절대적이고 신성한 무엇을 만들어 냈습니다. 나가르주나는 근본의 밑바탕으로 들어가 실상의 중론을 고심했습니다. 그것이 <반야심경>에 고스란히 녹아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 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무엇의 불법의 핵심입니까? 나는 14대 달라이 라마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이름을 짊어지고 75년의 세월을 지내왔지요. 그러나 나의 실체는 '공(空)'입니다. 티베트와 티베트인의 삶은 자비 그 자체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달라이 라마라는 티베트 출신의 종교인이 들려주는 실상의 진리를 듣기 원합니다. 과학이 진보를 거듭해도 기술과 돈으로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인간 심연의 번뇌와 켜켜이 쌓인 일상의 고민들이 여러분과의 만남에 인(因)을 성립시켰습니다.

<반야심경>은 나를 포함한 모든 현상에 실재하는 존재가 없다고 거듭거듭 밝힙니다. 우리가 발전이라고 칭하는 것들은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간에 모두 인간의 '희망'이 만들어낸 욕망의 화합체입니다. 그 속성인 공성(空性)을 보면 모든 분노와 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평온하고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이르는 길로 우리 모두 함께 가자고 <반야심경>은 권고합니다. 붓다의 세상은 현상계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몸을 이루는 화합의 산물들이 생기를 이룰 때 건강한 마음 그 안에 붓다가 있습니다.

일본 나가노 · 카나자와=가연숙 객원기자

omflower@gmail.com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99. 몽골성자 구루데바 노스님

몽골의 명물 23m 대불… "몽골인에게 웃음 안겨주고파"

구루데바 스님은 몽골 최고 불교지도자이다. 인도성자 붓다 싱의 화신으로 추앙받던 스님은 1910년 몽골 오르도스도에서 태어나 소년시절에 간즐사원에서 출가했다. 다르마 짤잔의 가르침을 받고 여러 사원을 유행하다 1946년 미얀마로 유학가 밀교와 탄트라법에 정통했다.

1953년 미얀마에서 도솔사를 짓고 80여 티베트 승려들을 교육했다. 1972년 남인도에서 다시 훈베사원을 창건한 스님은 1970년 몽골 간단사 공보짜브 스님의 초청을 받아 고향에 와 역대 성자들의 저술을 정리하고 티베트승가대학 교재를 몽골어로 번역해 인재 교육에 힘을 쏟았다.

구루데바 스님은 다시 인도와 미얀마를 거쳐 1993년에 몽골에 재입국해 자나바자르 성자가 창건했던 아마라바라가란트를 중건해 국가 문화재로 등록했다. 그리고 몽골 청소년들을 모아 나담 축제를 개최했는데, 이 축제는 매년 9월 달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성대하게 열리고 있다.

구루데바 스님은 일본이 몽골 정부로부터 울란바트로 시내 도로를 포장해 주는 대가로 자이산 공원의 땅 8000평을 자신들에게 달라는 요구를 듣고, "자이산공원에 부처님을 모셔야만 몽골이 다시 재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님의 이러한 요청에 몽골 정부는 자이산공원 8000평을 스님에게 불하했다.

필자는 2003년 당시 불교진흥원의 후원으로 몽골에서 고려사를 창립하고 의료봉사를 하던 중이었다. 몽골국립방송에 우리들의 활동 상황이 보도되자 구루데바 스님은 필자와 만나자는 전갈을 보내왔다. 당시 96세였던 스님이었기에 의사와 간호사와 함께 스님을 방문했다. 스님은 의사와 간호사와 함께 온 필자를 보더니 "나는 몸에는 병이 없고 마음에 병이 있으니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래서 필자는 "대체 무슨 병입니까?"라고 물었더니, "자이산 중턱에 18m 높이의 부처님을 조성해 근 70년 동안 웃음을 잃어버린 몽골 사람들에게 웃음을 안겨주고 싶습니다"라고 답했다. 필자는 구루데바 스님에게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 드리겠다"고 말했다.



몽골 국제평화공원의 23m 대불.

2003년 2월부터 시작된 세계불교공원 건립은 이듬해인 2005년 9월 봉불식을 거행했다. 이 봉불식의 계기가 현재 한 · 몽 불교교류의 중심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몽골 자이산의 세계불교공원 조성은 이렇게 구루데바 스님의 원력과 몽골정부, 한국 스님과 불자들에 의해 완성됐다.

울란바트로 자이산 국립공원에는 23m높이의 석가여래대불이 들어섰으며, 그 앞에 종각과 북각이 건립돼 한국과 몽골 교류의 상징적인 탑을 형성했다.

대불은 한국 사람들의 몸체에 몽골 사람의 얼굴을 한 부처님의 모습으로 항마구제의 수인을 한 석가모니 본불로써 외세의 독선주의 종교를 경계하고 자국민의 불교신앙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불과 함께 조성된 500관 범종은 어두운 세계를 밝히는 사랑의 종소리이고, 2m의 큰 북은 무명을 타파하는 지혜의 북소리이다. 현재 이 대불은 몽골의 명물이다.

당시 봉불식에는 필자와 더불어 의암 스님, 불교진흥원 홍승희 이사장, 대현그룹 손현수 회장, 다시쵸링사원의 담마자브 스님 등 양국의 스님과 신도 5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 몽골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스님의 사리탑과 비석을 국립공원에 조성했다. 몽골은 국민의 70%이상이 불교신도이다. 하지만 요즘 한국 개신교의 목사, 집사, 전도사가 집중적으로 몽골에 들어와 많은 몽골사람들이 개신교로 전향을 하고 있다.

몽골은 18세기까지 전통적인 불교국가였다. 그러나 소련 공산당에 70년간 지배를 받으면서 종교의 자유를 전시하는 간단사라는 사찰 한곳만 존재했었다. 이후 소련이 해체되고 대의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종교의 자유가 이뤄졌고 한국에서도 몽골에 고려사를 세우고 달마센터를 건립중에 있다. 몽골불교대학교와 한국은 현재까지 학문결연을 맺고 활동 중에 있다. 하지만 240여 개 교회가 몽골에서 활동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숫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제평화공원의 낙성법회는 한 · 몽 불교 교류와 몽골 불교중흥을 위해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보인다. 구루데바 스님의 원력과 한국과 몽골 간의 불교 교류의 상징인 세계불교공원을 생각하며 많은 한국 불자들도 불교 포교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찬덕연등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영가등



왕생극락접등

불교(佛教)에서의 백중일 유래(由來)는 효성이 지극한 목련비구(目蓮比丘)가 지옥에 떨어진 모친(母親)의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 오미(五味)를 가진 음식과 온갖 과실(果實)을 갖추어 부처님께 공양(供養)을 했다는 <우란분경(盂蘭盆經)>이라는 불경(佛經)의 이야기에서 연유(緣由)합니다.

※ 백중을 맞이하여 영가등 · 왕생극락접등 주문 받습니다.

아름다운 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종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1. 내열 A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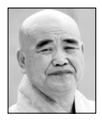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행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2. 경제성 비교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3.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4.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5.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향봉 스님의 육조단경 강의 ⑥

연기 · 중도는 수레 이끄는 두 바퀴

◆설마하반야바라밀(說摩訶般若波羅蜜)

"지금 이미 삼보에 스스로 귀의해 모두들 지극한 마음이니, 수행자를 위해 마하반야바라밀법을 설하니라. 수행자들이여, 비록 마하반야바라밀법을 생각은 하나 알지 못하므로 혜능이 설명해 주리니, 각기 잘 들을지니라. 마하반야바라밀이란 서쪽 나라의 범어로, 당나라 말로는 '큰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른다'는 뜻이다.

이 법문은 모름지기 실행할 것이요, 입으로만 외우는 데 있지 않으니, 입으로 외우고 실행하지 않으면 꼭두각시와 허깨비와 같으나, 닦고 행하는 이는 법신과 부처와 같으니라. 어떤 것을 마하라고 하는가? 마하란 크다는 뜻이다. 마음이 한량없이 넓고 커서 허공과 같으나, 다만 빈 마음으로 앉아 있지 말지니, 바로 무기공(無記空)에 떨어지느니라.

허공은 능히 일월성신과 대지산하와 모든 초목과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과 악한 법과 착한 법과 천당과 지옥을 그 안에 다 포함하고 있으니 세상 사람의 자성이 빈 것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자성이 만법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큰것이며, 만법 모두가 다 자성인 것이다. 모든 사람과 사람 아닌 것과 악함과 착함과 악한 법과 착한 법을 보되, 모두 다 버리지도 않고 그에 물들지도 아니해 마치 허공과 같으므로 크다고 하나니, 이 것이 곧 큰 행위이니라.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 외우고 지혜 있는 이는 마음으로 행하느니라. 또한 미혹한 사람은 마음을 비워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을 크다고 하나, 이도 또한 옳지 않으니라.

마음이 한량없이 넓고 크지마는 실행하지 않으면 바로 작은 것이니, 입으로만 빈 말을 하면서 큰 행을 닦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어떤 것을 반야라고 하는가? 반야는 지혜이니, 어느 때나 생각마다 어리석지 않고 항상 지혜를 행하는 것을 바로 반야행이라 하느니라. 한 생각이 어리석으면 곧 반야가 끊기고 한 생각이 지혜로우면 바로 반야가 나거늘, 마음속은 항상 어리석으면서 '나는 닦는다'고 스스로 말함은 어리석음을 여읠 수 없느니라. 반야는 형상이 없나니, 지혜의 성품이 바로 그것이니라.

어떤 것을 바라밀이라고 하는가? 이는 서쪽 나라(인도)의 법음(法音)으로서 '저 언덕에 이른다'는 뜻이니라. 뜻을 알면 생멸(生滅)을 여의나니,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나서 물에 파랑이 있음과 같으니, 이는 곧 이 언덕이요 경계를 떠나면 생멸이 없어서 물이 끊이지 않고 흐름과 같으니, 바로 저 언덕(彼岸)에 이른다고 이름하며, 그러므로 바라밀이라고 이름하느니라.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 외우고 지혜로운 이는 마음으로 행한다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 외우고 지혜로운 이는 마음으로 행하나니, 생각할 때 망상이 있으면 그 망상이 있는 것은 곧 진실로 있는 것이 아니며, 생각 생각마다 행한다면 이것을 진실이 있다고 하느니라. 이러한 법을 깨달은 이는 반야의 법을 깨달은 것이며 반야의 행을 닦는 것이니라. 닦지 않으면 곧 법부요 한 생각 수행하면 법신과 부처와 같으니라.

수행자들이여, 번뇌가 바로 보리이니, 앞생각을 붙들어 미혹하면 곧 범부요 뒷생각에 깨달으면 바로 부처이니라.

수행자들이여 마하반야바라밀은 가장 높고 가장 으뜸이며 제일이라, 머무름도 없고 가고 옴도 없으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다 이 가운데로부터 나와 큰 지혜로써 저 언덕(彼岸)에 이르러 오음의 번뇌와 진로를 타파하나니, 가장 높고 가장 으뜸이며 제일이니라.

가장 으뜸임을 찬탄해 최상승법을 수행하면 결정코 성불해, 가는 것도 없고 머무름도 없으면 오는 것 또한 없나니, 이는 정과 혜가 함께해 일체법에 물들지 않음이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이 가운데서 삼독을 변하게 해 계 · 정 · 혜(戒 · 定 · 惠)로 삼느니라.

수행자들이여, 나의 이 법문은 팔만사천의 지혜를 따르느니라. 무엇 때문인가? 세상에 팔만사천의 진로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진로가 없으면 반야가 항상 있어서 자성을 떠나지 않느니라. 이 법을 깨달은 이는 곧 무념이며, 기억과 집착이 없어서 거짓되고 허망함을 일으키지 않나니, 이것이 곧 진여의 성품이니라.

지혜로써 보고 비춰 모든 법을 취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나니, 곧 자성을 보아 불도(佛道)를 이루느니라.

선지식들이여 만약 깊은 법의 세계에 들고자 하고 반야삼매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바르게 반야바라밀의 행을 닦을 것이며 오로지 <금강반야바라밀경> 한 권만 지니고 수행하면 바로 자성을 보아 반야삼매에 들어가느니라.

이 사람의 공덕이 한량없음을 마땅히 알아야 할지니, 경에서 분명히 찬탄하였으니, 능히 다 갖춰 설명하지 못하느리라. 이것은 최상승법으로서 큰 지혜와 높은 근기의 사람을 위해 설법한 것이니, 만약 근기와 지혜가 작은 사람이 이 법을 들으면 마음에 믿음이 나지 않나니, 무엇 때문인가?

비유하면 마치 큰 용이 큰 비를 내리는 것과 같아서 염부제에 비가 내리면 풀잎이 떠내려가고 큰 비가 큰 바다에 내리면 불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것과 같으니라. 대승의 사람은 <금강경> 설하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열려 깨달아 아나니, 그것은 본래 성품이 스스로 반야의 지혜를 지니고 있어서 스스로의 지혜로써 보고 비춰서 문자를 빌리지 않느니라.

비유하건대, 그 빗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님과 같으니, 원래 용왕이 강과 바다 가운데서 이 물을 몸으로 이끌어 모든 중생과 모든 초목과 모든 유정 · 무정을 다 윤택하게 하고 그 모든 물의 여러 흐름이 다시 큰 바다에 들어가서 바다는 모든 물을 받아들여 한 몸으로 합쳐지는 것과 같아서 중생의 본래 성품인 반야의 지혜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마하반야바라밀을 청화 스님께서는 '위 없는 진리는 설하다'로 번역하셨습니다. 직역하면 '커다란 지혜로 건너감을 말하다'가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사바세계요, 고해(苦海)이며 화택(火宅)이자, 예토(穢土)라고 지칭해왔습니다.

하여, 부정적인 의미로 점철된 세계를 이 언덕(此岸)이라 하고 지향해 이뤄내야 할 파라다이스적 이상향을 저 언덕(彼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피안의 세계는 해탈의 세계이며 극락정토이자, 열반락과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다함이 없는 위없는 세계를 말합니다.

불교에는 신이 없습니다. 메시아도 없습니다. 깨달음에는 이르는 길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실천 수행을 으뜸으로 삼고 있습니다. 스스로 수행해 자신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깨달음을 이뤄 부처가 되는 것이 수행의 최고 목표입니다.

종교 신앙을 크게 둘로 나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을 중심으로 하는 구원의 종교인데 이를 일러 유신론적(有神論的)인 타력신앙(他力信仰)으로 칭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깨달음의 종교인데 이는 무신론적(無神論的)인 자력신앙(自力信仰)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방법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제설법에서는 깨달음에 이르는 성스러운 여덟 개의 길이라 해 팔정도(八正道)를 가르치고 있고, 이 언덕(此岸)에서 저 언덕(彼岸)에 이르는 길인 육바라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밀은 산스크리트어의 파라미타의 음사입니다. 중국에서는 도피안(到彼岸)이라고도 번역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번민의 세계를 이 언덕으로 말한다면 깨달음을 성취한 대자유인의 세계를 저 언덕(彼岸)이라 해서 양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언덕의 세계가 따로 존재하고 저 언덕의 세계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언덕이 저 언덕이요, 저 언덕이 이 언덕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저 언덕이 이 언덕이 될 것이요, 마음이 열리면 이 언덕이 곧 바로 저 언덕이 되기 때문입니다. 살아 있는 현생의 오늘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육조 스님의 말씀처럼 극락과 지옥이 이 마음의 작용으로 수시로 바뀌어 가며 하루에도 몇 차례씩 살아서 윤회하고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차안과 피안은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열고 사느냐, 닫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많은 제자들에게 쥔 주먹을 펴서 보이며 이렇게 쥔 주먹을 편 것과 같이 간단한 논리와 표현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나 지혜를 갖춘 자는 알아들을 수 있고, 이 말에 의해 행복과 자유를 느끼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물처럼, 공기처럼 널려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졸리면 자는 것처럼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와 나를 차별두지 말 것이며, 소유욕은 한 템포씩 늦춰가며 사는 것입니다.

부처가 말하는 극락세계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마음만 바꾸면 지금, 바로 여러분이 있는 곳이 극락인 것입니다. 불교는 신을 중심으로 한 종교가 아니라, 마음을 중심으로 한 깨달음의 종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셈치고 열반세계의 4가지 덕목인 상락아정(常樂我淨)에 대해 짧으면서도 바른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열반경>에 등장하는 상락아정에 대해 그 뜻을 알지 못해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는 삼법인(三法印)이 있습니다. 제행무상(諸行無常)과 제법무아(諸法無我)그리고 일체계고(一切階苦)가 바로 삼법인을 뜻합니다. 영원히 변치않는 진리라는 뜻에서 법인(法印)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탈의 세계인 열반을 성취한 사람에게는 제행(諸行)은 무상(無常)한 것이 아니라 제행은 유상(有常)하다는 것입니다. 일체는 다 괴로운 것(一切階苦)이 아니라 일체는 다 즐거운것(一切階樂)이라는 것입니다. 제법(諸法)에는 무아(無我)가 아니라 모든 것이 나 아님이 없다(諸法有我)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사바예토가 아니라 극락정토라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이면 이르는 곳마다 극락이자 정토이며, 너와 나의 경계가 사라져 형제이자 이웃이며 둘이 아닌 진리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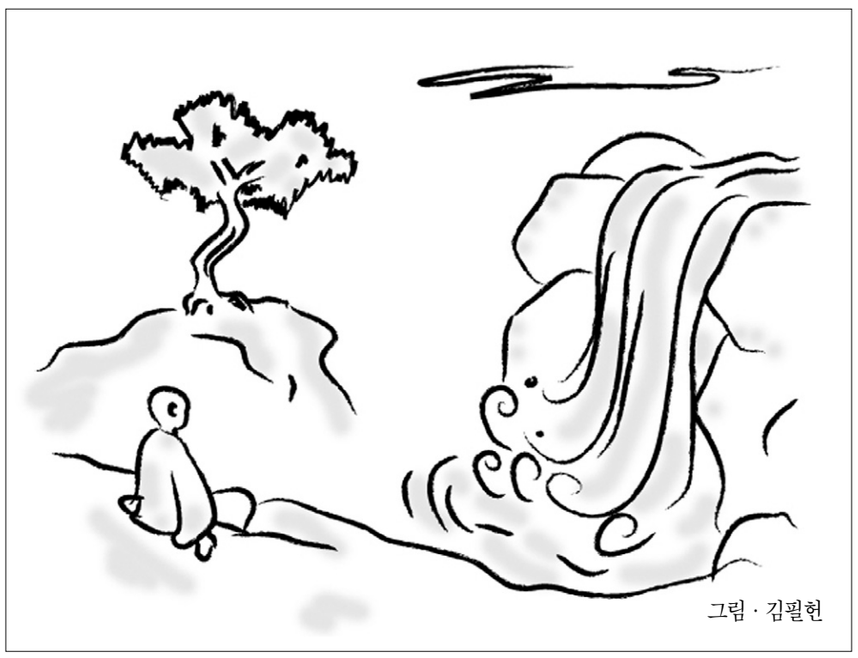


그림 · 김필헌

주관과 객관을 초월하면 주관을 주관대로 객관은 객관대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인 것이며 누구에게나 좌우는 없는 것이며, 누구라도 이르는 곳마다 주인(數處作住)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혜능 선사가 강조하고 있는 커다란 지혜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에 이르는 바라밀은 입의 노동에 있지 않고, 실천수행의 정진력에서 비롯됨을 알아야 합니다.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 외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으로 몸으로 행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혜능 선사는 '앞생각에 붙들려 미혹하면 범부요, 뒷생각에 깨달으면 바로 부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반야(지혜)와 바라밀(수행법)에는 기적도 가피도 영험설화도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연기 법칙과 두변을 떠난(無边中心) 중도사상만이 반야바라밀을 이루는 두 개의 수레바퀴이자 새의 두 날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끝으로 시원한 일화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선지식 일휴 선사가 사미승 한명과 생선 굽는 식당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일휴 선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생선 굽는 냄새가 참으로 구수하구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어린 사미승은 실망과 좌절감을 느끼며 한참을 뒤따라오다 스승인 일휴 선사에게 말했습니다.

"큰 스님으로 모셨는데 생선 굽는 냄새에도 자유롭지 못하시니 실망스럽습니다."

그러자 일휴 선사가 사미승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 같이 답했습니다. "나는 생선 굽는 냄새를 그 식당 앞에서 버려두고 왔는데 너는 그 냄새를 여기까지 들고 왔구나."

정리=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쾌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귀신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제 권하기가 쉽습니다.!

* 귀장술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매매 • 이동운 보는 법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귀장술12신궁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암시록
* 집안 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자녀액운 착귀탈 정단법
* 취직시험 • 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선거 후보당선 벼슬하는 여부 판단법
* 관청 • 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여부
* 소송 • 관재사의 승패 판단법
* 보고싶은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일
* 가출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도주 • 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원귀법
* 12신궁에 암장된 악령귀신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투시법
* 前生의 夫婦인연 원침살이 現生에 미치는 현상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빙의착귀신론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환생 귀신작해론
* 산소 • 무덤에 관해서 [음택법]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 법

글 • 백초스님
상 • 하권 / 720면 / 정가 각 120,000



百超律歷學堂
입금 계좌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비법전수중
(02) 3667-4446
010-3813-4443

요절복통 여래네 집

#16. 동병상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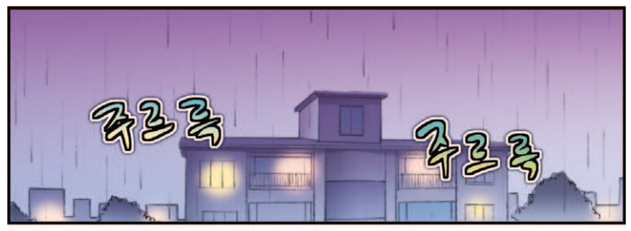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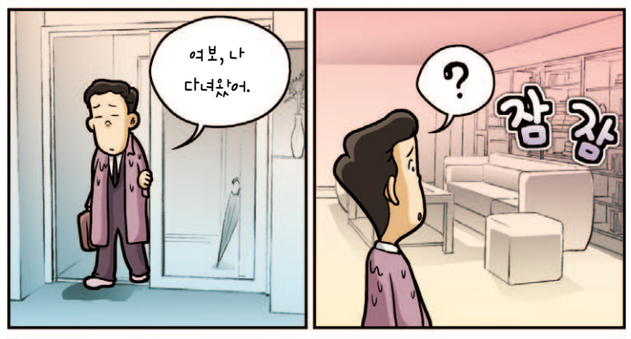
스튜디오 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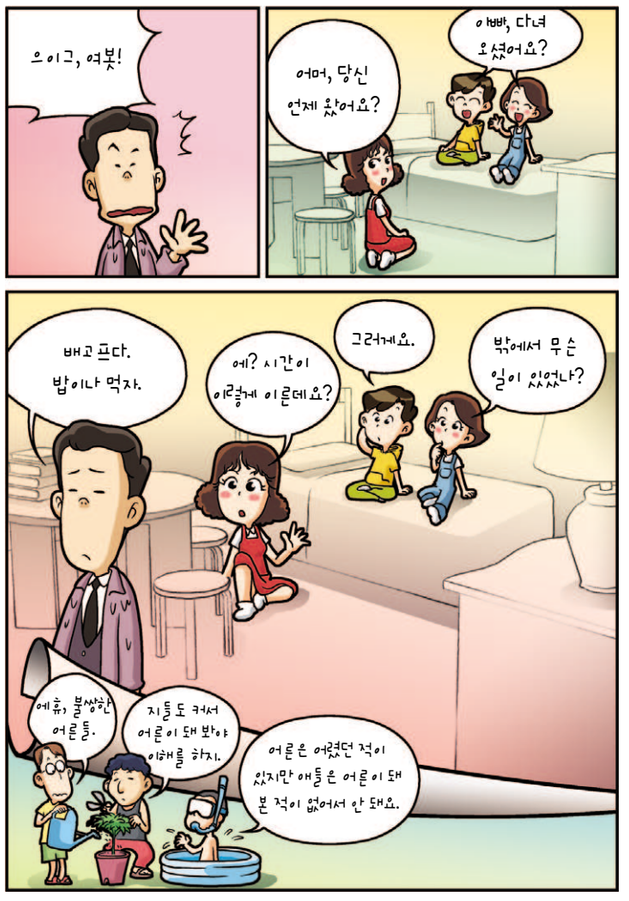












이주일의 화두

항상 예절을 잘 지키고
윗사람을 높이는 사람에게는
나이와 아름다움, 행운과 힘
네 가지 복이 더하고 자란다.

법구경



한국불교의 미래는 선불교인가 초기불교인가?

초기불교 VS 선불교

불교 전반에 대한 탄탄한 지식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흥미진진하게 써내려간 한 편의 소설같은 책.

현대 한국 불교를 관통하는 두 개의 흐름, 전통적인 선불교와 새롭게 유행하는 남방불교의 한판 대결!

한국사회에서 선불교는 한계에 봉착한 것인가?
남방불교의 득세는 일시적 유행인가, 아니면 한국불교의 미래인가? 보다 본질적으로, 한국 초기불교주의자들의 주장은 교리적으로 올바른가?

방경일 저 | 신국판 변형 | 296쪽 | 값 13,000원



『티벳 사자의 서』에 의한 중음에서의 해탈법

다음 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죽어서 다음 생을 받기까지 49일 동안 망자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며, 어떻게 천도해야 망자를 해탈 또는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할 수 있는가?

이 책은 중음의 기간 중 단계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의 의미는 무엇인지, 천도를 하는 이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망자를 어떻게 경책해야 하는지 등을 담고 있다.

석법성 편역 | 신국판 변형 | 144쪽 | 값 8,000원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붓다북 www.buddhabook.co.kr

현대불교 독자가 읽은 이 책

오리진이 되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창조경영학교를 개교해 화제를 모은 강신장씨의 최신 저서이다. 인문학은 물론 음악과 미술이 만나 기업현장에서 어떻게 창조가 실현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실제 기업현장에서도 응용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도 있다.

먼저 담배에 대한 신제품 개발 아이디어부터 제시한다. 담배 한 갑 20개비 가운데 골드필터와 핑크필터를 넣어둘 것을 제안한다. 담배를 건낼 때 골드 · 핑크필터는 받는 이에게 새로운 인상과 추억을 안겨줄 것이라고. 물론 비즈니스 대화가 화기애애하게 조성되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저자는 창조의 원리를 2가지로 제시한다. 둘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 가지면 운명이 바뀐다고 역설한다. 하나는 아픔을 들여다보는 힘, 또 하나는 기쁨을 보태는 힘이다. 먼저 한

사례로 들려주는 창조경영

경희의 스팀청소기는 물걸레질하는 주부들의 아픔을 보았기 때문에 창조됐고, LG의 메가폰은 하루 다섯 번씩 이슬람 성지 메카를 향해 기도해야 하는 무슬림의 고민을 보았기에 가능했다는 해설이다. 기쁨을 보태는 힘에는 융합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대표 사례로 일본 롯데의 신제품 핏츠 껌을 예로 든다. 2009년 3월 출시 이후 3주 동안 2000만 개가 팔렸고, 급기야 모자라서 한동안 물건을 못 팔았다. 비결은 종전의 딱딱한 껌에 대한 아픔을 극복하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향기와 명함 크기의 심플한 크기, 그리고 겉 뚜껑을 열면 껌을 바로 입에 넣을 수 있는 편리성 때문이다.

영국 프로축구의 성공사례도 올라있다. 축구 종주국 영국은 1990년까지 강력한 프로리그가 없어서 독일의 분데스리가, 이탈리아의 세리에A, 스페인의 프리메라리가에 밀려 주변국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1991년 새로운 리그를 출범시킨 이후 세계 최고의 축구시장을 만들었다. 이를 위해 모든 것을 개방했다. 20개 구단 가운데 3분의 1이 외국인 구단주다. 감독은 50%, 선수는 60%가 외국인이다. 대표적인 명문팀 첼시는 개막전 출전선수 전원을 외국인 선수로 내보낸 적도 있다. 또 평가를 엄격하게 했다. 1부 리그인 챔피언십 리그에는 24개 팀이 참여하는데, 시즌이 끝나면 하위 3팀이 2부로 강등된다. 반대로 2부의 1, 2위 팀은 자동으로 1부 리그로 승격된다. 나머지 1팀 승격은 2부 3~6위 팀의 플레이오프 승자가 차지한다. 1부에서 2부로 강등당하는 건 연봉이나 명예면에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도 같다. 따라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절체절명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영국 프리미어리그는 어떤 경쟁에도 몸을 사리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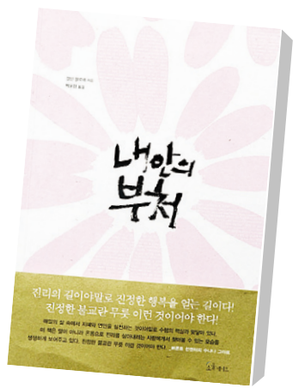
<오리진이 되라>의 저자 강신장씨는 26년간 삼성의 인력개발원, 회장 비서실, 구조조정본부, 경제연구소 등에서 일했다. 지난 1월 삼성을 나와, 현재 수출 비중 98%, 70개 국에 3000개의 대리점과 함께 일하는 헬스케어 컴퍼니 (주)세라젬의 사장으로 있다.

오리진이 되라 | 강신장 지음 | (주)쌤앤파커스 | 1만4000원

진정화

자유롭지 않다면 누구든 수감자

수감자 캘빈 말로네의 감옥에서 만난 부처 이야기



바깥세상에서는 불쾌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도피처들이 많다. 그 상황에 정면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할 수도 있다. 잊기 위해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숲을 거닐 수도 있다. 아니면 먹고 싶은 것을 먹거나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다.

하지만 감옥에서는 피할 길이 없다. 감옥은 타인의 기분 따위는 아랑곳 않는다. 폭력배들과 사기꾼, 다혈질에 포식자 같은 사람들, 무식하고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 성실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뒤섞여 있다.

가중 폭행죄로 20년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있던 캘빈 말로네는 가장 자유롭지 못한 곳에서 가장 큰 자유를 얻어냈다. 그가 고결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진리의 길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얻는 것임을 터득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부정성의 극한을 보여주는 표본 같은 감옥에서, 이 감옥을 벗어날 수 있는 고귀한 가르침을 만났다. 바로 부처님이 가르친 진리의 말씀들이었다.

캘빈 말로네는 수감 생활을 하면서 불교 수행을 시작했고 변화된 자신의 모습과 깨달은 점들을 <내 안의 부처>에 담았다.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시각에 심오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다. 나는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아니 어쩌면 환경 때문에 더 따스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 돼 갔다. 그리고 내가 부처의 근본적인 가르침들을 상당히 잘 파악하고 있다며 자만하는 순간, 수감자나 교도관들이 마치 스승처럼 내게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일깨워줬다. 어디나 그렇듯 감옥에도 수많은 스승들이 있다. 수행의 기회도 수없이 많다."

이렇듯 감옥이라는 공간에서 저자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은 마음의 감옥에 갇혀 사는 현대인들에게도 엄청난 가르침과 위안을 준다.

캘빈은 강철 감옥이든 자신이 만들어낸 마음의 감옥이든, 이 감옥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한 수감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감옥생활을 시작한 지 3개월 후, 캘빈은 교도소 내 예배당에서 도서관 업무도 함께 보는 일자리를 얻게 되고 그 곳에서 불교서적을 찾던 노만이라는 젊은 청년을 만난다. 캘빈은 노만으로부터 받은 <쉬운 영어로 된 주의집중>을 읽고 푹 빠져버리고 만다. 그 뒤 노만과 감옥에서 '부디스트 타임'이라는 수행모임을 만들어 수행을 하기 시작한다. 캘빈은 여기서 배우고 느낀 것들과 부처님의 가르침들을 온전하게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한다.

가끔 감옥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캘빈에게도 분노와 다툼 같은 역경이 다가오지만 그는 실천의 힘에 의지해 수행을 지속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느낀 기쁨과 평온을 자비의 형태로 다른 수감자들에게 되돌려 준다. 그야말로 캘빈은 가장 척박하고 가장 불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고귀한 진리의 꽃을 피워낸 것이다. 바로 '진흙 속의 연꽃'을 말이다.

26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책에서는 캘빈이 동성애자, 스킨헤드, 아리안인, 인종차별 주의자 등 다양한 종류의 인간군상을 만나며 그들로부터 배우기도하고, 그들에게 불교를 전해주기도 한다. 캘빈의 눈을 통해 봤을 때 어떠한 것으로도 구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수감자들에게도 불성(佛性)은 있었다.

저자 캘빈이 선(禪)스승은 아니다. 하지만 그는 책에서 부처가 가르친 진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 진리를 그의 행동 속에 통합시키기 위해 온 마음으로 정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내 안의 부처>의 저자인 캘빈 말로네는 1951년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시골출신으로 노예의 손자였던 아버지와 독일 뮌헨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수감 전 왈라왈라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며 유럽 역사를 공부하고 유럽 전역을 폭넓게 여행한 캘빈은 감옥에 들어간 후부터 불교 수행에 들어갔으며, 이후 자신이 감옥 생활에서 경험한 것들을 글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는 또 불교잡지나 소식지에 많은 글을 싣고, 출옥 후의 적응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데도 일조했으며, 전국 감옥에 있는 불교신자들을 위해 염주를 만들기도 했다. 그는 2009년 10월 조기 석방돼 현재 불교소설을 집필하고 있다.

내 안의 부처 | 캘빈 말로네 지음 | 소울메이트 펴냄 | 1만2000원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불교 A에서 Z까지

초격 스님이 전하는 불교의 모든 것

물질문명과 몸에 대한 과도한 집착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극심한 빈부격차, 종교간 갈등, 환경 파괴 등 사회적 병폐가 일어나고 있다. 서구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주의를 표방한 불교와 명상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찍이 대안을 마련해 놓은 사람이 있었다. 바로 부처님이다.

선견지명이 있었던 부처님은 빈부 격차 문제는 회향의 가르침으로, 환경 문제는 불살생(不殺生)의 가르침으로 해결했다. 온갖 벌레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는 여름철, 혹 길을 걷다가 실수로 밟아 죽일까 염려돼 선방에 앉아 하안거를 행하는 스님들의 마음이 구체적 예다.

파주 보광사 주지 초격 스님은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중생들이 모두가 '나' 자신임을 알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놓았다. 그래서 '불교가 곧 대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말한다.

많은 이들이 불교에 관심을 두려고 하지만 수천 년 간 이어져 발전해 온 종교라 교리 이해와 수행법이 만만치 않다. 여러 불보살들과 불교 경전, 예법들, 각종 장엄물이 지닌 의미가 쉽게 다가오지 않아 그만 관심을 거두고 만다.

이러한 점이 아쉬웠던 초격 스님은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불교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저절로 절로 향하는 마음>을 펴냈다.

수년간 불교교양대학에서 교육해오던 경험들을 모은 이 책에는 사찰이 갖는 의미부터 제석천, 범천, 팔부 신중의 호법신중, 공양의 종류, 부처님의 일생,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의 재와 불상 및 부처님의 10대 제자 등 불교의 A to Z 가 담겨있다.

가능한 한 전문 용어는 풀어쓰려고 노력했으며, 가상의 두 보살님을 설정하고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구성해 불교 입문자들이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저절로 절로 향하는 마음 | 초격 지음 | 더 북스 펴냄 | 1만2000원

이나은 기자

명상으로 행복한 나이 들기

손혜진이 제안하는 명상법



행복하게 나이 드는 명상의 기술
손혜진 지음
마고북스 펴냄|1만3000원

명상을 하면 평온한 마음, 풍부한 감성, 활기찬 정신을 얻게 된다. 그리고 나이든 사람들이 하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명상의 기본정신이 '행복하게 나이 드는 기술'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행복하게 나이 드는 명상의 기술>은 명상이 나이 듦으로 인해 후반생에 맞닥뜨리게 될 신체적, 정신적 노화 징후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지혜와 대처방안을 나눠줄 수 있는지 탐색한다.

이 책은 노화에 관련된 제반문제인 쇠퇴와 질병, 의존과 우울, 치매와 죽음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면서, 이들 문제에 대한 인식전환과 대처방안을 명상적 지혜와 실천수행법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독자들이 보다 쉽게 명상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실제 명상수행자들의 구체적인 체험담과 명상 노하우를 담았으며, 누구든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명상수행방법을 그림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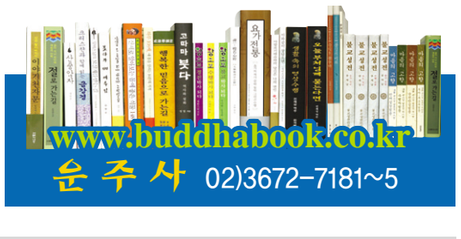
행복하게 나이 드는 명상의 기술 | 손혜진 지음 | 마고북스 펴냄 | 1만3000원

이나은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젊은 날의 깨달음	혜민	클리어마인드
2	누구 없는가?	법전	김영사
3	날줄 원각경	우승택	불광출판사
4	우리 모두는 인연입니다	일아	민족사
5	지리산 스님들의 못 말리는 행복 이야기	천진/현현	불광출판사
6	이순간	능행	휴
7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8	초기불교 VS 선불교	방경일	운주사
9	경허선사 일대기	현담	선
10	한권으로 읽는 아함경	홍사성	불교시대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장보고 정신으로 한중일 우호 다진다

장보고



해상왕 장보고가 21세기 글로벌 리더로 주목받고 있다. 장보고는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활발한 국제 무역활동을 전개하며, 삼국의 불교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한 장자(長者)였다. 그는 신라와 일본의 구법승들의 당 유학활동을 돕고, 돛이 닿는 곳마다 관음신앙을 바탕으로 법화사를 세웠다. 1200년 전 장보고가 청해진을 중심으로 삼국의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한 데에도 법화사상의 영향이 컸다.

21세기 한 · 중 · 일 불교계는 장보고 사상을 계승해 불교문화교류와 경제발전을 꿈꾸고 있다. 한국 해상왕 장보고기념사업회(상임이사 천인봉)는 중국 적산그룹, 일본 산사지역 문화관광협력회와 함께 6월 21~24일 장보고가 불사한 중국 산동성 적산 법화원에서 한중일 불교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했다.



중국 산동성 적산 법화원에서 진행된 한중일 역사 우호 전승 기복법회 참가자들.



왼쪽부터 시몽 스님, 야마가타케 스님, 쉬옌쉐 스님이 국제 우호를 기원하는 플래카드에 서명하고 있다.





한국 대표단은 23~24일 산동성 위해 화하성(오른쪽), 연태시 남 산 선 원(위)을 방문해 한중 불교 간 활발한 교류를 펼칠 것을 다짐했다.

#한중일 최초 우호교류 문화 포럼

해상왕 장보고를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한 · 중 · 일 국제우호 문화학술포럼'이 6월 22일 중국 산동성 영성시 석도 적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 대표로 △해상왕장보고연구회 김문경 회장(숭실대 명예교수)이 '9세기 일본천태삼승의 입당과 신라해상' △박현규 순천향대 교수가 '<당무염선원비(唐無染禪院碑)> 신자료 소개와 신라인 김청의 활동 의의' △김병곤 동국대 사학과 외래교수가 '삼국과 통일신라시대 중국으로의 구법 활동'을 발표했다. 중국에서는 △산동대학한국학원 유보전 부원장이 '한 · 중 이민의 역사적 고찰' △산동대학 철학과 진견 교수가 '천태종의 해양성(海洋性)'을 발표했다. 일본은 산사지구문화관광추진협의회 오오바 노보루 회장이 '엔닌 스님 연구과정 및 삼국 관계 발전'을 설명했다.

김문경 교수는 <입당구법순례행기>를 통해 장보고에 대해 직접 언급한 일본 엔닌 스님(圓仁, 794~864) 등 일본 천태 3세 좌주(座主)와 신라 상인의 밀접한 관계를 조명했다. 김 교수는 "엔닌 스님이 838년 입당 후 구법순례를 하는 동안 적산 법화원에서 신라인 스님과 신라인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중국 적산 법화원(法華院)은 장보고가 건립한 사찰로 일본 천태종 사 엔닌 스님이 머물렀던 한 · 중 · 일 삼국 불교문화교류의 상징적인 장소이다.

김문경 교수는 "엔닌 스님 등 일본의 구법승들이 당에 들어오는 데는 신라해상과 신라거류민의 도움이 매우 컸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엔닌 스님이 당나라에 있는 동안 신라인들은 엔닌 스님의 공험(公驗) 취득 업무를 비롯해, 일본 견당사의 귀국, 청익승(請益僧), 유학승, 상인들의 왕래에서 성지 순례, 선박 알선, 당 곳곳의 신라원과의 연락, 서신교환, 체재경비 전달, 귀중품 보관 등을 도왔다"며 "당나라의 불교말살정책인 회창법난(會昌法難) 속에서도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던 것도 신라인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김문경 교수는 "8~9세기의 신라와 당은 불교, 학문, 미술, 공예 등을 비롯해 민간 교역활동이 활발히 전개됐다"며 "선승 1701명의 전등법계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에 외국승 43명 중 42명이 신라승이고, 사적에 보이는 승려 이외에도 사적에 이름이 남지 않는 허다한 구법승이 있었음에 주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현규 순천향대 교수는 적산 법화원 외에 신라와 당의 우호교류를 상징하는 산동반도 위해 문등시 곤유산(崑崙山) 무염선원(無染禪院) 사찰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박 교수는 "최근 <당무염선원비(唐無染禪院碑)> 복원 당시 발견된 파편에서 신라인 김청(金淸)의 활약상이 기록돼 있다. 김청도 해상네트워크를 활용해 커다란 부를 축적하고 무염선원의 중창 역사에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박현규 교수는 "아직 폐사지인 무염선원을 적산 법화원처럼 한 · 중 우호 교류를 상징하는 사찰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보고사업회 · 적산그룹 · 산사관광협 한 · 중 · 일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현 합의

#한 · 중 · 일 문화교류 MOU체결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중국 적산그룹, 일본 산사지구문화관광협력회는 6월 22일 중국 산동성 적산 법화원에서 삼국 우호증진과 문화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각국 사업단 대표들은 "1200년 전 한 · 중 · 일 불교교류를 통해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실현한 해상왕 장보고와 자각대사 원인 스님의 우호정신과 불교발전 등 문화교류에 기여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켜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사표로 자리매김할 것"을 약속했다. 또, 국민간의 우호증진을 기원하는 타종식,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현을 위한 학술 및 문화교류, 국제공동연구, 학술회의, 전통 문화공연, 체육행사, 유적지 답사 등에도 합의했다.

한 · 중 · 일불교교류대회는 올해 적산 법화원에서의 개최를 시작으로 2011년 한국, 2012년 일본 순으로 열린다. 한국에서의 행사는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가 중국에서는 적산그룹과 산동성불교협회가, 일본에서는 산사지역문화관광협력회가 행사를 주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삼국의 불자들은 '제1회 한중일 역사 우호 전승 기복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한국대표단 단장으로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 중국 적산 법화원 주지 쉬옌쉐 스님, 일본 입석사 주지 야마가다케 스님 등이 참석했다.

시몽 스님은 "적산 법화원이 앞으로도 삼국을 항해하는 사람들의 자유왕래를 위한 귀의처가 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장보고 정신을 삼국이 계승 발전 시켜나가자"고 말했다.

일본 야마가타케 스님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지만 정신문화는 발전이 더디다"며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 문화, 정신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삼국 우호증진에 힘쓰자"고 밝혔다.

중국 산동성=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장보고 법화사상은 삼국 화합 바탕



시몽 스님

"장보고의 해상활동에 근간이었던 법화사상은 한반도를 비롯한 한 · 중 · 일 삼국이 화합의 길로 나아가는 바탕입니다."

6월 21~24일 한 · 중 · 일 문화교류행사 한국대표단 단장으로 참석한 시몽 스님(전라남도불교협회 회장, 백양사 주지)은 장보고의 법화사상에 주목했다. 시몽 스님은 "해신 장보고는 대륙을 제패한 징기스칸과 견줄 만한 인물이다. 그의 활동상과 사상은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관문에 위치한 한반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장보고의 '회삼승귀일승(會三乘歸一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보고가 삼국의 문화 및 경제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데는 불교와 경제협력을 이끌어 낸 업적이 높이 평가된다. 시몽 스님은 "장보고는 법화사상, 관세음보살 신앙을 바탕으로 해양 교역활동을 성공적으로 펼친 인물이다"며 "1200년이 지난 지금도 한 · 중 · 일이 법화사상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삼국이 장보고의 정신을 계승한다면 경제, 문화, 정치적으로 민간차원의 공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몽 스님은 장보고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제주도 법화사 주지를 지냈다. 법화사 주지를 지내면서 장보고에 관심을 갖게 된 스님은 '장보고의 법화사상과 관음신앙' 등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제주도에서 법화사 폐사지 발굴사업을 17년간 전개했다. 스님은 "장보고는 신라 유학승을 지원해 구산선문을 개창한 조사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졌다. 장보고 정신의 계승으로 삼국의 불교문화교류 등을 위해 종단차원의 사업 전개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장보고는 완도의 한 어촌 마을에서 790년경 태어난 평민이었다. 신라사회의 혼란과 골품제도의 모순을 경험한 장보고는 20대 초반 당나라로 건너간다. 그는 30세를 전후해 당나라에서 연대장급에 속하는 지위에 오르게 된다.
당에 있던 장보고는 신라 근해에 해적이 출몰해 신라인을 노예로 잡아가는 것을 보고 해적 소탕을 흥덕왕에게 건의하게 된다. 이때 청해(오늘날의 완도)에 진을 설치하고 1년 만에 노예무역을 근절시켰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신라 · 당 · 일본을 비롯한 이슬람 상인들이 거쳐 오는 인도항로를 연결시키며 장보고 선단은 세계 최초의 종합무역상사로 자리매김하면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중일 삼국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2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www.yangjikukak.com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주얼드림 은(銀)의 모든것
주얼드림은 은(銀) 99%로 만든
염주 · 단주 · 금강저 · 반지 · 목걸이 · 핸드폰줄 등
기타 다양한 제품생산 기업입니다.
심플한 디자인으로 기도도 하고
건강체크도 해보고 일석삼조의 행복을...


JD152 – 25,000원


JD155 – 25,000원


JD169 – 25,000원


JD162 65,000원


JD121-1 (6.4mm) 68,200원
JD118 (10~10.5mm) 92,400원

구슬크기 : 16mm, 14mm, 12mm, 10mm, 8mm, 7mm, 6mm, 5mm, 3mm
(다양한 크기가 준비되있습니다.)

※ 제품소개를 지면으로 다하지 못하오니 연락주시면 책자(카다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각지역 대리판매점, 판매원을 모집합니다. (고수익 보장)
• 사찰내 판매점 환영합니다. (샘플 제공할 수 있음)

주얼드림 (석도) JEWELDREAM · 본사 공장 및 영업부 :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793-2번지
031) 969-9495 / 070-4120-9490
011-441-9495 www.silverdew.com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하택신회대사 현종기 육조대사의 법을 드날린 신간!
실증설 실증하지 않고는 설파할 수 없는 실증의 법문
방거사어록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말 밖의 말
선문염송16 세계 최대의 공안집 / 전 30권 중 16권 임제, 목주 선사편 공안참구의 길잡이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2-3494-2460

C790-202010.7.59:55AM페이지1(1,1)

최연의 산 이야기 <16> 두륜산 2



만세불파(萬歲不破)의 길지(吉地)인 대둔사를 품고 있는 두륜산.

서산대사의 출사로 조선불교가 되살아나다

〈出師〉

두륜산이 부려놓은 대둔사는 골짜기가 깊고 그윽해서 전란(戰亂)과 흉년과 전염병의 삼재(三災)가 침입하지 못하고 천추에 길이 보존될 수 있는 만세불파(萬歲不破)의 땅인데, 이러한 풍수지리적인 길지(吉地)를 서산대사께서 혜안(慧眼)으로 내다보고 '의발(衣鉢)'과 '대선사 교지'를 이곳으로 내려 보내 임진왜란 이후 혹독한 불교탄압에도 13종사(宗師)와 13강사(講師)를 배출하며 조선불교의 법통을 이어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렇듯 서산대사가 출사입신(出師立身)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조선시대는 고려의 과거제도를 이어받아 세종 때부터 승과(僧科)를 두었으나 연산군 10년에 억불정책이 강화되면서 폐지되었다가 명종의 모후 문정왕후(文定王后)가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할 때 보우대사(普雨大師)의 건의에 따라 승과가 부활되는데 명종 7년부터 21년까지 15년간 실시되었다.

이 때 승려들의 과거시험을 치르던 곳이 뚝섬 봉은사 앞 너른 들판인데 이곳을 승과평(僧科坪)이라고 한다. 수백만 평이나 되는 승과평은 봉은사 땅이었는데, 박정희정권 하에서 권력의 실세였던 이후락이 조계종 전국신도회장을 하면서 강남개발이라는 명분으로 토지를 수용하고 그 대가로 장충동에 있는 재향군인회 건물과 맞바꾸어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교사로 사용하고 있다.

승과(僧科)와 잡과(雜科)는 3년에 한 번씩 치러지니까 4번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첫 번째 선과(禪科)에 서산대사가 장원으로 급제하게 된다.

그 후 서산대사는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의 양종판사(兩宗判事)를 6,7년 맡았다가 직책을 버리고 운수행각을 일삼으며 금강산, 태백산, 오대산 등지에서 수행을 하다가 만년에는 묘향산에 주석하였다. 서산(西山)이라는 호도 서쪽에 있는 산인 묘향산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고 해서 서산이라고 했다.

그런데 서산대사가 일흔 살 때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전주 사람 정여립(鄭汝立)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갔는데 당파싸움에 밀려 진안으로 내려와 대동계(大同契)를 조직하여 왜구의 침략도 자율적으로 막고 앞으로 왜 나라가 조선을 쳐들어올 것에 대비하여 자율적인 군사조직을 만들어 닥쳐올 미래를 대비하였다.

그 세력이 차츰 커져서 호남을 비롯하여 평안도 황해도에 이르기까지 확산되었다. 반대파인 서인들의 무고로 당파싸움의 희생양이 되어 역모를 꾀하였다는 이유로 대동계의 대부분 구성원들은 잡혀서 참형을 당하고 정여립은 자살을 한다. 이를 기축옥사라고 하는데 호남의 동인들이 많이 죽었다.

이 때 무업(無業)이라는 승려가 서산대사가 정여립의 일당이라고 무고(誣告)해서 서산대사가 역천모의(逆天謀議)에 가담했다고 잡혀왔는데 그것의 증거가 다음과 같은 시 한수였다.

만국(萬國)의 왕성(王城)도 개미집 같고
영웅호걸(英雄豪傑)도 하루살이 같네
창가에 명월(明月)이라 팔을 베고 누웠으니
솔잎을 스쳐가는 바람소리만 영원하리라.

선조는 이 시를 보고는 무고였음을 알아차리고 서산대사를 곧 석방하고 그 시를 칭찬하고 상까지 내렸다.

그로부터 3년 뒤 임진왜란이 터졌고 서산대사는 의주로 선조를 찾아가 승병을 일으킬 것을 자청하니 그를 승병 총사령관에 임명하였다. 곧 이어 전국의 승려들에게 "늙은 중은 기도를 올리고 젊은 중은 승병이 되라"고 영을 내리니 사명(四溟)과 처영(處英) 등 제자들이 제일 먼저 승병을 일으켜 달려왔다. 곧 이어 사명과 처영에게 승병의 지휘권을 넘기고 묘향산(妙香山)에 들어가 세수 85세로 열반에 든다.

그리고 서산대사와 같은 인물들을 배출할 수 있었던 승과고시를 부활하게 한 보우대사는 문정왕후가 죽자 제주도에 유배되고 마침내는 제주 조천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이처럼 문정왕후의 수렴청정과 보우대사의 승과고시 부활의 건의가 없었다면 억압받는 조선에서의 불교의 중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서산대사의 출현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모든 세상의 일이 그러하듯이 시절인연이 제대로 들어맞아야만 새로운 역사의 장도 열리나 보다.

■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고름 태양

제주도 어디쯤에 장마전선이 상륙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아침부터 희뿌연 안개가 산과 산 사이를 잔뜩 메웠다. 앞산이 흐릿하니 무슨 신비한 세계가 펼쳐진 듯도 하다. 이 세상 너머 저 세상이 있다면 아마도 이런 모습이려니 생각한다.

오후에 접어들면 걷히겠거니 했지만 안개는 걷힐 기세가 아니었다. 저녁이 가까워와도 걷히질 않았다. 곧 장마가 들이닥칠 것만 같으니 할 일이 하나 생각났다. 고추밭에 줄 치기였다. 요새 고추는 조금만 커도 웬만한 바람 하나 감당하지 못한다. 다수확 품종으로 개량을 하고 또 한 탓이다. 고추가 제 몸을 감당하건 말건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어찌되든 열매가 크고 많이 열리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니 고추는 스스로 제 몸 하나 지탱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제 막 커나가는, 기세가 등등한 고추의 모습이 어제 박아놓은 지지대 사이에서 하늘 향해 온 몸을 뻗고 있는 것을 보니 줄을 칠 힘이 은근히 솟았다. 등에 멘 작은 배낭에 넣은 줄무더기의 안쪽 끝을 잡아당기며 대여섯 포기에 하나씩 박힌 지지대에 줄을 감아나가기 시작했다. 지지대마다 선을 감으며 반대편까지 가서는, 다음 고랑에 들어서서 맞은편으로 돌아오며 반대편 줄을 치는 방식으로 서너 줄을 치고 나니, 땀이 솟아 작업복 윗옷이 흠뻑 젖었다. 위이잉윙윙 쇠파리가 내 피를 빨으려 달려든다. 손으로 쳐서 쫓고는 다시 줄을 매기 시작했다. 또 한 줄을 매고 나니 허리가 아프다. 몸을 일으켜 하늘을 보았다. 고추밭 앞에 자라난 호두나무 가지 사이로 환한 무엇인가가 눈에 들어왔다. 눈을 찌푸리며 살피니 태양이다. 노오란 빛이었다. 안개를 뚫고 나오는 빛이어서 강렬하지도 않았다. 시답잖은 모닥불 하나 지핀 듯한 모양새였다. 태양을 보고 '코딱지 같다' 했던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 눈엔 고름이 고인 상태로 보였다. 고름이 고여 있는 둥근 상처였다.

햇살도 어찌하지 못하는
안개의 세상에선
누런 고름 덩어리인
태양을 보며 안개가 아닌
그 무엇이 되겠다는
생각을 잊어야 한다
태양 아래 푸르른 세상을
그리며 묵묵히 살아야 한다

해는 안개 위에서 안개를 비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안개 속에 있어 맑고 밝은 햇살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안개의 세상에선 안개 아닌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안개가 되어야 한다. 안개의 세상에선 안개 외엔 존재할 수가 없다.

나는 어쩌다 이 안개의 세상 속에 서있을까? 나는 이런 세상을 원하지 않았다. 태어나려 하지도 않았다. 이 나라를 선택하지도 않았다. 눈을 떠보니 이곳에 있었다.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한 까닭에 이 나라의 국민이 되었다. 애초부터 나의 선택은 없었다. 사람은 침략의 목적이 아니라면 이주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따라서 국가를 선택할 자유 또한 있어야 한다.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국경을 넘어 바다를 건너 아무 곳이나, 가고자 한다면 갈 수 있어야 한다. 저 찌푸둥한 불빛이 태양일까? 하늘의 일부분이 썩어서 생긴 상처는 아닌가?

다시 허리를 굽히고 몸을 낮춰 줄을 치는 작업으로 들어갔다. 아프던 허리도 그 사이 치료가 되었는지 줄을 칠만 했다. 땀은 줄줄 흘러 바지까지 적셨다. 바지와 다리의 피부가 닿는 느낌이 끈적끈적하게 다가왔다. 상의는 흥건하게 젖어 배에 가슴에 등에 척 달라붙었다. 한 줄을 치고 다시 몸을 일으켜 쉬면서 태양을 보았다. 여전히 해는 노란 상처다. 안개의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함이 앞산 옆산 뒷산을 가리고 해를 가리고 기어이 내 몸과 마음까지 집어삼킬 태세다.

남은 두 줄을 부리나케 치고 서둘러 집을 향해 걸었다. 안개 속에서 보이는 길은 하나다. 안개의 길. 스스로 안개가 되는 일. 햇살도 어찌하지 못하는 안개의 세상에선 누런 고름 덩어리인 태양을 보며 안개가 아닌 그 무엇이 되겠다는 생각을 잊어야 한다. 태양 아래 푸르른 세상을 그리며 묵묵히 살아야 한다.

■ 유승도 (시인)

www.buddhashopping.com

NAVER 검색창에 붓다쇼핑 을 쳐보세요

백중 영가옷



B형-남자 구성 : 상하의(저고리,바지), 양말, 봉투
B형-여자 구성 : 상하의(저고리,치마), 버선, 봉투

종이영가옷Ⓐ형-남/여 할인가 각1,200원 정가 1,500원
종이영가옷Ⓑ형-남/여 할인가 각1,000원 정가 1,300원
종이영가옷Ⓒ형-남/여 할인가 각 950원 정가 1,200원
종이영가옷-동남/동녀 할인가 각 800원 정가 1,000원
종이영가옷-수자 할인가 각 600원 정가 800원
영가천도다라니 할인가 각 800원 정가 1,000원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B형-남

※ 종이영가옷은 한벌씩 봉투포장되어 있습니다.
A형은 B형구성에 더하여 신묘장구범어, 진언부적, 백만관 3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화경 사경책 시리즈



※ 우리말로 해석된 경전사경책은 금강경 1권, 지장경 2권, 법화경 7권(한문/한글/우리말)이 있습니다. 연하게 인쇄된 밑글씨를 따라 사경할 수 있는 우리말 풀이 사경책 시리즈입니다.







※각 7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0권이상 주문시 할인가 적용됩니다.
할인가 4,200원(1권) 정 가 6,000
할인가 3,500원(1권) 정 가 5,000원
할인가 2,100원(1권) 정 가 3,500


파라핀(12병) 50,000원


돈타레(40개) 83,000원



영원향(단) 10,000원(10개이상)



와까바향(단) 11,000원(10개이상)


행복으로 가는길 3,000원


자비도량참법 9,000원(20권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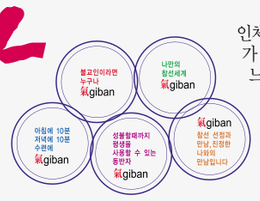
동진기획·붓다쇼핑 ☎(051)515-8888
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휴대폰 : 011-554-2988, 011-879-0889
☎ 515-2988, 555-1087, 508-9377~8
팩스 : 508-0101 인터넷 : 070-7425-0518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6㎝]

기반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 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퇴면 : 천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 (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각종의식
범음범패, 바라작법
010-2290-9270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동영상 기문둔갑
● 26강좌로 확실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홍국한국기문둔갑, 평생의명, 육친, 신수, 일진의 길흉, 결혼날짜, 장사 잘되는 개업식날 잡는 법 등등 강의
● 그외에 사주원리, 용신, 일진내정법
● 명반법(낙화법), 육효, 파동성명학과 오운육기등의 과목을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확실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좌입니다.
www.beumchun.com

대한불교 법화 조계종 창종
본종은 본문 불교의
여설수행하는 단체로
부처님 진실만을 표방합니다.
종단불문. 종단등록을 원하는
사찰, 사암, 스님 연락주세요.
010-7176-2177

공양주
모십니다
(노보살 원함)
02)917-3363

꿈바위불교교육원
능엄신주. 경전독송 영가천도
전국 기도 회향 대법회
(6월 30일 .부산국제신문사 대강당)
참가신청바람
꿈바위 후원자를 모십니다
서울 부산 대구
010-6789-5008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 포교당
011-229-6061

대한불교도서관건립 불사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내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佛書의 典當 대한불교도서관 건립에 뜻있는 불자님들의 선근인연을 기다립니다 현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도서관추진위원회
010-2002-6332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한국선불교조계종
강원도 대덕사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010-9219-7695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불자님 자연의
치유법으로
건강하게 해드립니다.
▷45세 이하 남.녀 다섯분까지
금화산 관음사
031)533-0741
www.saam.asia

사무직원
모십니다
공양주 구함
▷대전
010-5792-3000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069-0135

수행정진하실
예비 女행자 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지역
010-9409-5001
011-9762-3672

세납 41세, 승납 11년차
비구가 천일기도할
도량을 찾습니다.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종단은 관계없음)
010-7588-4504
무봉 합장

조계종 여름철 물좋고 시원한
지장보궁에서 신심있고
자기기도 겸 영험도량에
오랫동안후원을 맡아 볼
40-50대의 공양주 구함.
보시금은 상담 후 결정함.
소백산 내원암
054)653-1180
010-6356-1180

한 가족같이 함께
지낼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시흥, 60세미만
011-314-984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성남
011-212-9810

공양주
모십니다
▷50-65세,
보시금은 상담 후 결정
010-3188-5103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마석)
※운전 및 컴퓨터 가능
40대 전후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4748-1080

기도스님
모십니다
행자 연락바람
▷청주
043)258-3282
011-459-3282

부전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
(경험있는) 모십니다
▷경남
055)636-3676
010-8559-4833

암자 지을 땅
시주하실 불자님
인연 만남
원성취 지대원
010-4182-1874 신묘

부처님과 함께
새 인생을
펼치세요.
남녀 행자 모집
▷달마선원 대현사
010-5279-8419

50대 후반
비구승 입니다.
부전자리
원합니다.
010-5238-1624

대방등 대집경 대승기도
● 어떠한 소망도 이루어지는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 위치 : 백선사 절 (전철 1호선 부천역 소명사거리 3층)
☎ 032)664-0048 / 011-741-0867

침 술 秘 法 무 료 강 의
초종과! 본강의와 因緣되어 佛事에 도움 되소서!
제1강 : 빙의(최면), 신병, 용신의활용, 초간단명리(적중율90%)
제2강 : 오행과 침술, 따주기 비법, 내몸내가고친다.
제3강 : 정골요법, 일침요법, 각종처방(견비, 허리, 무릎, 중풍, 심장질환)
"침, 특수활용법 (한의학 박사 강의)
강 의 : 매주 화-수요일 10시-16시(1박2일) 장 소 : 경남 마산시 법향사 법당
연락처 : 야간 070)8861-3359 팩스 : 221-3358
핸드폰 : 스님 010-9027-3117
함께 나누는 세상을... - 좋은날 되소서 - 의암 합장

대 체 의 학 비 법 전 수
1. 중풍환자 혀가 뻣뻣할 때 2. 발바닥이 아파서 걸음걸이 힘들 때
3. 척추에 이상없이 허리가 몇십년 아플 때 4. 오십견으로 팔올리기 힘들 때
● 이상 4가지를 단 한번에 낫게하는 비법전수 (이론없이 실기만 가르침)
● 엄중한 중풍을 철저히 고치는 중국 고대 비법전수
(스님, 한의사, 기치료사, 대체의학 종사자를 대상으로 함) (중풍환자 출장치료 가능함)
● 수련시 각종 그림 나타나는 분들께 초능력 기공을 가르침 (별도강의)
● 중국 초능력 기공사 직강 (각종 질병 치료 비법 교재 증정)
010-7703-3825

역학을 배우면서
가족같이 지내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전남, 34-40세 미만
010-6536-0120

남녀 이성문제,
건강불치병,
정신질환,
자녀시험문제,
사업재수. 상담요
▷대성암
010-5446-8846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여자)신청하세요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이름 · 상호 팔자에 맞게끔 찾아드립니다.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출가체험자 모집
● 대상 : 15일 수행관 생활이 가능하신 분
수행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50세 이하의 남자
● 회주 우학스님의 법문 및 강의, 교육비, 숙식비 전액 무료제공
● 최첨단 멀티미디어 시스템 및 편의시설을 갖춘 수행관
● 참선, 기도, 교리습의 = 수행자의 모든 것!
● 상시 지원 가능! 언제든지 상담가능!
문의 : ☎ 010-2488-8228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4개월 : 중급4개월 : 연구4개월 : 심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렵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7시~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지현역리학연구원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http://kr.blog.yahoo.com/han10305

탈 종 공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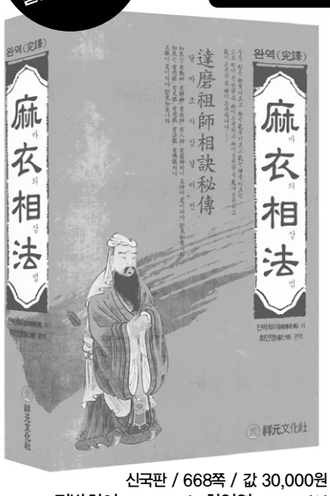
● 사찰명 : 용운사
● 법 명 : 지암 (강수동)
● 주 소 : 전남 장성군 북일면 성덕리 122-1번지

본인은 귀 종단의
종풍과 종지를 준수 할 수 없음으로
이에 탈종공고를 신청합니다.

(사)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특강 영가 찾는 법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역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간단한 원리로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무료공개강좌 - 6월 30일 (수) 오후 2시
7월 7일 (수) 오후 2시
1. 조상(귀신)이 발동한 것을 아는 법 :
어느 조상에게 빌어야 되나?
- 대.세운에서도 발동한 것을 찾는 법
2. 기도를 하더라도 묶여있거나 장애가 있는 곳에 가서 풀어야 된다.
3. 본 법을 알면 무속인의 주장신도 알 수가 있다.
4. 무속인 보다도 더 정확하게 뽑아낸다.
5. 결혼하면 양가집 조상이 부딪치는 가정
6. 결혼이 안되거나, 결혼을 해도 풍파가 많은 가정.
3개월 과정 -기초가 없으신 분은 보강해 드림
※ 명리, 육효학 기초반 (주 · 야) 모집
백 암 역 리 연 구 원
02) 597-1101. 011-9150-2284
2호선 선릉역 1번 출구 금강타워 빌딩에서 우회전 직진 150m

완역(完譯) 麻衣相法 마의상법
이 시대 최고의 관상서!
국내 최초 완역(完譯)!
화제의 책!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 중!!


무릇 形은 血을 기르고 血은 氣를 기르고 氣는 神을 기르는 고로 形이 온전한 즉 血이 온전하고 血이 온전한 즉 氣가 온전하고 氣가 온전한 즉 神이 온전하나니……
신국판 / 668쪽 / 값 30,000원
진박희이陣搏希夷 저 최인영催仁映 편역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마의상법〉 역자 직강!
〈한국전통과학 아카데미〉 (02-929-464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 기업은행 041-055985-02-010 예금주 : 문해성
전화 : 02)354-8646 팩스 : 02)384-8644 祥元文化社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02)2004-8215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수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위치 : 강원도 강릉	●위치 : 강원도 주문진	●위치 : 강원 고성
●건평 : 100평	●건평 : 80평	●건평 : 70평
●부지 : 110평	●부지 : 1700평	●부지 : 300평
●가액 : 4억 5천	●가액 : 5억 5천	●가액 : 2억 8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토굴 도량터

●저희 대력불사는 스님 및 수행자를 위하여 전국의 좋은 수행처를 시세의 절반가격으로 불사 해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지역 · 원하시는 사찰 · 원하시는 토굴 · 원하시는 도량터 이 모든 것을 맞춤형으로 수행의 길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수행자를 위한 대력불사
031)775-8110. 011-531-5562
팩스 031)775-8910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금정산 자락 사찰
- ●총 대지 : 약 230평
- ●법당 30평, 주지실 15평(1동)
- ●요사채 50평(2층 건물)
- ●부산 온천장(금정산) 부근
- ●남향, 텃밭 50평, 주차장 확보
- ●총금액 : 5억 8천

지리산 아름다운 절
- ●총 대지 : 2,100평
- ●법당 30평, 요사 40평, 토방 10평
- ●사계절 계곡물 철철, 정남향
- ●아름답고 마당 넓은 사찰
- ●가액: 6억 8천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광진 사찰 안내

●위치 : 서울	●위치 : 서울	●위치 : 경기
●부지 : 100평	●부지 : 90평	●부지 : 170평
●법당 : 25평	●법당 : 50평	●법당 : 25평
●요사 : 30평	●요사 : 60평	●요사 : 50평
●가액 : 7억	●가액 : 18억	●가액 : 11억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위탁알선판매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교원 안내

●위치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 5동 3층건물 중 2층
●약 45평. 삼존불, 욕실, 화장실, 주방, 종무실 겸 방 2칸
●보증금 1천만원, 월60만원
모든시설 완비(시설 A급), 시설비 답사 후 절충가능, 즉시법회가능
010-5535-6487
053)522-6487

사 찰 안 내

●위치 :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평수 : 대지 300평
전답(밭) 745평
●42평, 대웅전
●노천: 미륵불, 해수관음
●산신원불, 재석원불
●가액: 7억 (절충가능)
011-834-3889

최고의 명승 사찰 터

●위치 : 경북 영주시 봉현면 한전리 (서울에서 2시간 거리)
●평수 : 31,500평(임야20,600평, 전10,900평)/ 3억2천만원(평당10,000원)
●풍기 IC에서 7분거리로 조망권이 우수하고 계곡이 본 부지앞으로 흐르고 있음
●토종 산림이 울창하며 임야 곳곳에 샘이 있고, 수자원이 풍부하며 약수가 솟아남
●테라피한방공원조성지 주변에 위치하며, 경치가 우수하며 최적의 등산로 코스
●봉현 한천은 예로부터 물이 차고 깨끗하며 명명되어 온 지역이며, 본 부지 터는 예로부터 명승 사찰로부지로 전래되어 내려오는 토지임
●소백산 비로봉, 옥녀봉 등 등산로 입구까지 10 ~ 20분 소요
●풍기온천까지 10분 소요
●용도 : 사찰부지, 휴양지, 펜션, 수련원,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010-2037-7288

포교원 안내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 3동 487-36번지
●평수 : 50평. 반지하
●위치 아주 좋음. 시장 인접
●삼존불, 산신님, 독송님 원만히 다 갖춰져 있음
●포교하기 적합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1000만원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040-3588

포교원 안내

●위치 : 대구시 동구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공양간 10평, 휴식공간 30평,사무실1, 방 6개
●시설 최상급
●보증금 3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3,500만원(DC 無)
010-4199-0047

포교원 안내

●위치 : 부산 감만동
●4층 상가건물 ●동불 삼불
●4층 요사, 3층 법당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천2백만원(주인인정)
051)638-1134
070-8842-6108

포교원안내

●위치: 부산 구포시장 내
●평수: 54평. 2층건물 중 2층
●1층 허가된 주차장
●보증금 3천만원 월 60만원 (주차장 사용비 35만 포함)
●주차장 완비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51)364-4889

사 찰 안 내

●위치 : 경주시 안강읍
●대지 87평, 2층건물
●1층 요사채 34평 ●2층 법당 24평
●특징: 안강읍 시장, 대형마트 각각 5분거리
●1,2층 모두 도시가스 설치
●가액 : 2억 3천만원
은행융자 6천가능
054)763-6655

사 찰 안 내

●위치 : 양천구 신정 4동
●지하철역에서 도보 3분거리
●대지: 80평,●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시멘트 2층 사찰
●법당 30평, 2층 요사 40평 1층 지하 15평
●주차장 완비, 실외화장실 2
●시가 평당 1700만원
●가액 : 13억
011-236-6273

사 찰 안 내

●위치 : 경북 경주시 조양동
●법당 목조 18평
●요사채 콘크리트 40평
●종각 약 1평
●대지 380평(기타부지 500평)
●가액: 4억
010-3112-3513

암 자 안 내

●위치 : 부산시내 대지 66평
●사용평수 100평 이상
●건물 1층 36평, 2층 법당 20평
●법당 뒤 대나무밭 채소밭
●주차가능
●가액: 3억 2천만원
주인직 010-3133-0018

사 찰 안 내

●위치: 부산시 남구 황영산 자락
●대지 130평 .법당, 주지실, 대중방
●공양간, 산신각, 기타 시설 일체
●전세 5000만원(시설비 포함)
●인연있는 스님 기다립니다.
011-871-1547

사 찰 안 내

●위치 : 부산 동구 좌천동
●대지: 300평
●건평: 법당 (60평), 요사채(20평),(15평)
●가액: 7억 8천만원 (가격절충가능)
010-3118-4901
010-4506-8742

포교원 안내

●위치 : 울산시 북구 정자동
●바다가보이는전망좋은 아름다운절
●4층 65평, 법당 30평, 방3개, 주방, 삼성각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몸만 오시면 즉시 가능합니다
011-831-7322
052)293-7328

임야 사찰 터

●위치 : 창녕군 창녕읍 여초리
●44,120평
●화왕산 주령 사찰터
●가액: 3억 8천만원
●관리지역, 농림지역
017-570-1600

사찰 터 안내

●위치: 울산 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대지: 526평. 바로 뒤 산
●1급 주거지역
●가액: 평당 90만원 (절충가능)
사찰터, 전원주택지도 좋음
017-855-6717
017-856-2344
052)247-7344

사 찰 안 내

●위치: 경남 하동
●총 800평, 법당20평, 요사채 3방 4,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주차시설 완비
●비구니스님 기도처로 최고 명당
●가액: 2억 3천만원
010-3138-4897

포교원 안내

●위치: 부산 사하구 당리동
●3층건물 중 3층
●법당 1, 상담실1, 주방겸 큰방1
●4층 옥탑방1, 옥상사용가능
●보증금 5백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상담 후 결정
●지리산 불사관계로 급 양도
010-4784-5506

사찰(급)안내

●위치: 부산 수영구 광안 해수욕장 5분거리
●3층 건물 중 2층 법당 60평, 방2, 화장실2, 주방
●삼존불,산신,후불신중,칠성, 소불200불
●전세 1억3천만원(사급세가능) 시설비 없음, 주인 직접
●스님 사정상 급양도
010-3019-2236

사 찰 안 내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 대지 90평
●외부: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주차시설완비
●가액: 1억 6천 5백만원
011-297-9149

토 굴 안 내

●위치 : 경기 양평군 양동면
●건물 약 50평
●땅은 종중땅
●건물 등기 有
●가액: 3천만원
010-8852-1479 법정

토 굴 안 내

●위치 : 경북 영천시 고경면
●대지 290평, 전 910평
●건평 23평(조립식)
●천장산 옛 사찰터
●교통양호. 마을 제일 위쪽
●가액: 9천만원
010-3518-3958

사 찰 안 내

●위치:충남연기군 세종도시근접지역
●전통사찰 삼존불 기도도량
●미륵불 및 주차장 완비
●요사채 방3, 주방, 거실, 심야전기
●창고에 방2, 화장실 3
●가액: 3억 (전세가능)
●자세한 사항은 상담 후 결정
010-5498-6544

포교원 안내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안락2동
●2층 30평 ●소불 100분 인등 270등, 각단탱화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800만원
●주택가 횡단보도 사거리 1층은 불교용품점
010-2446-2626

포교원 안내

●위치: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역 2분)
●평수 약 42평 (3층중 2층)
●법당 약 20평
●방 2개, 주방겸 거실
●포교활동 최적지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별도
010-4626-2258

포교원 안내

●위치: 성남 모란시장 뒤 (공설운동장 후문) 전철 8호선
●법당 40평, 방2
●주차 다량 가능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65만원
070-7717-9303
011-857-3775
010-7459-2977

동해바다 사찰터

●위치 : 강원도 동해시
●대지: 540평(평당 100만원 조정)
●시내중심가 2km 인 산자락
●연못 2개소, 홍련, 백련 2년생
●앞-시내, 바다 뒤-산자락
●야생화 자연스런 조경 전망 및 야경 좋음
010-4544-0815

사 찰 안 내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한라대학교 부근
●평수 : 218평
●시설: 법당 2동, 요사채 2동, 불탑 3동
●가액: 2억 5천만원
●원주시청에서 7분거리로 원주시내권이며 경관 수려함
●2차선 도로접
011-9918-1955

사찰(급)안내

●위치 : 충북 오창면에서 천안시 사이
●부지 2,000여평
●법당, 관음전 2동 55평 목조, 단청
●요사채: 3동 2층건물 1동 (방 많음)
●깔끔하게 잘 지었음
●가액: 13억
011-412-2464

암자 · 토굴 안내

●위치 : 경남 거제시
●대지 344㎡, 104평
●아궁이, 황토방 ●단독주택 2채
●방3, 공양간 1, 인법당
●가액: 1억 5천 5백만원
●거창 토굴터 . 1017평
055)632-3840

포교원 안내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동
●대지 약 160평
●건평 80평(1,2층)
●방 6개, 목욕탕 2개, 주차가능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내방 절충
010-3302-1821
051)632-1821

사 찰 안 내

●위치 : 밀양시 국도변
●대지 약 200평
●요사채 65평 1동 (단층양옥)
●법당 20평(아미타 삼존불)
●스님, 법사님 적격
●가액: 2억 1천만원(절충불가)
●(은행융자 7000포함)
●전세 가능(1억 1천만원)
010-8675-8011
055)328-4886

포교원 안내

●위치 : 김해시 어방동 531-5
●태양빌딩 5층 중 4층
●평수 45평 육합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인등 100등, 연등 165등
●몸만 오시면 됩니다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11-742-8458

포교원(급)안내

●위치 :강원도 원주, 원주역 도보 10분거리
●5일풍물시장중심
●건물 81평, 3층건물 중 2층
●삼존불, 법당1, 법당사용가능한 거실1, 방3, 화장실 2
●노천 대형 주차장 완비
●스님 건강 증진. 포행로 있음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지방 불사 관계로 급 양도
●법회중. 몸만 오시면 됨
010-7191-2689

도심속의 사찰 포교원 안내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 부근
●평수 140평, 법당 60평, 모든시설완벽
●방사두칸,공양간,종무소,기타등등 부산시내에서최고의 위치와시설을갖춘 법당으로불교학교 개설되어있음
●현재 법회진행중, 몸만 오시면 됨
●시설비 직접 보시고 상담 후 결정
보증금 2억 (최소한 5천~7천의 보증금으로 월세 가능
010-3868-7435

의령 자굴산 토종오가피 및 사찰터 안내

●위치 : 경남 의령군 부림면 막곡리 181-3
●농장 인수 하실분, 건물 100평
●공장 특허, 늘푸른 식품
●산 좋고 경치 좋은 곳, 공장 1동 집포함
●시설완벽, 교환가능● 대지 1만 1천평
●가액: 11억 7천만원
010-8791-5655

포교원 안내

●위치: 경남 양산 재래시장 부근
●평수: 54평, 4층건물 중 3층
●법당 약 25평, 방 4칸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관리비 無)
●시설 및 집기 일체 상담 후 결정
●장소 시설 A급,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
055)372-3315/010-2553-8827

포교원 안내

●위치 : 서울 강동구 길동(역세권)
●3층건물중 3층 45평
●방2, 상담실1, 주방, 화장실 옥상전체사용, 음향시설완비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시설A급
●보증금 2,0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5607-0108

절터안내(대지)

●위치 : 경주시 내남면 명계1리 경주시내에서 20분거리, 울산에서 30분거리
●경주의 최고의 대 명당, 대 길지
●마음대로 건축가능, 대지 267평 큰채, 아래채, 창고, 헛간 있음
●투자가치 최고 " 확실" ●주변 대나무밭
●사찰용도 평당 50만원 보시
010-3322-0108

명 당 터 안 내

●위치: 경남 창영 ●평수 : 임야 약 1만평(약 80% 사용가)
●특징 : 사찰 암자 및 선산 등. 모혈명당, 고암면 감리 (밀양넘어가는 국도 첫째산, 정봉 아래 정혈, 도로에서 약 120M)
●가액 : 57억, 평당 60만원(전체가 한송이 명당) 인연자에게 가격 떠나 양도
010-7325-1259

포교원안내

●위치 :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53-8
●대지 107평 ●건평 총건평 약 190평(텃밭 있음, 채소, 과일나무)
●지하 20평, 1층 70평,
●2층 60평 법당, 거실, 방2, 주방거실, 화장실2
●3층 32평 미륵전 방4, 창고 2
●포교원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가액: 4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3042-0852

사찰(급)안내

●위치: 경북김천혁신도시(김천시내에서 7~8분거리)
●대지 171평, 물이 흐르는 도량, 주차공간 넓음, 텃밭있음
●2층법당: 약 20평 단청되어 있음, 수미단 조성. LED인등 (삼존불, 약사여래, 관음보살, 108소불, 칠성, 산신, 용왕, 독성)
●1층종무소: 약 20평, 방3개, LG하이샷시이중으로설치
●요사채: 1층 약 30평, 방3개, 2층 약 30평, 방 3개 (귀뚜라미화목보일러와 린라이가스보일러겸용)
●기타일부집기류일체(몸만 오시면 됩니다)
●가액: 2억 2천 5백만원(은행융자1억 포함)
●사정상 급 안내 하오니 꼭! 필요한분만 연락바랍
010-7133-2266

사 찰 안 내

●위치 : 전남 장흥
●법당 20평, 요사채 25평, 부지 350평
●공양실, 삼성각, 선방 총 5동, 전체 동 기와단청
●건물 뒤 거대 바위산 있음, 바위 모양이 달마 형상
●가액: 1억 5천만원 (융자 3천 포함)
018-603-1456



Dr.황의 바른 자세 바른 생활 ㉔ 짧은 다리

다리가 길어 보이는 법

요즘 젊은이들은 무엇보다 자기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특히 '미'에 대한 관심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단순히 연예인들의 얼굴을 따라해 성형수술을 받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체형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꿀벅지'라는 신조어가 생겨 날만큼 예쁜 체형에 대한 갈망이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형의 비대칭 불균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이를 교정하기 위한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짧은 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정 받고 싶어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일명 숏다리라고도 불리는 짧은 다리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을 필자는 자주 접했습니다. 자신의 다리가 유독 짧아 보이거나, 실제 상체보다 다리뼈 자체가 짧아 고민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짧은 다리는 평생 콤플렉스로 간직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짧은 다리는 대부분 신체의 상·하체 비대칭, 휜다리, 굽은등 등이 도드라져서 더욱 확연하게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키가 커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반대로 키가 커도 그에 비해 작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키가 커 보이는 효과는 그만큼 체형적인 균형이 잡혀서 그렇습니다. 구부정한 체형의 상태와 골반의 불균형으로 엉덩이 쳐짐과 퍼짐, 또한 하체 비만은 다리를 더욱 짧게 보이게 합니다.

따라서 짧은 다리를 좀 더 길게 보이고 싶다면 구부정한 자세와 쳐진 엉덩이, 뚱뚱한 다리를 반듯하게 만들어 합니다. 타이트하게 업 된 엉덩이와 날씬한 다리는 어느 정도는 하체가 길어 보이고 예쁘고 매력적이게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다리를 길어보이게 하는 체형 교정은 어깨를 펴고, 바른 자세로 굽어진 등과 골반, 다리 등을 곧게 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는 연습을 생활화하면 굽어진 만큼의 키가 크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형교정은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효과가 있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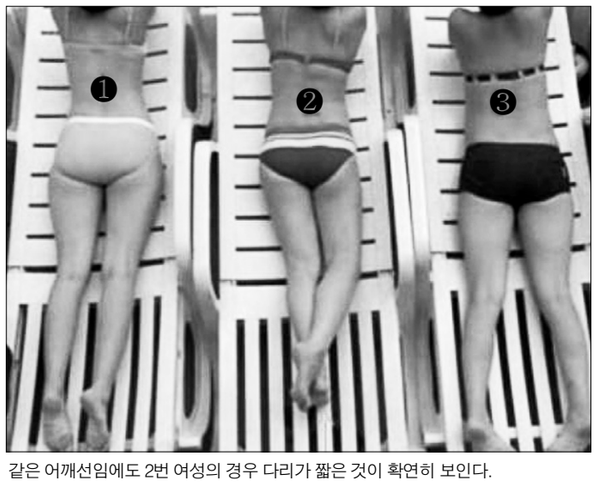
필자를 찾아온 한 여학생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학생은 남들보다 짧은 다리 길이로 항상 고민을 해오던 차에 평소 자신의 구부정한 자세를 교정해 체형의 균형을 찾고자 필자의 체형교정센터를 오게 됐습니다.

체형테스트 결과 구부정한 자세와 함께 목이 앞으로 나와 보기에도 좋지 않은 체형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등 근육에는 과도한 긴장과 뭉침 현상이 있었으며, 굵은 허벅지는 더욱 다리를 짧아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여학생은 전신 체형불균형으로 육안으로 판단될 정도로 신체는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체형을 개선하기 위해 여학생에게 전신 자세와 골반교정 및 하체 비만에 도움이 되는 다리 전체의 파워 스트레칭 운동을 처방했습니다. 또한 구부정한 자세 교정을 위한 전신 교정을 통해 단축된 신체의 긴장상태를 이완시켜 곧은 체형으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5~6개월의 교정 진행 결과 어느 정도 체형이 바르게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가량의 숨은 키가 자라고 하체비만에서 벗어나 슬림하고 타이트한 골반과 엉덩이와 다리를 회복했습니다. 짧은 다리로 고민하는 분들은 자신의 체형상태를 확인해 보고 상하의 비대칭뿐만 아니라 전후, 좌우의 전신 비대칭을 펴나가면서 체형 교정 운동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신건강에 더욱 도움이 되므로 고민만 하지 말고 운동으로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츄어앤파트너스 교정센터
황상보 원장 T : 1544-9697



같은 어깨선임에도 2번 여성의 경우 다리가 짧은 것이 확연히 보인다.



김경현 원장의 몸 · 마음 이야기 ⑫ 구취(口臭)

청결해도 입냄새가 난다면?

사람의 입안은 한마디로 정상적인 세균의 집합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몸에는 이롭고 없어서는 안 될 세균들이 존재하는 곳이 있는데, 입안도 대표적인 곳의 하나이다. 사람 입안의 침이 다른 동물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음은 우리에게 이로운 침 속의 세균들이 다른 동물에게 해롭기 때문이다. 입안의 침과 점막에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는 이로운 세균들은 외부로부터 지켜주는 일차방어선 역할을 한다. 사람에게 해로운 다른 세균들이 들어오면 입안의 세균들이 이를 저지해 방어해 준다.

그런데 건강이상이나 항생제나 기타 약물의 과용, 또는 여러 원인은 입안 환경을 변화시킨다. 그 환경 변화로 새로운 세균들이 서식하면 입안이 답답하고 불편한 일이 발생한다. 항생제를 과용하는 경우는 입안 점막의 모든 세균들이 다 죽어 곰팡이균들이 서식하는 칸디다증과 같은 일도 생긴다.

입냄새가 생기는 원인으로는 구강의 위생 불결, 마늘 양파와 같은 음식, 치아 잇몸의 질환, 비강 인후 시도 등 입 주변의 질환, 위장을 비롯한 소화기질환, 간기능 이상, 당뇨병, 폐질환, 열성질환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치아나 잇몸의 질환이나 전신적인 기능저하현상에 기인한다.

비강의 병으로 입으로 숨을 쉬면 입안에 필요이상의 산소가 공급돼 입안 세균이 과다 번식하게 돼 입냄새를 심하게 유발하며 충치를 잘 생기게 할 수도 있다.

침이 많이 나오지 않거나 입을 벌리고 있어 입안이 마른 경우에는 입안에서 벗겨진 상피세포들이 씻겨 나가지 못해 입냄새가 난다. 잠을 자고 일어난 이후 입안이 텁텁하고 냄새가 나는 것은 수면 중 입안에 침이 잘 분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입냄새는 본인은 잘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 알거나, 대화할 때 간접적인 행동에 의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 어떤 환자들은 실제로 냄새가 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냄새를 느끼지 못하는데 유독 자신만이 입냄새를 심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신경과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입냄새의 유무와 정도는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진단돼야 한다.

마늘 양파 술을 먹으면 이런 것들이 혈액 속으로 흡수됐다가 폐로부터 배출되면서 입김에서 냄새가 난다. 특히 술을 많이 마시면 혈액 내에 노폐물이 축적돼 악취를 풍기게 된다. 담배도 니코틴과 타르가 입안에 부착돼 치아가 부식되면서 치아색의 변화와 함께 역겨운 냄새를 풍기게 한다.

그러므로 이를 깨끗이 닦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으로 치아와 잇몸의 병을 예방치료하며, 치석을 제거하고,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포함한 저지방 음식을 섭취하고 파 마늘 양파 겨자 달걀 등과 같은 구취 유발 음식은 피하며, 물을 자주 마시고, 입안이 자주 마르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치약이나 무설탕 껌 등을 사용하고, 침을 잘 나오게 하는 약 등을 복용한다면 입냄새는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구강세정제를 너무 지나치게 쓰게 되면 오히려 입안의 생태계를 변화시켜 입냄새를 심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청결하게 해도 입냄새가 가시지 않으면 다른 질병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면 암모니아 냄새가, 당뇨병이 심하면 아세톤 냄새가 나게 된다. 질병에 따라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 그 원인질병을 치료해야만 냄새가 없어진다.

다른 질병도 없고 평상시에는 괜찮으나 피로가 심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입냄새가 심한 사람도 있다. 입안의 저항력이 떨어져 입안 생태계에 잦은 이상이 생기는 허증(虛證)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본인의 체질에 따른 한방치료를 받아 그 허함을 보해줘야 한다.

선재한의원 (02)518-0845



황현수의 불교와 무술이야기 ㉔ 당랑권4

당랑수는 점혈 찌르기에 적합

당랑권 기술의 묘미는 당랑수와 원후보법에 있습니다. 당랑수란, 엄지 · 검지 · 중지 3개의 손가락 끝으로 뭘 집듯이 뾰족이 내민 모양으로써 점혈을 찌르고 상대의 공격을 받아 흘리는데 사용합니다. 그 때문에 당랑수는 당랑권 자세의 기본이 됩니다.

3개의 손가락을 내민 당랑수는 점혈을 찌르기에 가장 적합한 모양입니다. 찌르기에서는 조금 비겁하긴 하지만 눈을 찌르는 것을 제일로 칩니다. 눈을 잃으면 상대는 원근감이 흐트러질 뿐 아니라 그 눈 쪽은 사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눈 찌르기는 '취안(取眼)'이라 불리며 당랑수법 중에서도 독자적인 기술이 확립돼져 있습니다.

점혈을 공격하는 것은 관절을 제압하는 금장을 보조하는데도 알맞습니다. 당랑수 3개의 손가락과 손목 안쪽 부분으로 상대의 부위를 끼우듯이 잡을 때, 손가락 끝으로 점혈을 동시에 찌르면 상대는 관절을 제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급소를 찔려 통증을 맛보게 됩니다.

당랑권의 특징인 원후보법은 상대와의 간격을 맞출 때 효과를 발휘합니다. 최초의 일보는 뒷발이 되는 다리를 반대쪽 다리에 교차시키듯이 하고 다음 일보를 딛을 때에는 뒷발이 되는 쪽 다리와 반대쪽 다리를 다시 교차시키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중심의 지지대가 되는 다리의 위치가 전후좌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아 자세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몸 정면을 상대로부터 피해, 주요 급소를 지켜줍니다.


팔보당랑.

당랑권의 공격에서 또 하나의 주체가 되는 발차기는 '추퇴법'과 '소퇴법'으로 구분됩니다. 추퇴법은 공방과 동시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자세는 무너뜨리지 않고, 앞에 있는 발끝부터 발꿈치를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하면서 상대의 발을 거는 기술을 가리킵니다.

예비동작이 작고 발만 움직이기 때문에 자세를 무너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의 상단공격을 당랑수로 걸어내면서 또는 상반신을 공격하면서 다리를 거는 방법을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소퇴법은 몸을 낮추면서 상대의 다리를 차는 발차기의 총칭으로, 예비동작이 큰 대신에 높은 공격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다리를 노리기 때문에 공격이 명중되면 자세가 무너지며 지면에 쓰러뜨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방어할 때에도 기본이 되는 것 역시 당랑수입니다. 상대가 공격해 올 때 당랑수와 장으로 부위를 덮는 것을 '구(拘)'라고 부릅니다. 구 뒤에 부위를 덮은 채로 당랑수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받아 흘리는 것을 '루(樓)'라고 부르며, 연결시킨 하나의 동작이 방어의 기본이 됩니다.

구와 루는, 추퇴법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공격을 막으면서 다리걸기를 하는데, 이 동작을 질박(跌撲)이라고 하며, 당랑권의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때의 기본이 됩니다.

쿵푸, 합기도, 태권도 등 무술 학원은 많아도 제일 쉽게 간판을 내리는 곳이 바로 쿵푸 도장입니다. 그 이유는 무술이 나빠서가 아니라 배우기가 힘들어서입니다. 복잡하고 현란한 무술의 기술은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근본불교학자/ 다음카페: 37수도장

불자정보 790호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사천
- 65평, 방4, 주방
- 집기일체양도
- 즉시법회가능
- 시설비 4,000만원(조정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010-4876-8977

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구미시 근접
- 임법당, 연꽃연못, 옆산, 텃밭
- 총 320평
- 임대 보증금 300만원, 1년 350만원
- 양도도 가능 1억

017-813-9126

임법당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방계2리 부근
- 집 대리석, 심야전기 보일러, 큰방 2
- 작은방1, 곳간, 베란다, 거실, 주방
- 화장실2, 평수 248평, 건물 29평
- 가액: 2억

033)731-7376

토굴 암자 전원주택
- 위치 : 강원도 원주시내 차로 5분거리
- 최고위치, 경치 전망 좋은 아담한 토담집
- 법당 1동, 휴게실 1동, 방2, 입식 심야보일러, 에어컨
- 가액: 3800만원(건물만)
-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010-5276-598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김해시 동상동 재래시장 부근
- 4층 건물 중 3층 약 50평
- 삼존불, 신중,지장,산신불 , 각단탱화 일체
- 상담실 및 거실, 방2,
- 보증금 300만원, 월38만원
- 법당 및 모든 비품, 집기 일체, 시설비1,800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55)335-0314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중랑구 면목동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 5분)
- 4층건물의 4층 ,40평
- 냉난방 등 모든시설 완벽
- 아파트 밀집지역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70만원 시설비 별도

010-2640-8133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 매월 초하루 법회중
- 법당, 삼존불, 후불탱화, 지장불,주방2, 화장실1, 욕실1 창고, 세탁실, 방4
- 보증금 3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9550-9128

암자안내
- 위치 :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 집 2채 등기완료, 1채 법당
- 땅평수 160평정도
- (토지세 1년 : 19만원)
- 가액: 7천 5백만원

010-3723-6640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시 북구 칠곡 시장내 (최고의 위치)
- 평수: 5층 법당 55평, 기도방1, 4층 요사채 67평
- 공양간1, 종무실1, 대중방1, 친견실1, 휴식공간1, 방사2
- 해우소 5층 1, 4층 2, 엘리베이터 4,5층 포교원 전용
- 시설: 최상급 주차장 완비, 에어컨 설치(법당 각방)
- 보증금 1천만원 월 1백만원
- 시설비: 4천 5백만운(6천 5백만원 투자 되었음)

010-6483-0089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사거리 상업지역
- 3층, 60평
- (옥상포함. 전체사용가능함)
- 보증금+시설비 6천만원 월 62만원
- 현법회중
- 뒤에 산과 폭포있음

011-496-6417

포교원안내
- 위치 : 인천 서구 가정동
- 평수: 65평(3층건물중 3층 전체)
- 법당 20평, 방4, 공양간 大, 화장실 2
- 주차장등 시설완벽 A급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2800만원

010-8427-6199

전원주택안내
- 위치: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 산세 좋아 편안함 마을인접 남한강이 보이고, 양평 시내 인접
- 수행터 비구니 스님 적합 요양지 투자 적합
- 대지 250평, 건평 50평
- 방4, 화장실3, 대형거실1
- 가액: 2억 9천만원 (융자 1억 2천만원 포함)

010-4736-3567

사찰안내
- 위치: 서울 강북구
- 대지 25평, 약 건평 30평
- 법당 오랫동안 운영해온 임법당
- 시설최고, 방2개
- 노스님 건강이 좋지 않아 (급) 안내
- 가액: 1억 5천만원

017-2215-3195

산중 수행처 안내
- 위치 :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 치악산 비로봉이 정면으로 보이는 수려한 풍광에 전원주택으로 지음
- 평 수 : 총 979평 (대지 149평) 국유림이 이 땅을 둘러싸고 있음
- 목조건물 2동 (본채 55평, 별채 7평) 심야 보일러, 현대식 화장실
- 가 액 : (건물 무료), 2억 5천만원

011-9058-2264

스님...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1 사찰매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가람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대출금리 연 7.2~7.6% [1억 대출시 월이자 최저60만원]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1-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다구를 찾아서 ⑲ 홍차

"애국자는 차를 마시지 않는다"

흔히 미국인이 가장 즐겨 마시는 음료가 커피라고는 하나 홍차 역시 미국인의 생활에서 빠뜨릴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국 독립전쟁 발발의 원인이 홍차였기 때문이다.

17세기 초 뉴욕의 이름은 뉴암스테르담이었다. 영국인 허드슨(Henry Hudson)이 처음으로 탐험했지만 네덜란드의 의뢰로 행해진 일이었기 때문에 네덜란드 식민지가 됐다. 그래서 네덜란드인들은 그들의 수도를 본따 뉴암스테르담이라 불렀다. 이 때에 네덜란드인들은 처음으로 신대륙에 중국의 차를 전했다. 그런데 1664년 영국이 네덜란드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뉴암스테르담은 뉴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신대륙으로 이주해온 영국인들은 항상 모국의 유행을 주시하면서 모방하고 영국인다운 생활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차 역시 영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자 그대로 따라 했다. 식민지 미국에는 영국 동인도회사가 차를 독점적으로 공급했기 때문에 차값이 금값처럼 비싼데도 불구하고 커피하우스, 티가든 등 영국식 풍습은 물론 차에 관련된 다구(茶具) 역시 그대로 유행했다. 당시에는 다구가 부족해서 다회(茶會)에 초대된 손님들은 자신의 다구는 물론 스푼까지도 가지고 갔어야 했다.

유럽에서 7년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 내에서도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한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캐나다를 식민지로 갖게 되지만 전비(戰費)를 너무 많이 지출해 그만 국고가 텅비게 됐다. 이에 영국 국왕 조지 3세(George Ⅲ, 1738~1820)는 왕권을 강화하면서 "식민지의 방위비는 식민지에서 분담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관세의 징수를 엄하게 했다. 1767년 5월 영국의회에서 타운센드 법안(Townshend Acts)이 가결돼 마침내 차에 대한 과세가 결정되자, 미국인들은 영국제품 불매운동을 벌인다. 더불어 미국인들은 홍차 대신 라브라도르 티(Labradore 섬에서 자생하는 나무뿌리로 만든 차), 싸스프라스 티(Sassfras tea) 등 여러 대용차를 만들어 마시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정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의 홍차 수출은 줄어든 반면 네덜란드로부터의 밀수가 많아졌다. 1773년 마침내 영국 의회는 관세 없이 차를 미국으로 수출해도 좋다는 '차조례'를 가결했다. 그리하여 차를 가득 실은 네 척의 배가 대서양을 횡단해 보스턴 항구에 도착했지만 그동안 차 밀수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던 미국 상인들을 중심으로 항의 집회가 열리고 그 결과 소요가 일어났다. 1773년 11월 16일 저녁, 항구에 정박해 있던 영국 선박으로 사람들이 몰려가 차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보스턴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소요가 일어나면서 미국 독립전쟁의 발화점이 됐다.

종전 직후까지 미국인들은 "애국자는 누구도 차를 마시지 않는다"며 차를 마시지 않았다. 그러나 독립 후, 미국 사람들은 중국과 차 무역을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됐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인들 사이에 차가 주요한 기호품으로 정착돼 있었고 차를 제외하면 중국에서 돌아오는 배를 채울 화물이 따로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차 무역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쳐서 더욱 번성했다. 1870년에서 1897년 사이에 미국의 1인당 차 소비량은 정점에 이르렀다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공업화와 더불어 이주해 온 많은 라틴계 이민자들에 의해 홍차보다는 커피가 많이 소비됐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이 중국과 직접 무역을 시작했을 때, 중국인들은 도자기에 그들의 전통적인 문양을 그려 넣었다. 하지만 상술에 능한 중국인들은 이미 포르투갈,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영국 등과의 교역 경험을 살려 미국인들이 원하는 문양을 넣어 도자기를 만드는 데에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사진 속의 홍차다기세트와 커피세트는 벤자민 츄의 아들인 벤자민 주니어가 중국에 살고 있던 사촌에게 부탁해 주문해서 만든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미국에서는 저녁 식사를 마친 남성들은 식당에서, 여성들은 응접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다가 남성들이 다시 응접실의 여성들과 자리를 함께 하는 밤 9시 이후에 홍차를 마셨다고 한다. 홍차에 설탕과 우유를 듬뿍 넣어서 늦은 밤까지 차를 즐겼다.



커피와 홍차다구세트(부분), 19세기 초, 사뮤엘 츄 콜렉션(Philadelphia, the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

백기란 · bdaol@hanmail.net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㊵ 송광사 저녁예불



풍경소리 하나 없는 송광사. 비가 내리고, 텅 빈 마당엔 비에 젖은 백일홍이 저녁을 기다리고 있었다. 목어를 스쳐간 바람이 서쪽 해를 따라가고, 짙어가는 저녁 끝에서 법고소리가 들려왔다.

"지심귀명례…"

법당은 대중의 숨소리로 뜨거웠고, 오늘을 기다렸던 눈빛들이 간절하게 부처님을 부르고 있었다. 두근거리던 법고소리가 대중의 가슴 속에서 다시 두근거렸고, 목어를 스쳐간 바람은 돌아오지 않았다.

"지심귀명례…"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제2도 제대보살여제천중설법장엄도

삽화는 기원정사에서 부처님이 설법하는 장면을 판각한 설법도이다. 도상의 오른쪽에는 붓다가 높은 대좌에 앉아 좌우로 시립한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고 있다. 중앙에는 설법하는 붓다 앞에 엎드려 청법하는 사리불의 모습이 보이며 사리불의 뒷면에는 설법을 듣고 있는 제 보살과 제석천을 비롯한 천중, 제 비구, 천왕들이 합장하고 있는 모습이 왼쪽부터 전개돼 있다. 전각에는 난간이 둘러져 있으며 전각의 바닥에는 문양이 새겨진 돌이 아름답게 놓여 있다. 또한 전각의 외곽으로는 구름과 가로수가 장엄돼 있다. <불설아미타경>에는 이와 같이 설명돼 있다.

"한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의 기수급고독원에 계셨고, 덕망이 높은 큰 비구대중 1250명도 함께 하셨다. 대아라한은 모두 아는 장로인 사리불(지혜제일)과 마하목건련(신통제일), 마하가섭(두타제일)과 마하가전연(논의제일), 마하구치라(문답제일), 아바다, 주리반타가와 난타, 아난타(다문제일), 라후라(밀행제일), 교범바제(계율제일), 빈두로바라타와 가루타이와 마하겁빈나(지성수제일), 박구라(장수제일), 아누루타(천안제일)와 같이 큰 제자들과 함께 있으셨다. 또 보살마하살인 문수사리 법왕자(부처님을 법왕이라고 하는데 대해 미래에 부처가 될 보살들을 이르는 말이며 특히 문수, 미륵보살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와 아일다보살(가장 수승하다는 뜻이며, 미래의 구세불인 미륵보살을 지칭), 건다하제보살(현겁 16존 중의 하나로 향상보살 · 불가석보살 등으로도 부른다), 상정진보살(현겁 16존 중의 하나, 언제나 정진의 힘을 써서 붙여진 이름이며 남방 4존 중 제 2위의 보살로 대정진보살이라고도 한다)과 같은 큰 보살들과도 함께 있으셨다. 또 석제 환인(수미산 꼭대기 도리천의 임금인 제석천을 이름) 등 무량 제천 대중들과도 함께 있으셨다."

부처님이 기원정사에서 제자들인 16아라한과 문수보살을 비롯한 보살대중들과 제석천을 비롯한 천인들에게 설법하는 장면을 통해 부처님과 청법대중들이 설법으로 소통하면서 펼쳐지는 깨달음의 장엄함이 시공을 초월해 우리의 현실에서도 느껴지는 장면이다.

대부분의 불경에는 이러한 장면이 권수도(卷首圖)나 변상도(變相圖)라 하여 불경의 맨 앞쪽에 한 편의 드라마의 서곡과 같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변상도를 불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사찰에서 교리공부 시간에 그림을 해석해 가르친다면 불경을 처음 접할 때 나오는 제자들이나 보살, 제석천의 생소한 이름으로 인해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불경을 호감을 갖고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불설아미타경〉 중 제 2도 제대보살여제천중설법장엄도(諸大菩薩與諸天衆說法莊嚴圖). 덕주사판, 1572년간행, 반곽(半郭) 28.2×21.0㎝.

물로 청소 할 수 있는 제품

■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조립식평상 100대 한정판매
大 1800×1030×400mm 가격 250,000 → 할인가 190,000원
中 1500×820×400mm 가격 200,000 → 할인가 150,000원
연결이동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설치가 간단한 평상
· 폴리프로필렌자재 기 둥 : 110×90×350mm 도 리 : 80×35mm
중간대 : 80×35mm 마루판 : 210×12

■ 벤 치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판 (폴리프로필렌)
· 규격 1500×380×400mm 가격 200,000 → 할인가 150,000
지 구 산 업
www.bangaro.com / 방갈로.com
TEL : (063)323-3011~2
FAX : (063)323-3010
계좌번호 : (농협) 462-12-314256 예금주 : 지구산업 곽영호
전 국 대 리 점 모 집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주)현대에너텍 2010년 최신형
농협융자 1년거치 7년분할상환
농협융자지정업체
(농수산물건조기, 저온냉장 · 냉동)
고객의 행복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책임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1평 ~ 20평까지

건조기(11채반) 건조기(22채반) 건조기(33채반)
본사공장직영점. 0502-228-1510 HP.011-673-2623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54-1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 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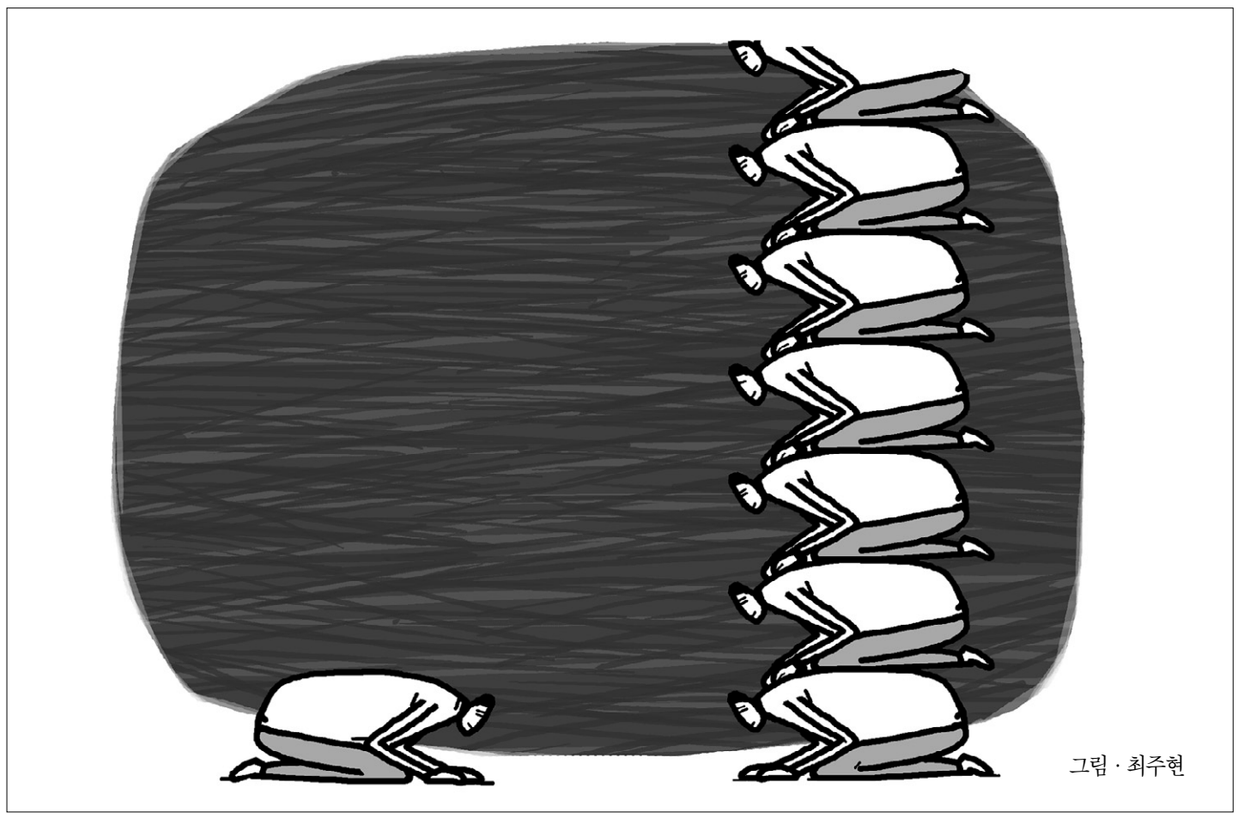
어느 거 하나 걸림이 없는 것이 그대로 참선!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1(남): 큰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이 마음공부를 시작하기로 결심한 것은 한 4년여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정도 공부를 했으면 그래도 남을 떠먹여 주지는 못할망정 제 스스로는 떠먹을 수 있어야 할 텐데, 제 앞가림도 못하는 것 같아서 항상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평소에 나름대로 공부해 온 것을 좀 말씀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받아서 앞으로 제가 공부해 나가는 데 지침으로 삼고자 나왔습니다. 저는 첫째, 이 마음공부를 하고 나서부터는 설령 몸이 아프더라도 병원이나 약을 찾지 않았습니다. 주인공 자리에 맡겨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의식적으로 찾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다 한두 가지씩은 공부의 재료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도 한 10여 년 전부터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는 병원에 다니고 했습니다마는 이 공부한 후로는 계속 제 나름대로는 관(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태가 심할 때는 정말로 저를 성가시게 하고 생활에 불편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렇게라도 해야만이 네가 주인공 반야줄을 놓지 않고 계속 잡고 갈 게 아니냐, 이러한 가르침으로 알고 저 나름대로 놓고 갑니다마는 가끔 '과연 어디까지가 약이고 어디까지가 약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좀 심할 때는 소금물이라도 좀 써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이것까지도 마음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져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얼른 내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 하기 전에는 그 상태가 좀 심할 때 술 먹을 일이 있고 그러면 더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생각에 술 먹기가 좀 꺼려졌는데요, 이 공부 한 이후로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술 먹을 인연이 다가와도 일부러 피하지 않고, '먹지 말아야 한다면 당신이 안 먹게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냥 술자리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몸에 어떤 이상 증세가 나타나도 이 공부하기 전에는 '혹시나 어떤 큰 병에 걸린 게 아닌가.' 하고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아야 되고 불안한 생각도 드는데, 이 공부를 하고 난 후에는 '건강 문제를 다 맡겼다면 당신이 다 알아서 할 것이 아닌가.' 하고 그냥 갑니다.


그림 · 최주현

그리고 요새 사람들이 특히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제가 이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귀담아 들리지 않고 건강 문제를 다 맡겼다면 다 알아서 할 것 아닌가 하고 일부러 제가 뭘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몸이 불어서 배가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마는, 그래서 이 배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식생활도 바꾸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자리에 다 맡겼으니 알아서 할 것 아닌가 하고 그냥 살아가야 하는 건지,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대한 큰스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큰스님: 사람이 살아나가려면 천차만별의 용도를 다 해야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아심을 가지고 이것은 부처님 법이 아니다, 이것은 부처님 법이다 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공부 하는 중에 번연히 알면서도 '네가 진짜 있다면 나와 봐.' 하고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몸이 아픈 것도…, 약이 없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밥도 약이니까요. 그러니까 걸리지 말고 그대로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또 정히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것도 법이니까요. 여기에 꼭 소금을 썼으면 좋겠다 이럴 때 그것도 법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자성(自性)의 법이죠. 그러니까 따뜻한 물에다가 소금 한 움큼 넣어서는 목욕을 좀 해 보세요, 그냥. 아, 그래도 좋고….

그전에 이런 예가 있었죠. 어떤 신도가 배가 아파서 그냥 팔짝팔짝 뛰고 야단법석이 났는데요, "스님, 스님! 어떡할까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으음, 따뜻한 물에다가 소금 좀 타서 먹고, 따뜻한 소금물로 배에 찜질을 좀 해 줘." 그랬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집이어서 그렇게 했는데 병원에서 볼 때는 그냥 잘못돼도 이만저만 잘못된 게 아니죠. 대장이 꼬였는데 그러라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그냥 외려 망가뜨리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병원의 의사가 진찰을 해 보고 대장이 꼬였으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 보라고 하니까, 돈은 없고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아, 그렇게 말을 했더니만 그냥 그럭하고 나았어요. 나은 뒤에, 병원 진찰비를 갚지 못해서 나중에 그걸 갚다 주려고 가니까 "당신 어느 병원으로 갔었소?"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쳤군." 그러더랍니다. 하하하…. 아니, 그거는 대번에 썩어서 죽지 그게 그냥 있을 거냐고 아,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듣고 하는 소리가 "돈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지금 나았으니 다행이죠, 뭐." 그러니까 "그렇긴 그렇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허허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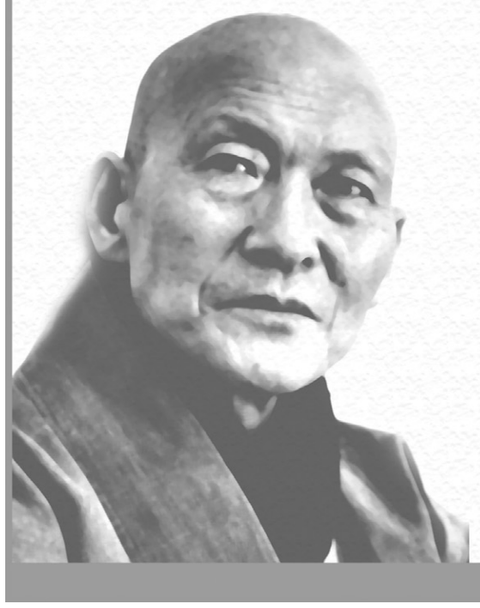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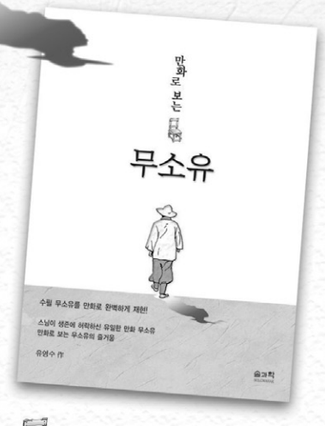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법이다', '저것이 진짜 법이다' 이런 게 없이 내가 '이럭하면 괜찮겠다' 하고 생각할 때 그게 진짜 법이에요. 생각을 해 보세요. 아, 금방 맹장염이 발생했다 그럴 때 그 따뜻한 물에다가 소금을 타서 거기다가 손발을 찜질을 해 주고서 그걸 한 종지 먹여 주면 어때요? 그것도 아주 대치할 수 있는 방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학적으로 볼 때는 천부당만부당하거든요. 그렇게 대치를 안 해서 염증이 심해지고 문제가 복합적으로 돼서 곪아 터지면 그것이 큰 문제거든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급한 대로 대치를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또 가정생활을 하는 데 아주 도움되는 상식이 아닐까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할 때 의식적으로 그러질 말고요, '이것도 그놈의 법이고, 그것도 그놈의 법이고, 저것도 그놈의 법이니까 그놈이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그 안에서 모두 생명들이 다 작용을 하겠지.' 하곤 그냥 보세요. 그래서 그놈들이 알아들으면 '허, 아무리 해도 저놈은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니까 그냥 해 주자.' 이러고 그냥 할 겁니다, 아마. 허허허….

6 · 25 때 당해 보신 분들이 여기도 계실 거예요. 6 · 25 때 의사가 있습니까, 병원이 있습니까? 아주 몽땅 다 없을 때에 급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갔겠습니까?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지구가 빵구가 나서 뭐 어떻게 된다 한다면 컴퓨터를 지고 다닐

☞26면으로 계속

인생의 큰 가르침이 되는 무소유!
법정스님께서 생존에 허락하진 국내 유일의 만화.
소유와 집착에 사로잡힌 현대인들에게 법정 스님이 전하는 깨우침의 이야기


법정스님의 무소유를
만화로 완벽하게 재현한
만화 『무소유』


192p / 국판 / 올컬러 / 10,000원
제주 돌가마도예연구소 오창윤 작가의
살아 숨쉬는 도예의 세계


제주 흙의 재발견 '숨' 180p / 국판 / 올컬러 / 11,000원
제주 문화 제주 옹기 168p / 국판 / 올컬러 / 11,000원
만화로 보는 대통령 풍수이야기
명당 풍수
대권을 얻는 것은
하늘과 땅의 힘을 받아야 한다.
왕이 나온다는
제왕지지를 찾아 조상을 모시고
명당을 찾는 풍수지리는
오랜 옛날부터 행해지던 일이다.
역사적인 사건과 함께 쉽게 풀어서
만화로 보는 명당풍수 이야기


1.대원군 2.박정희 3.전두환 / 신국판 / 각권 10,000원
도서출판 솔과학 /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4-4 삼부골든타워 302호 / Tel 02-714-8655 / Fax 02-711-4656

정히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것도 법이에요

☞25면에서 계속

겁니까? 또 컴퓨터가 아무리 잘 보여 준다 하더라도 컴퓨터를 지고 다니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보지도 못할 겁니다, 다 끊어져서. 또 보여 준다 하더라도 그놈의 거 보기만 하면 뭘 합니까? 대치를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급할 때, 극한 상황에서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들 생각하시고 열심히들 하십시오.

질문자2(남): 스님, 반갑습니다. 울산지원에서 왔습니다. 어제 울산지원 법형제분들께서 금왕지원에 가서 철야정진을 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공부함에 있어 제가 즐겨 부르는 어느 이름 모를 선사님의 시인지 게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구절 외워 드리고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물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내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주인공을 놓칠 때마다 맨 마지막에 '그대가 내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는 뜻을 자주 읊고 제 마음자리를 지켜보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에서 아침저녁으로 좌선을 거의 1시간 가까이 하고 있고 또 주인공 자리, 그 에너지요 보이지 않는 그 여여한 자리에다가 항상 맡기고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우님들이나 스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것도 또한 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큰스님께서 제 마음자리를 심안으로 보셔서 그것이 정말 착인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전혀 개의치 않고 누가 뭐라 하거나 말거나 그냥 여여하게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착이니 어쩌니 하는데, 정말 제가 바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아까 그 시를 읊으시는데 맨 마지막 끄트머리에 '나를 두고도 나를 모른다'고 했죠?

질문자2(남): 네. 그대가 내 곁에 있어도….

큰스님: 글쎄요. 그것을 그냥 간략하게 얼른 힌트를 알려 줄 양으로 저 나무 뿌리를 항상 방편으로 말을 합니다. "일체 만물만생의 그 나무들은 자기 뿌리를 자기가 가지고도 자기 뿌리를 못 보고, 남의 나무 큰 것만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요. 그런데 자기 뿌리가 없다면 지금 선생님은 말도 못할 뿐더러 송장이에요, 그냥. 송장인데도 불구하고 살아 있는 이유는 바로 자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이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허허허…. 그거를요, 개의치 마시고, 또 개의치 않는다는 것도 아니죠. 이게 관하는 데 올바로 직선으로 들어가는 길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뭣고?' 하고 이렇게 돌아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남의 말도 들어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나 잘됐나, 선생님이 잘 생각해 보시고 하시는 게 좋겠군요.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리고요, 1시간씩이나 2시간씩이나 좌선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좌선 자리가 따로 없어요. 우리가 행선도 참선이요, 서 있어도 참선이요, 앉아 있어도 참선이요, 일을 해도 참선이요, 누워서 자도 참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 걸림이 없어라' 하는 뜻이죠. 어느 거 하나 걸림이 없는 것이 그대로 참선이다 이런 거죠. 관법(觀法)이 직선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만날 앉아 있어도 헛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분이나 30분 동안 앉아서 '너만이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잖아!' 하고 관하라는 겁니다.

관법(觀法)이 직선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만날 앉아 있어도 헛앉아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3(남):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지원에서 청년회에 소속되어 있는 법우입니다. 제가 대구지원에 나오게 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한 달 이내거든요. 그런데 대행 스님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약 8년 전에 어떤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대행 스님을 마음속으로 굉장히 존경해 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매스컴을 통해 가끔 소식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마침내 인연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반드시 이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침내 대행 스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된 데 대해 굉장히 행복한 느낌을 갖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제 신상의 얘기도 아니고 그냥 보편적으로 항상 남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그냥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간단한 내용인데요, 모든 세상만물은, 나부터도 그렇지만 주인공, 즉 근본에서 나와서 근본으로 돌아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낮은 나도 중생이고 모든 것이 중생들인데, 중생들은 삼계(三界)에서 항상 윤회를 할 수밖에 없다. 즉, 깨달음을 얻어서 성불을 하지 않으면 더 죄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위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의식이 진화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삼계를 윤회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얻어 성불을 해야 대자유를 얻고, 쉽게 말하면 삼계를 벗어나서 성불을 한다는 거죠. 거기서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의식이라는 그 자체가 업을 통하여 진화가 계속돼서 마침내 인간이 됐는데 인간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드디어 성불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오지 않았느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드디어 부처님이 되셨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이 근본자리로 만약에 되돌아간다 하면, 나라고 생각하는 의식 자체가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또 삼계가 아닌 딴 세계가 만약에 있다면 그런 세계에 머무는 건지, 그런 분들이 만약에 윤회를 하지 않고 없어져 버린다면 자유롭게 다시 삼계의 인간 세계로 돌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큰스님: 허허허…. 삼계에 머물러 있는지 또 돌아올는지 그거를 말하는 겁니까?

질문자3(남):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인간들은 육체를 벗게 되면 의식 자체로 남아서 계속 윤회한다고 안 합니까? 그런데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은 그러한 것이 완전히 근본으로 돌아가면 나라는 이 의식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큰스님: 이거 보세요. 삼천 년 전에 계셨던 부처님 그분이 바로 여기들 이렇게 전부 있지 않습니까? 풀 한 포기만 있어도 부처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 그 도리를 알려면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질문자3(남): 아니,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개체화된 나 자신은 없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큰스님: 부처님의 그 마음은요, 원자와 같아서 그 속에서 입자가…, 이 일체 만물만생이 다 입자거든요. 입자니까 전부 자기가 입자 아님이 없고 자기 몸 아님이 없고 자기 생명 아님이 없으니까 뭐, 죽고 자시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태어났다는 것도 없고, 또 죽었다는 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살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더 좀 치밀히 해 보시면 그 차원을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질문자3(남): 원래의 근본자리는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이라고 듣기는 들었습니다.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나라고 하는 이 의식 자체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든가 아니면 약간 높은 차원의 세계로 가든가, 나라는 그 자체를 구성한 여러 덩어리로서 남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체를 이해하려니까 힘듭니다.

큰스님: 그거는요, 이 정신세계의 문제니까, 이 마음 없는 마음의 그 세계에서 본다면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삼천 년 전 아니라, 백 년 전 아니라 언제라도, 그 미래하고도 현재하고도 과거하고도 이렇게 상통이 되고 일체가 다 하나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합쳐지고 펼쳐지고 자유자재하죠, 이렇게. 댁이 부처님을 놓고 '깨달은 분들은 실체가 어떠한가? 그 의식이 있나 없나? 그분들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도 있나?' 그러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질문자3(남): 그렇다면 그 논리적으로 있잖아요…,

큰스님: 지금 댁이 말하는 그 순간, 이 세상은 모두가 고정됨이 없이 찰나 생활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할 수도 없이 그냥 찰나 생활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있다 없다, 과거다 미래다 현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찰나 생활이기 때문에. 삼계가 그냥 돌아가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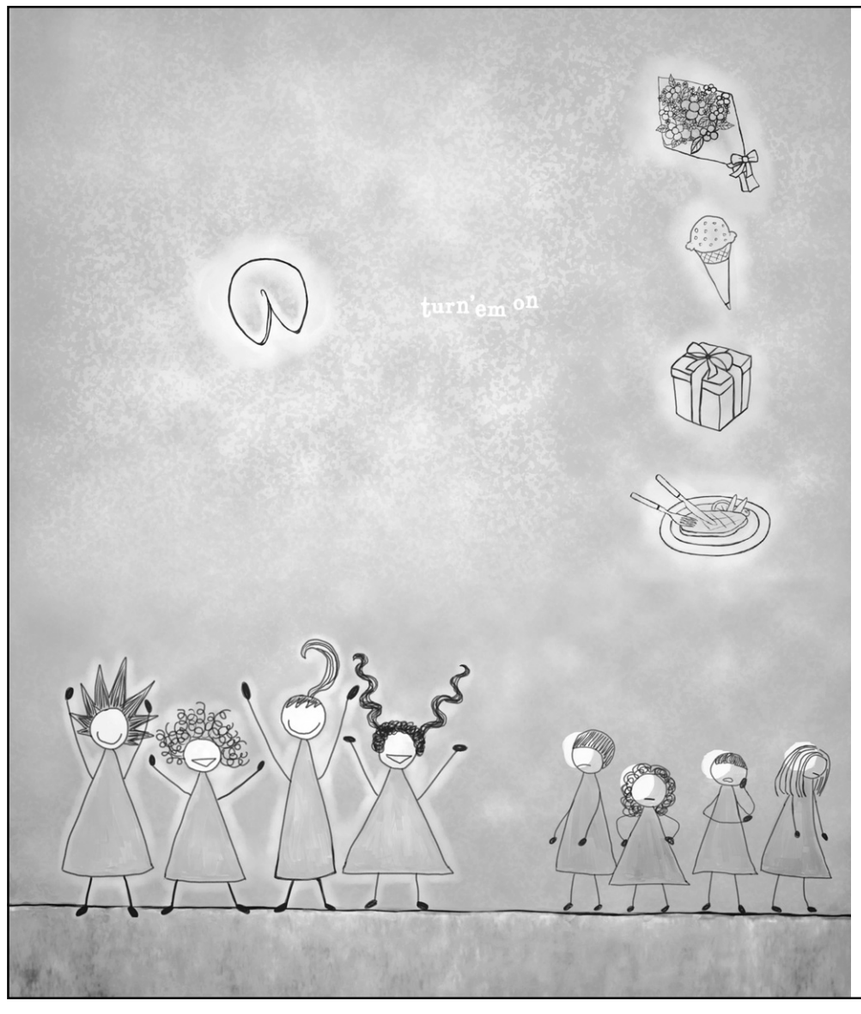
질문자3(남): 그렇다면 여러 불자님도 많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실지로 깨닫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깨달았다 하면 그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하지도 않겠지만요.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그 뭡니까? 내가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큰스님: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고정된 게 없다는 것이 지금 현실이니까요. 그렇다면 벌써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는 겁니다, 고정된 게 없다 이럴 때는. 우리 지금 현 생활이 고정된 게 있습니까?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하나도 고정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돌아가듯이 이렇게 그냥 돌아가는데, 체도 없는 게 지금 돌아가는데, 수레바퀴처럼 체와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데, 거기 뭐가 작년이 있고, 올해가 있고 내년이 있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없고 죽은 것도 없다. 그대로 여여하게 찰나 생활에 그대로 살아 계시다, 이런 뜻이죠.

사회자: 질문 다 끝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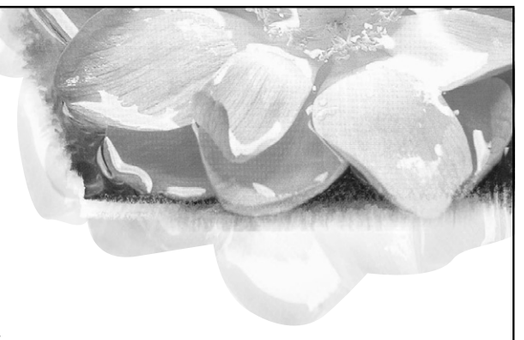
큰스님: 네? 다 끝났습니까? 질문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 그만하겠다는 얘기죠? 하하하…. 하여튼 아침부터 이렇게 앉혀 놓고 했으니까 못났으면 못난 대로 잘났으면 잘난 대로, 또 그게 아니든 맞든 모두 우리가 참작하고 들어야 하고, 또 우리 인내력을 기르는 거니까 '아이고, 내가 하루 몇 시간씩이나 이렇게 소비해 버렸으니….'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것도 내 몸을 바로 금 갑옷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허허허…. 금 갑옷 있죠? (합장하시면서) 그럼 여러분 제가 일어나도 괜찮겠습니까? 허허허…. (대중 박수)

※위 법문은 1996년 7월 7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What is Buddha Cookie!!

법法과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 (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 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 · 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 입니다.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법과 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 세상보기

이강렬
극작가 · 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

뒷걸음 하는 국민의 인권

최근 인권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이 연이어 불거진데 대해 심히 우려된다. 먼저 경찰의 고문(拷問)수사 의혹이다. 한마디로 말해 고문은 가장 야만적인 범죄 행위이다. 우리의 헌법 제12조에도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은 고문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에게 '고문'은 한마디로 반인권적 단어로 과거 군사독재시대의 민주화 운동과 학생운동을 탄압하던 어두운 시대의 산물로 기억되고 있다. 그런 입에 담기도 싫은 행위가 민주화가 정착되고 있는 오늘날 변함없이 다시 자행되었다는데 가히 충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의혹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양천서에서 조사받고 구치소로 옮겨진 마약 · 절도 피의자 32명을 대면 조사한 결과 22명이 구타나 수갑 채워 팔 꺾어올리기 등의 믿기 어려운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당 경찰관 등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그 수법이 마치 군사정권시절의 고문의 형태와 너무나 유사해 더욱 놀랍다. 폭행은 말할 것도 없고 두루마리 휴지나 수건으로 재갈을 물린 채 머리를 밟거나, 등 뒤로 수갑을 채운 채 팔을 꺾어 올리면서 자백을 강요했다고 한다. 반인륜적인 고문의 모습에 소름이 돋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고문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인권위 발표 내용이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의자들의 진술에만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물리적으로 사용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고문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검찰은 조직적으로 가혹행위를 묵인 또는 은폐하려했는지도 함께 조사 중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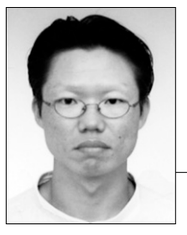
더군다나 조사실의 폐쇄회로(CCTV)를 돌려놓고 가혹행위를 했다면 의외로 고문수사가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일상화, 만연화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또한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두 달간이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내부 촬영 영상 중 일부도 조작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 피의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고문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협박받았다고 한다. 이는 축소 은폐 의혹까지 있음을 시사해 준다.

고문 수사는 엄혹했던 과거 시대의 어두운 유물이다. 고문 수사가 존재하는 한 민주사회, 인권국가라는 단어는 참으로 요원하다. 고문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경찰로서도 부끄럽고 창피스런 일이다. 경찰의 명예를 걸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고문 사실이 드러난다면 관련자를 엄중하게 다뤄 다시는 이런 반인륜적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시민을 내사하고 사무실까지 불법 조사했다는 의혹이다. 문제의 동영상은 미국교포 학생으로 보이는 K씨가 미국의 '마이 스페이스'에 게시한 것으로 의료민영화와 4대강 사업 등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을 비판적으로 다뤄 국내에서 방영된 화면들을 편집한 것이다. 그동안 178만 여명이 접속했고 지금도 수십여 개의 블로그, UCC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이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것이라고 한다.

모 야당의원이 국회 정무위에서의 지적에 의해 도출된 이번 의혹도 인권의 퇴행과 쾌를 같이 한다. 공직자윤리지원관실에서 한 국민, 한 개인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는 지적에 민간인에 대해 조사한 것은 잘못이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동안 과거에도 인권 침해와 관련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대책 운운하다가 말았다. 이제는 말이 아닌 실제로 인권교육 강화 등 정권 차원에서 명예를 걸고 일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이따위 추하고 부끄러운 유산을 안고 있을 것인가.



사부대중 칼럼

윤남진
참여불교재가연대 NGO리서치 소장

시민사회와 불교의 리더십

6 · 2 지방선거는 디지털혁명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단서를 제공했다. 그리고 '실시간實時間'이라는 주머니속 폭탄(스마트폰)을 쏘아 올림으로써 그 혁명이 무엇을 핵심적인 무기로 삼아 세상을 정복할 것인지를 만방에 예고했다. 인터넷(웹)을 통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의 연결인 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가 정보의 새로운 유통 통로로서, 새로운 유형의 공론장公論場으로서 어떤 파괴력을 발휘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_Social Network Service)는 단순한 온라인 인맥구축 서비스로서만이 아니라 공론장의 구실을 톡톡히 했다.

6 · 2 지방선거를 전후한 시점에서 트위터에 '투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글을 올린 사람들의 숫자를 살펴보면, 5월 31일까지 몇 천 건 미만이었다가 6월 1일 2만 건을 넘기더니 6월 2일 지방선거 당일에는 10만 건을 넘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트위터 등을 이용하여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단속하자 오히려 '투표합시다'는 메시지를 강력히 송출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투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이를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유통시켜 '투표행위'를 추동했다. 그 결과 6월 2일 오후 순식간에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파동을 일으킨 것이다.

이와 같은 파동에는 분명 그 전조가 있었다. 2000년 총선에서 '낙천낙선운동'이 있었고, 2002년 '붉은악마'의 등장과 노무현 대통령 당선이 있었고, 2008년 '촛불문화'가 만개하였다. 그 바탕에는 87년 민주화 이후 진실과 자유, 공정과 투명, 시민의 직접적 참여를 사회적 정신으로 부단히 전파해온 시민사회단체의 열정적 활동이 거름이 되었다. 시민사회단체가 비록 지금은 집중력이나 영향력이 많이 줄었지만 단순 후원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는 각성된 주체적 시민의 탄생으로 그 희생과 열정을 보답 받은 것이다. 이처럼 시민사회가 성장해 온 도정에서 불교의 리더십은 부족했다. 비록 수경스님을 비롯하여 몇 명의 명망가들의 개인적 리더십은 탁월한 바가 있었으나 네트워크의 성장, 그 네트워크의 연결자라고 할 수 있는 전문활동가들의 성장이 없는 개인적 리더십은 결국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활동의 중요한 목적이 각성된 시민의 네트워크 '그 자체'이기도 하다.

이제 시민사회단체와 그 활동방식도 소셜네트워크 시대를 맞아 새롭게 변화해야 할 시점에 있다. 필자는 지금이, 1만 여 단체 중에 불교 배경의 시민사회단체가 2~30개 안팎에 불과하고 게다가 전국광역단위 연결망을 가진 조직체는 하나도 없는, 이런 현실을 창의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적기라고 본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아마도 10년 뒤 불교는 시민사회와의 건강한 교호작용 과정에서 행해지는 종교적 리더십을 모조리 상실하게 될 것이다. '소셜네트워크'와 '집단지성'으로 대변되는 디지털혁명은 공유와 기여가 바탕이 되는 정신이다. 우리가 가진 자산, 지식, 정보들을 과감하게 무료로 제공하여 '강호의 숨은 고수'들이 그것들을 더욱 발전시켜 새로운 창조물을 탄생시키도록 기여할 때 비로소 리더십은 생길 수 있다.' 우리는 무엇으로 기여할 것인가'를 알지 못하면 리더십은 상실된다. 더군다나 기여보다는 보상을 추구할 때, 개방과 공유보다는 숨기고 감추는 것이 우선 할 때 그나마 있던 리더십도 모조리 파괴된다.

그렇다면 불교는 자유로운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불교가 가진 물적, 인적, 지식적 자산을 시민사회에 내놓는 것이다. 광대한 토지, 수려한 자연과 명승, 수많은 문화유산 같은 물적자산, 사찰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신도 같은 인적 자산, 불교철학과 수행의 방법에 관한 지식과 노하우 같은 지적자산을 개방하고 공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창의적인 시민사회활동가를 양성하고, 1인 단체나 소규모단체의 창업을 지원해서 불교와 시민사회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자들을 대거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지도자와 신도들에게 '보편시민교육'을 교리교육과 더불어 필수과목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런 전제가 없이는 제발 가져다 써달라고 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답답한 입장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필자가 알기로는 조계종총무원에서 <불교사회활동진흥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는데, 이 법은 2003년부터 추진된 것이다. 자칫하다가 법이 제정되었을 때 만시지탄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사 설

6.25 60돌, 전쟁과 평화

지난주 우리는 6.25 60주년을 보냈다. 3년 동안의 전쟁으로 군인과 민간인 400만 명의 목숨을 잃었고, 한반도는 말 그대로 초토화되었다.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될 민족사의 가장 큰 비극이었다. 국가보훈처는 서울 올림픽공원 내 체조경기장에서 6.25전쟁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도 6월 25일을 전후해 행사를 열었다. 불교계도 조계종의 군종교구와 여러 사찰 · 단체에서 행사를 열어 전몰장병을 추모하고 평화를 염원했다.

여러 행사 중 평화재단과 독일의 아데나워재단이 함께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는데, '분단국의 통일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였다. 독일과 예멘, 베트남의 통일과정을 연구한 논문이 발표되었고,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발표자들은 세 나라의 통일을 이룬 동력이 자유, 평화와 민족의 자주성이었다고 분석했다.

토론에서는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 정서적인 민족 통합과 재사회화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됐다. 특히 통일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제기됐다. 천안함 사건으로 대결구도가 당분간 굳어지지 않겠느냐는 분위기 속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반가운 행사였다.

통일은 주어지는 것도 아니며,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큰 비용을 지출한다. 세 나라의 통일과정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서적인 민족 통합, 통일 후의 재사회화과정은 정치적 영역만이 아니다. 불교계도 크게 관심을 기울여 준비해야 할 부분이다. 통일은 기어이 온다. 다시 불교의 역할을 정립하고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

안상수 의원의 유감, 유감스럽다

지난해 11월 '강남 부자 절 좌파 스님이 주지' 운운했던 안상수 의원이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다음달 14일 전당대회를 열어 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불교계는 안 의원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규정하고 사과와 함께 당시 그가 맡고 있던 원내대표직과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청정승가대중결사 회원 스님들은 한나라당을 방문해 이 같은 뜻을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 불교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었다.

안 의원은 지난 6월 21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에서 문제의 발언에 대해 입을 열었다. "봉은사와 관련, 명진 스님과 김영국씨가 한 발언 내용은 작년 11월의 일이라 오래돼 기억하긴 어렵지만,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진 스님과 봉은사 신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안 의원이 당시 발언으로 불교계가 느낀 모욕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유감스럽다. 먼저 그 형식에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문 낭독 후 마치 걸림돌 하나 치우듯 덧붙이는 모양새를 취했다.

유감의 대상도 명진 스님과 봉은사 신도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정권 실세가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한 발언이었던 만큼 조계종과 나아가 불교계에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교TV 프로그램 DVD 시리즈 안내 불교TV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프로그램 판매 02.3672.7181
BTN 불교TV
나를 깨우는 108배
종교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몸과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최고의 방법 '108배의 모든 것'
나를 깨우는 108배 CD와 DVD 출시!!
현재 불교TV 방영중!!
나를 깨우는 108배 CD
지은이 : 구본일 / 독송 : 영진스님
구성 : CD 1장 / 판매가격 : 10,000원
현재 불교TV 방영중!!
나를 깨우는 108배 DVD
지은이 : 구본일
독송 : 영진스님(한글판), 현각스님(영문판)
구성 : DVD 1장 / 판매가격 : 15,000원
예불-다큐예불 / 삼보사찰 예불
예불을 소재로 다룬 다큐멘터리 및 해인사(새벽예불), 통도사(사시불공), 송광사(저녁예불)편이 수록되어 있다.
구성 : DVD 2장 / 판매가격 : 30,000원
1 DVD - 다큐 예불 / 2 DVD - 삼보사찰 예불(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다큐-출가 새로운 탄생 / 발우공양
또다른 한 세상의 진정한 '나'를 찾는 출가와 그 출가정신이 베어있는 발우공양을 통해 출가정신을 되새겨 보고자 한다.
구성 : DVD 2장 / 판매가격 : 30,000원
1 DVD - 출가 새로운 탄생 / 2 DVD - 발우공양
케이블TV 우수프로그램 수상작
현각스님의 살아있는 금강경
현각스님이 설하는 대승불교의 대표경전 금강경,
쉽고 간결한 화법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르침을 전하고자 한다.
구성 : DVD 6장 / 12강좌 셋트 판매
판매가격 : 79,000원
왕초보도 따라하는 불교예절 불교상식
불자라면 반드시 익히고 실천해야 하는 기본적인 불교예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성 : DVD 1장 / 판매가격 : 20,000원
구입문의 : 불교서적총판 (주)운주사 02.3672.7181 www.unjusa.com

특집 "신불교사상의 실체를 파헤친다"

심상치 않은 신불교

영산불교 사상... 기존 불교계에 핵폭탄 되려나?

2000년 이상 정설로 내려온 불교 무아설의 해석 뒤집어 자재만현 큰스님

"無我輪廻 폐기, 영혼체 윤회론 주창" 새로운 실존적 불신관 (佛身觀)..

부처님은 빛의 인격체로 영원히 존재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주 법계 최초불.. 구원실성은 사실

우리 불교계에 큰 태풍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어쩌면 상상을 초월하는 기가톤(giga: 10억배)급 태풍이 될 지도 모르겠다. 아니 불교계를 넘어서 세계종교계 전체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심각한 용어를 쓰는 것은 이유가 있다. "신불교"라는 용어 자체가 충격적이다. 기존의 불교계 내에서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개선하는 정도를 가지고 감히 "신불교"라고 이름을 붙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종파를 설립하는 정도를 가지고도 "신불교"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2600여년 전 인도에서 탄생한 부처님의 불교 외에 또 다른 불교가 있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오해의 우려는 "영산불교"라는 신불교 교단의 이름에서 자연스럽게 풀어진다. 영산교단 측에 의하면 "지금의 세계불교는 영산 당시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너무나 멀리 벗어나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을 복원하고 정법을 널리 펼쳐 위대한 불교의 진면목을 드러내 주기 위해 신불교를 주창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불교계의 논쟁은 주로 수행방법의 정통성이나 돈오점수와 돈오돈수간의 논쟁과 같은 수행 방법론이나 '중관 대 유식' 같은 철학적 문제 또는 무아설과 윤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무아윤회라는 대전제 하에서의 구체적 윤회주체 문제에 대한 논쟁으로서, 불교의 교설을 뒤바꿀만한 것이나 불교의 본질에 속하는 새로운 실체를 드러낼만한 것은 없었다고 본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무아와 윤회주체 문제는 단골 논쟁 메뉴로서 불교의 아킬레스건이다. 그런데 기존불교에서 2000년 이상 정설로 알고 믿어왔던 '무아설'이 하루아침에 그 의미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무아윤회설이 한 순간에 사설(邪說)이 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부처님의 실체개념이 완전히 바뀌는데 어떻게 '신불교'라고 아니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그도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중대한 문제다. 자칫하면 천만이나 되는 우리나라 불자들, 아니 3~4억명에 이르는 세계불자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너무나 엄청난 사안이다. 그렇다고 마냥 덮어 둘 수 만은 없다. 이제 이 문제를 세상에 드러내 놓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현지사에서는 이 문제를 ①신불교에서 보는 기존 세계불교의 문제점 ②신불교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교설과 사상 ③신불교를 주장하는 큰스님의 실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했다.

영산 당시 가섭존자 · 아난존자, 부처님의 법맥 이어 받아 신불교 창립 금생에 불세존으로부터 붓다 인가 주장 심원한 법세계 놀라워

오늘날 세계불교는 동남아 중심의 남방불교와 한국 · 중국 등으로 전파된 북방불교, 그리고 티베트불교라는 세 가지 큰 흐름을 가지고 있다. 모두 자기들의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정통불교임을 주장하면서 나름대로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신불교 사상을 내세우고 있는 영산불교 교단은 기존의 세계 어느 불교도 부처님의 법통을 이어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부처님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면 지금 같이 왜곡되고 왜소화된 불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신불교인 영산불교만이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부처님의 법맥을 계승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우선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영산 당시 부처님의 상수제자였던 가섭존자의 후신이라고 하는 광명만덕 큰스님과 아난존자의 후신이라고 하는 자재만현 큰스님의 등장이다. 두 분 큰스님은 한국 땅에서 1998년과 2000년에 각각 부처님으로부터 붓다의 인가를 받았다고 한다. 《법화경》에 나와 있는 수기 내용과도 일치한다. 놀랄만한 일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대사건이고 전무후무한 대경사라 아니할 수 없다. 겁에 한 분 정도 나온다는 붓다가 한국 땅에서 두 분이나 한꺼번에 출세했다고 하니 불자라 해도 쉽게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두 분 큰스님의 깨달음의 세계는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II》에 잘 나타나 있다. 부처님을 친견하고 가르침을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적었다는 이 책의 내용은 누가 봐도 예사롭지 않은 것만은 확실하다. 붓다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붓다의 세계에 대한 묘사가 많이도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이 책의 서문은 부처님께서 직접 대적정삼매 중에 불러주신 것을 정리했다고 한다. 당당하게 불세존을 인용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보통 스님이 엄두를 낼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 아무튼 이는 독자들이 읽어보고 판단해야할 부분이다.

현재 불교는 三無佛敎. 부처님 · 영혼체 · 완전해탈수행법 없어 즉, 3무불교(三無佛敎)라는 것이 신불교가 보는 기존불교의 왜곡된 실상

영산불교에 의하면 현재 세계불교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금의 세계불교는 부처님의 인격적 실존을 믿지 않는 불교라는 것이다. 기껏해야 2600여년 전에 이미 열반하시고 지금은 계시지 않은 육신 부처님을 믿고 있거나 아니면 어디에도 계시는 법신개념의 부처님만 믿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 없는 불교라는 것이다. 둘째, 지금의 세계불교는 잘못 해석한 무아설에 발목이 잡혀 윤회주체를 부정하고 영혼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불교의 근간을 흔드는 사설(邪說)이라는 것이다. 셋째, 작금의 세계불교는 자력수행에만 매달려 완전한 해탈을 이루는 수행법이 없다는 것이다. 자력수행만으로는 윤회를 벗어나는 아라한이 되는 것도 지극히 어렵고 보살이나 붓다가 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 세계불교는 부처님 없는 불교, 윤회주체인 영혼체 없는 불교, 완전한 생사해탈 수행법이 없는 불교이다. 즉 3무불교(三無佛敎)라는 것이 신불교가 보는 기존불교의 왜곡된 실상이다.

부처님은 무아속 절대계에 빛의 인격체로 실존... 불자들은 보신불을 믿어야

이제 이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영산불교에서 주장하는 신불교의 교설을 한 번 정리해 보자. 첫째 부처님 실존관이다. 이것은 신불교에서 주장하는 제1의 사상이다. 영산불교 현지사 자재만현 큰스님께서는 "부처님께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빛의 인격체로 여여히 계신다"고 선언하셨다. 불세존을 포함한 다보불 · 약사여래불 · 아미타불 · 보명불의 오여래부처님도 계시고, 경전에 나오는 불보살님도 다 실제로 계신다고 한다. 이것은 물론 큰스님께서 부처님을 친견하신 경험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경전상으로 뒷받침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법화경 비유품》에서는 사리불 존자가 공(空)의 법을 증득하고 잠된 완전한 멸도라 생각했으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니 참된 멸도가 아니었음을 고백하면서 부처님이 되려면 천인과 야차와 용신들이 공경하는 32상(보신불)을 갖추고 완전한 참 멸도를 이루어야함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바로 인격적 부처님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법화경 여래수량품》에서는 부처님의 구원실성(久遠實成)에 대한 내용과 함께 무수한 보살들을 길러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 역시 인격적 부처님의 실존을 말해주는 논거가 된다고 한다.

자재만현 큰스님께서는, 부처님은 무량 겁 전에 성불하신 최초의 부처님이라고 또 하나의 역사적인 선언을 하셨다. 이것은 불교사, 나아가 종교사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선언이다. 부처님께서는 최초로 성불하신 이후 수없이 사바세계에 몸 받아 오셔서 수많은 불보살님들을 길러내시고 중생을 구제해 오셨는데, 가장 최근에 오신 것이 바로 2600여년 전 인도 땅에서의 일이라고 한다. 불교의 역사가 무량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순간이다. 신불교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인격적 부처님의 존재를 도출해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처님께서 공과 100% 하나 되어 완전히 무화(無化)되어 버렸다면 어떻게 사바세계에 몸 받아 오실 수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불보살님을 길러내시고 중생을 구제하려면 생각과 판단을 하시는 인격적 존재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불신론(佛身論)에서 주장하는 부처님의 삼신(法身,報身,化身) 중 보신불이 바로 인격적 부처님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부처님의 이론적 삼신관은 실존적 삼신관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화엄경》은 여러 불보살님들이 부처님의 인격적 실체와 그 위신력을 찬탄하고 증명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법화경 여래신력품》에 나오는 내용도 모두 사실이라고 한다.

새로운 영혼체 윤회론 주창 불교의 근간을 흔드는 무아윤회론 폐기 무아는 현상계에 국한된 개념, 본체계의 진아까지 부정하면 큰 잘못

신불교의 두 번째 사상은 윤회주체인 영혼체중심의 생사관이라고 할 수 있다. 신불교의 이 사상은 부처님 실존관 못지않게 핵폭탄에 버금가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의 불교계가 2000년 이상 정설로 믿어왔던 무아설의 해석이 일순간 180도로 뒤집어지고, 무아윤회론이 한갓 휴지조각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신불교에서 바르게 해석한 무아설의 핵심은 이렇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의 의미는 현상계에는 영원불변하는 '나의 실체'가 없다(無我)라는 것이다. 또는 오온으로 이루어진 현상계의 나는 영원불변하는 '나의 실체'가 아니다(非我)라는 의미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중생들이 너무 자기자신에 집착하여 탐욕을 부리고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집착을 떼어주기 위해서 무아를 말씀하셨던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깊은 삼매 중에 무아가 잘못 해석 되었다고 큰스님께 말씀해주셨다"

그런데 학자들이 현상계에 국한된 개념인 무아의 개념을 본체계에까지 확대 적용하여 절대무(絶對無)의 개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본체계의 실체마저 부정하고 윤회와 해탈의 주체로서의 나의 실체인 영혼체 마저 없다고 함으로써 불교의 근간을 흔들고 불교의 본질적 가치를 말살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이 신불교 측에서 보는 입장이다. 본체계의 나의 실체인 영혼체가 없다면 불보살님의 실존도 근거를 잃어버리고, 구제받아야할 중생의 실체도 없고, 열반하는 주체도 없고, 천도재를 지낼 이유도 없으며, 우주성자를 내는 불교의 위대성도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한 마디로 불교의 존재이유가 없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불교가 인도에서 힌두교에 밀려난 것도 바로 이 잘못 해석된 무아설 때문이고 오늘날 불교가 서구나 미주지역 등으로 세계화 되지 못한 것도 바로 이 잘못 해석된 무아설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한 마디로 왜곡된 무아설이 불교를 망친 주범이라는 것이다. 또한 신불교에서는 영혼체의 존재는 부처님께서 목련존자의 어머니를 천도시켜줌으로써 이론의 여지없이 확인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영혼체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대부분의 사찰에서 천도재를 지내고 있는 모순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느냐고 묻고 있다. 그러면서 본체계에 존재하는 나의 실체, 진아(眞我)의 존재는 대승의 《열반경》에서 상락아정(常樂我淨)이라는 본체계의 실상을 통해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부처님의 가피 불러오는 칭명염불 아니면 불보살 될 수 없어

신불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세 번째 사상은 자력기반 · 타력중심의 칭명염불 수행론이다. 신불교에 의하면 지금 세계불교의 수행방법으로는 윤회를 벗어나는 수행성과를 얻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렵다고 한다. 더구나 윤회를 벗어나 자기의 분신을 가지는 완전한 생사해탈의 경지인 정토보살이 되거나 최고의 해탈경지이면서 불신을 갖는 붓다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왜 그런지 이유를 들어 보자.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업장을 소멸시켜 영혼체를 보름달 같이 빛나게 만들어야 하는데 자력수행만으로는 이것이 지극히 어렵다. 특히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한삶정리라는 업장소멸 절차가 필요하고, 빙의 등 외마를 물리쳐야 하며, 4개의 영혼체를 완전히 분리해야 되고, 여자인 경우 영체를 남자로 만들어야 하며, 정토에 자기 분신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작업은 오로지 부처님만이 해 주실 수 있다. 그러므로 수행도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타력을 받는 칭명염불을 해야 한다. 칭명염불 중에서도 부처님 중의 부처님이신 석가모니불 칭명염불을 해야 된다. 칭명염불은 부처님 재세 시부터 있었던 수행법이고 모든 불보살들의 수행법이며, 많은 경전에 근거가 있는 수행법이다."

신불교에서 말하는 칭명염불은 석가모니불을 칭명한다는 점과 염불시 반드시 부처님의 경전(금강경)을 읽고 다라니를 한다는 점에서 정토종의 염불수행과 차이가 있다고 한다.

신불교 사상-불교학계 · 교계의 진지한 논의로 정법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신불교가 주창하는 세 가지 사상은 불교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의 3대사상은 상호간 매우 논리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일관된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본체계의 실체인 영혼체의 존재는 부처님의 실존을 증명하는 논리적 근거가 되고, 부처님의 실존은 칭명염불의 이론적 실천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불교의 사상은 어떤 형태로든 기존 불교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놓을 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혼체 윤회론이라는 신불교의 주장은 영혼체를 부정하고 있는 기존의 불교계와 학계에, 나아가 종교계 전반에 걸쳐 엄청난 회오리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모든 진통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정립하고 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진통이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기존 불교계나 학계에서도 새로운 사상을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과거의 논리에만 얽매이지 말고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개선하려는 전향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자재만현 큰스님 인터뷰

왜곡된 무아설이 2천년이상 방치되어 왔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선지식이 왔다 가셨고 달라이 라마나 틱 낫한 같은 세계적인 지도자도 생존해 계시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무아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체계의 실체인 영혼체에 관하여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혼체 이론은 상품보살 정도의 법위에 가야 어느 정도 실체를 알 수 있고, 붓다의 경지에 가서야 완벽하게 체득할 수 있는 심오한 차원의 교설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훌륭한 학자라 해도 무아설이나 영혼체 이론을 바르게 정립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그리고 생존해 계신 분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어떤 큰스님도 이런 경지에 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산불교에서 가섭존자와 아난존자의 이름으로 왜곡된 무아설을 바로 잡고 영혼체 윤회론을 주창하여 정법을 펼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큰스님께서 칭명염불하실 때의 경지나 체험이 궁금한데요?

수행경지는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① 귀가 쫑커덕 하고 닫히며 외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단계
② 대낮같이 환해지며 현란한 빛의 입자를 보는 선정 단계
③ 시공을 초월한 적멸세계로 들어가 본성(공)을 보는 무아단계
– 견성(화두타파)
④ 문수 · 보현보살님으로부터 자금색 정토 빛을 받는 단계 – 보살(8지)
⑤ 햇살 속보다 더 밝고 강렬하고 영롱한 무량 억종광을 보는 단계
– 붓다의 관문

큰스님께서 친견하신다는 부처님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부처님의 현신 모습은 너무나 거룩하여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키는 1m78cm, 몸무게는 80kg이고 60세 안팎으로 보입니다. 항상 회색 장삼에 108쪽 빨강가사를 수하시고 깔끔하고 청정하시며, 머리는 언제나 백호를 친 듯하고 잘 생긴 모습에 취합니다. 얼굴은 항상 자애로운 아버지상이고, 맑고 깨끗한 자태가 싱그러우며, 피부는 우유 빛으로 부드러우면서도 매끄럽게 보입니다.

신불교의 수행덕목으로서 특히 효행을 중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신불교에서는 신심, 효행, 청정계율, 자비이타행, 실천행 등을 중요한 수행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효행은 불교의 중심사상이며, 우주이법 차원의 매우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진정한 효행은 돌아가신 후 지옥이나 축생의 몸으로 지극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부모조상의 영혼을 구해주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천도재입니다. 그리고 천도재는 반드시 부처님이 주관해야 천도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현지사는 관음태교를 통해서, 그리고 모범효행자 포상을 통해서 효사상을 널리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지사는 호국평화불교를 지향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현지사의 호국 평화불교는 과거의 호국불교와는 차원이 크게 다릅니다. 우선 비로자나불을 모신 대적광전과 다보불탑을 조성하여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우주적 불력을 실제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통일과 국운융창, 나아가 인류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큰 뜻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산불교 – 자재만현 큰스님〉 30여 년간 수행 염불삼매 속에서 부처님 친견

자재만현 큰스님께서는 1937년 전남 함평에서 태어났다. 1960년에 석암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경봉스님 문하에서 화두참구의 참선수행을 통해 10여 년 만에 공성을 증득했다. 대한 불교 조계종에서 상임포교사로 활동했으며, ≪화엄경≫의 선재동자처럼 여러 선지식을 두루 찾아 구법을 하기도 했다. 그 후 경전을 통해 더 높은 세계가 있음을 확신하면서 과감하게 염불행자로 방향을 전환했다. 30여 년간 사력을 다해 수행한 결과 깊고 깊은 염불삼매 속에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가르침을 받아왔다. 드디어 2000년에 ≪법화경≫의 수기대로 불세존으로부터 불호 '산해혜자재통왕불'로 붓다 인가를 받았다. 좌우보처는 상행보살과 정행보살이다. 현재 영산불교의 교조로 계신다. 저서로는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II》가 있다.

신불교의 총본산 – 영산불교 현지사



중생구제와 호국평화 위해 38선 이북에 설립한 신불교의 총본산
아난존자의 설법 시 불세존께서 업장 씻어주시는 붓다회상
절대계의 실제 부처님 모습대로 머리 깎고 눈 뜬 불상 모셔
금년 4월 초파일 사상 유례 없는 봉축 10만등 불사 봉행

현지사는 정법포교를 통한 중생구제와 호국평화의 원력을 실현하기 위해 두 분 큰스님께서 2001년 5월에 창건한 정법도량으로서 38선 이북 춘천시 교외에 자리 잡고 있으며, 영산불교의 총본산이다. 부산과 대전에 분원을 두고 있다. 현지사(顯智寺)는 "부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절"이란 의미로 부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한다.

춘천본사에는 부처님 본불(노사나불)을 모신 대웅보전과 비로자나부처님을 모신 대적광전, 그리고 다보부처님을 모신 다보불탑과 인간의 길흉화복을 주관하는 보명불 · 산왕불 · 치성광여래불을 모신 삼불보전이 있다. 현지사에 모셔놓은 부처님들의 불상은 절대계에 계시는 본불의 모습대로 재현하여 세계 어느 절에서도 볼 수 없는 머리 깎고 눈 뜬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금년 사월 초파일 대웅보전 개원시에는 불교사상 유례가 없는 10만등 봉축불사를 성공적으로 봉행한 바 있다. 또한 현지사는 호국평화와 중생구제를 위한 명실상부한 지구촌의 2대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대적광전과 다보불탑을 조성해 놓고 있다.

현지사에는 불세존의 본불이신 노사나부처님께서 상주하고 계시고, 오여래부처님, 준제보살님과 미륵부처님을 포함한 여러 부처님께서 상주하고 계신다고 한다.

현지사 자재만현 큰스님께서는 영산회상 이후 2600여년 만에 처음으로 매월 2회의 붓다회상을 열고 있으며, 설법시에는 불세존께서 무량광으로 참석불자들의 업장을 씻어주심, 전국 각지에서 상시 1000여명의 불자가 참석한다고 한다.

■ 현지사 :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95번지 (033-243-1795)